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사 2005 / 12

korean Architects



Contents



25

41

42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12 440호

칼럼	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	전영철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시론	Sori?... Sorry!! - 어느 음향 설계자의 고민	김운성	20
회원작품	첨경헌 (瞻景軒)	송광섭	22
	엘포트 빌딩	주영정	28
	평화의담 전망대	이병철	34
	삼성미술관 리움	박 승미리오 보타장 누벨레 클러스	38
	한국국제전시장	김정철·이종찬·이성림·김종국	46
	W 서울 워커힐	이영희 · 정영균·아론 탄	52
작품노트	삶은 흘러가고 거기에 그곳이 있다	장현숙	58
설계경기			62
기고	발코니 구조변경의 합법화에 대한 고찰	서승직	80
	중수지대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	박시익	82
	가족성 건축미학	최동호	93
건축마당	협회소식		96
	건축계소식		101
	건축인터넷정보		107
	통 계		110
	법령		112
	해외잡지동향		115

발 행 인 이철호
 편 찬 위 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영림인쇄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45



49



53

Korean Architects

Vol. 440

December 2005

Column

Let's Not Fear Revision of Articles Jeon Young-cheol 16

Cartoon

Yoo Won-jai 19

Current view

Anxiety of a Sound Designer Kim Yoon-seong 20

Works

Chum Kyeong Heon Song Kwang-sub 22

El-port Building Joo Young-jung 28

A dam of Peace Observatory Lee Byung-chul 34

Samsung Museum of Art Leeum Park Seung + Mario Botta + Jean Nouvel + Rem Koolhaas 38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Kim Jeong-cheol + Lee Jong-chan + Lee Sang-him + Kim Jong-hug 46

W Seoul-Walkerhill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 Aaron Tan 52

Design Note

Life Goes On and There We Find It Jang Hyeon-suk 58

Competition

62

Feature

A Review on the Legalization of Balcony Remodelling Suh Seung-jik 80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Park Si-ik 82

Tactile Architectural Aesthetics Choi Dong-ho 93

Architects' Plaza

Kira News 96

Archi-Net 101

Archi w.w.w 107

Statistics 110

Laws & ordinances 112

Overseas Journal 115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o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

Let's Not Fear Revision of Articles

우리협회의 정관개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도되었지만 항상 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총회에서 거론되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가 회장선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개정안 전체가 무산되는 쓰라림이 있었다.

이에 현 집행부는 회장선거가 없는 2006년도 2월 정기총회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협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시켜 대의원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지난 9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정관개정안을 검토해왔던 법제위원회에게 정관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에 법제위원회에서는 2005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했던 법제위원회와 발전위원회의 공동작성안을 기초로 하여 2박 3일간의 집중적인 토의와 논쟁을 거쳐 지금의 공람 안을 작성하였다.

법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관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다.

관변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건축의 환경과 미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의식을 확보하였고 사업의 내용은 국토이용계획, 건축 관련 신문·방송 통신사업과 건축문화전당사업, 남북 건축문화 교류사업 등 미래에 추진할 사업들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건축문화전당사업은 건축박물관, 자재전시장, 건축 체험관 그리고 모든 건축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연수원 등을 한 곳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중심역할을 추구하는 우리 건축인들의 꿈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북 건축문화 교류 사업은 장래의 통일에 대비한 건축문화 및 제도에 대한 대비사업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심의 건

축계획사업을 뛰어넘어서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계획까지 건축사들의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식적인 외침이며 신문·방송·통신사업은 지금 지방지로 발간되고 있는 건축사전용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신문과 방송을 추구하겠다는 우리 건축사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시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5년제 출신의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청사진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에서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회장의 직선제 선출이다.

현재는 정회원 20명당 1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된 간접선거제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선거관리 내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정리되겠지만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만큼 건축사대회를 겸한 회장선출을 하여 건축사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각 시도 건축사회에 투표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의견,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문제해결의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I.T 왕국에 걸맞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 등의 내용들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회원들의 참여도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회원들이 협회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기껏해야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일 것이다. 내가 직접 뽑지 않은 회장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을 리 없고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없으므로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회장선출의 직선제라는 의견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 시·도건축사 회장단을 이사회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직선제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를 가지는 안건으로서 워크숍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확정된 안이었다. 지역의 의견전달을 위하여 시·도회장단이 추천한 3명을 이사회에 참여케 하자는 절충안과 이사회와 시·도건축사 회장 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이 강하게 거론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전체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현재의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현재의 건축계와 우리협회는 극심한 불황속에서 건설사의 설계겸업 요청, 여타 기술사들의 영역확보 요청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급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을 일선 지휘자격인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좀 더 피부로 느끼게 하고 그에 따르는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회의의 효율성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걱정을 했지만 실제 2005년에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설명과 대처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건축사 회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번이상 시행했음을 고려할 때 집행부와 사무처는 거의 같은 내용의 회의를 두 번씩 했다는 결론이니 집행부에서 보는 회의의 효율성은 함께 모여서 한 번의 회의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도건축사 회장들의 의견개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오해들도 있었으며, 이사회와 너무 이원화되어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견제의식이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알력이 있는 듯 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들은 모두 불식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사회에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역대 시·도건축사 회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입장을 현역회장이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직선제로 뽑힌 시·도 회장단에게 별도의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같은 직선제로 뽑힌 대한건축사협회장과 함께 이사회에서 직접 협회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므로써 지방과 중앙을 하나로 묶는 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다.

네 번째는 전문경영을 위한 외부인사 도입이다.

이번 정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은 상근이사 2명을 이사회에서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상근 부회장이 사무처를 관장하고 외부섭외를 전담하고 있지만 슈퍼맨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회원의 전유물이었던 위원회의 위원장도 대외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도건축사회의 회칙제정을 통한 자율성 확보이다.

지금 현재에도 거의 모든 시·도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그러한 위임조항이 없어서 회칙의 유효성여부가 문제 된 적도 있으며 그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칙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의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법령으로 비교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다.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사업 등의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열되었고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회장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강화한 반면에 회원의 최대의무인 회비납부에 대한 형평성과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관의 의도이다.

집행부는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또한 문화적인 혜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은 그러한 회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무규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관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추대회원에게 적용되던 회비면제 제도는 회원이라는 공평성의 원칙에서 없애기로 하였으며 추대회원에게는 별도의 복지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추대회원에 대한 예우방법을 달리 하였다. 회비미납의 회원에게는 현재의 기간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까지도 회비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권리정지, 제명까지 징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이 이번 정관개정 주요내용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100%만족할 수는 없듯이 이 개정안이 회원 모두에게 찬성을 받거나 반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위원회에서 사심 없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알리고 싶으며 시·도 건축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사회의 최종결론을 얻어 총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변화는 부담스럽고 불안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러한 고통 없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할 때에는 필자의 모습이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 와서는 너무 개혁적이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 것을 보면 우리협회의 정체된 일면을 보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원로들께서 직접선거제는 무리라고 단언하거나 시·도건축사 회장단의 이사회 참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한 우려를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공청회발표에 나선 최찬환교수의 “가장 엘리트 그룹인 건축사협회에서 직선제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지방과 중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의 이사 참여는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상임이사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새길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가?

우리회원들의 사기는 어떤가?

우리의 입장에서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존재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최소한의 몸짓이라도 발버둥이라도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축사들의 의지가 뭉쳐져서 이번 정관개정의 내용이 일치된 마음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

Sori?... Sorry!! - 어느 음향 설계자의 고민

Anxiety of a Sound Designer

며칠 전 모 교회 신축 현장의 공정회의에 참석을 했다. 참석자는 대체로 교회의 건축 위원장, 현장 소장, 인테리어 설계자, 음향 관계자들이었다. 이런 회의는 음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나의 입장에서 그다지 편한 자리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테리어 설계자와 입장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면 자칫 건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들먹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 되었는데, 공사의 발주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고, 인테리어 설계자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자부심 혹은 작품성이라는 문제로 어쩌면 실내 공간의 컨셉을 바꿔야할지도 모르는 인테리어 마감재와 그에 따르는 음향장비의 설치를 결정하 기란 쉽지 않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이 소리의 특성과 그 역할 때문에 또한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선 들먹이게 되는 것이 건축 설계도면이다.

대부분 1,000석 이상의 교회 혹은 그 크기가 비슷한 집회시설, 특히 집회 공간의 구조가 부채꼴 형태의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건축 설계도를 보면 강단 혹은 무대 맞은편의 벽면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음향의 경우 무대에서 발생한 소리는 그 타원형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타원형의 벽면은 오목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실내 중앙의 어느 부분에 소리의 초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상태로 건축의 완공이 되었을 경우 그 포인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리의 고문에 시달리게 된다. 그 포인트에서는 무대에서 오는 직접음과 기계 음향 기기에서 증폭되어 나오는 고출력의 소리 그리고 타원형의 뒤 벽면에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소리들이 간섭을 일으키며 집중 되어서 그 곳은 소리의 음압(SPL-Sound Pressure Level)이 공간의 평균적인 소리의 세기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소리는 듣기에 편한 소리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경우 음향기기를 마음대로 사용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통의 집회공간에서는 2층과 3층 혹은 그 이상의 중층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공간의 구조가 중층 발코니 아래의 소리를 좌우하게 된다. 바닥면과 중층 발코니의 사이가 너무 좁을 경우에는 소리의 특성상 그 공간은 전체 공간과 비교하여 음향학상 또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리의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공간의 소리가 그곳으로 유입되는 소리와 다시 간섭을 일으켜서 저음이 없어지거나 이상하게 중복되는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회시설은 중층의 높이를 설계자 마음대로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설계자가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될 경우 우선하는 것이 설계도 일 수밖에 없다.

건축의 기본은 설계도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마감재와 인테리어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는 설계자의 음향에 대한 의지가 대부분의 설계도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연히 회의 시간이 길어 질 수밖에 없다.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은 이미 발주자의 요청과 건축사의 공학적인 냉철함과 예술가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합의물이기 때문에 음향이나 인테리어의 시공자가 아무리 애써보아도 건축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축물의 뒷벽이 오목한 타원형이거나 슈 박스형, 와인 아드형, 아리너형 등 설계 가능한 다양한 공간은 벽면의 마감 형태와 흡음재 혹은 반

필자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고, 한국에서 '영화사운드 레코딩'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음향컨설팅 전문기업인 'ADM'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사재의 적절한 구성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건축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건축음향과 기계음향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제시가 있다면 그야말로 음향 설계자는 이미 계산된 범위 내에서 음향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어서 설계자와 발주자가 원하는 방향의 음향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나와 같은 음향 설계자 혹은 음향업자들에게 있는데, 현재 집회 시설의 음향을 설계하고 음향 시공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향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음향 장비의 수입업자가 음향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음향 시설은 일단 소리가 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장비의 설비에만 신경을 쏟게 되고 발주자도 보이지 않는 소리의 질보다는 보이는 장비의 화려함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시설의 음향장비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음향의 질은 그 장비의 화려함에 비하여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다. 이런 음향업계의 현실 때문에 건축 설계자는 음향의 지문을 받을 곳이 한정 되어있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몇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다양한 건축물의 공간에 대한 목적에 맞는 음향 설계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고 싶은 음향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지문을 구할 수 있어도 음향의 설계도를 정식으로 제작 할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업자의 설계는 자신들이 수입한 장비를 팔기 위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구조상 잘 만들어진 설계도라 할지라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가 건축물 설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비하여 음향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원래 실내 공간에 대한 음향 공학적인 면이 체계적인 면을 갖추게 되기 시작한 것은 1885년 Dr. Sabine에 의하여 「잔향이론」의 발표로 비로소 건축음향의 이론체계가 확립되었다. Dr. Sabine은 하버드 대학의 Fog 강당의 음향 장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향에 관한 실험에 착수하였고, 여러 가지의 실험을 통하여 발생된 소리가 소멸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를 고안하고 이 결과 강당과 같이 집회가 가능한 넓은 공간에서의 실제적인 데이터 즉 Sabine의 잔향식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 뒤 주장하는 학자와 공간에 적용되는 공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잔향시간을 그 공간에 맞추어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음향 설계자의 고민이고 현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음향 공학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음향설비의 시설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들은 음향이나 설계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것들 보다는 건축주의 예산부족, 외관치중, 적절한 음향 감리의 부재 등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이 관행상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의 완성도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설계 작업을 하시는 건축사들께 아쉬운 부탁을 하고 싶다. 거의 모든 경우의 준공 도면을 살펴보면 음향설계는 전기업자의 부분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기를 사용해야하고 배선, 배관의 문제 때문에 전기 쪽에서 설계도를 만들겠지만 그런 것은 전기 배관, 배선의 문제처럼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배선, 배관을 제외한 음향장비의 위치, 각도, 용량 등 음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음향 전문가에게 직접 건축 설계 쪽에서 의뢰를 하고 그 다음 설치의 일반적인 면을 전기 쪽에서 설계에 반영하면 어떻까하는 점이다. 물론 그 전에 인테리어의 마감재, 벽면의 구성 등이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가 완성이 되어있어야 정확한 잔향시간의 산출에 의한 음향설계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물의 완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건축 설계부분에서 미리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경험에 의하면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제출한 음향 도면은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전기공사를 맡은 회사에서는 음향 전문가가 아닌 설치업자에게 도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음향 설치업자는 건축도면 중심이 아닌 경험에 의한 장비구성을 하여 건축 설계에 실제로 반영되는 설계도가 아닌 음향장비의 블록도정도의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 설계사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설계도를 받아서 준공도면에 넣어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공사에서는 음향설계도면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음향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리라는 것이 건축물처럼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의 감성을 편안하게 혹은 강렬하게 표현 할 수 있어서 공간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향의 적절한 이용이다. 만약 무서운 영화를 소리를 완전히 줄이고 본다면 아주 웃기는 영화가 되고 만다. 이런 예를 들어보아도 소리라는 것이 공간에서 잘못된 설계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는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잘 구성된 음향공간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음향 심리학에서도 이런 공간의 문제는 자주 지적되기도 한다. 공연 위주의 집회장이던 교회와 같이 설교 중심-최근에는 교회의 공간도 공연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의 공간이던 간에 건축물은 모이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소리는 모임의 목적에 따르는 내용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건축하는 전체의 중요도에 따른 비율로 볼 때 음향에 대한 투자도 인테리어 정도의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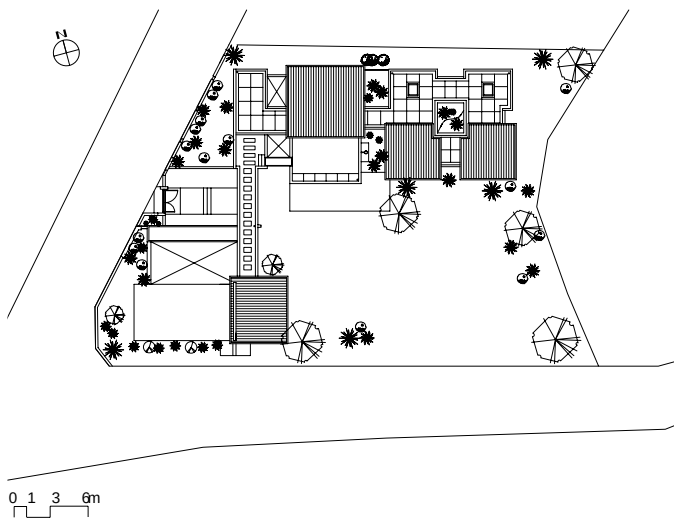
며칠 전 공정회의에 참석했던 교회의 고민도 전체 건축비 중 음향에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을 잘못된 설계에 준하여 너무 적게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음향을 하려면 비용의 추가는 불가피했고 다시 추가하려니 비용의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에는 인테리어의 음향적인 측면에 비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장비설치는 준비 시설만을 해놓고 추후 완성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마 이 교회는 그런대로 음향의 수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가 된다. 다음 주쯤 가서 수정 도면을 검토해야겠다. ■

첨경헌 (瞻景軒)

Chum Kyeong He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15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준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변구역
용도 주택
대지면적 844.64㎡
건축면적 161.44㎡
연면적 194.77㎡
건폐율 19.11%
용적률 23.0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지정벽지, 석고보드위 지정페인트마감, 원목마루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ZINC
설계담당 이주연
구조설계 예영구조
설비설계 청파설비
전기설계 극동문화전기
시공사 환3개발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설계기간 2004. 05 ~ 07
공사기간 2004. 07 ~ 2005. 10

1. 진입부에서 본 모습
2. 건물 전경



Location 60-15, Daesim-ri, Yangseo-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844.64㎡

Bldg. area 161.44㎡

Gross floor area 194.77㎡

Bldg. coverage ratio 19.11%

Gross floor ratio 23.06%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4. 05 ~ 07

Construction period 2004. 07 ~ 2005. 10



풍경과 망입기

5m에 다다른 부담스런 옹벽과 강 언덕 대지를 인위적인 분할방식을 통해 호수같이 잔잔한 남한강 수면과 사계절의 풍경을 모두 끌어안는다. 이어 강 건너 보이는 마을과 산자락 능선 등 포개지는 원경 역시 끌어안아 비와 눈이 내리며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경관적 틀로 만들어 저녁노을 지는 남한강 수면 위에 뜨는 달과 보는 이의 마음에 뜨는 달을 헤아리는 낭만을 선사한다.

작업전제

옹벽을 절개하고 이를 보완한다. 측면 급경사 도로에서 접근하여 인위적인 담으로 나누기 보다는 영역경계로 땅을 분할한다.

근경과 원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펼쳐진 경관을 이동하며 즐기도록 안배하였으며, 거실과 침

실공간 등의 쉼 공간의 채 분리로 만들어진 사이공간에 자연을 끼워 넣고 자연속에서 더불어 쉴 수 있게 했다.

마당에는 시골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평상을 두고, 강으로 가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원두막을 둔다. 이로써 시각과 보행, 생활이 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침실 공간 내부에 실내정원이 주는 소자연과 공간영역을 나누고 더한다.

집짓기

옹벽을 깨고 차고를 만든다. 채분할과 면분할된 노출콘크리트의 균일한 시공법과 재료물성을 최대한 나타내도록 하며, 여름 복사열과 겨울 적설 방한용 지붕틀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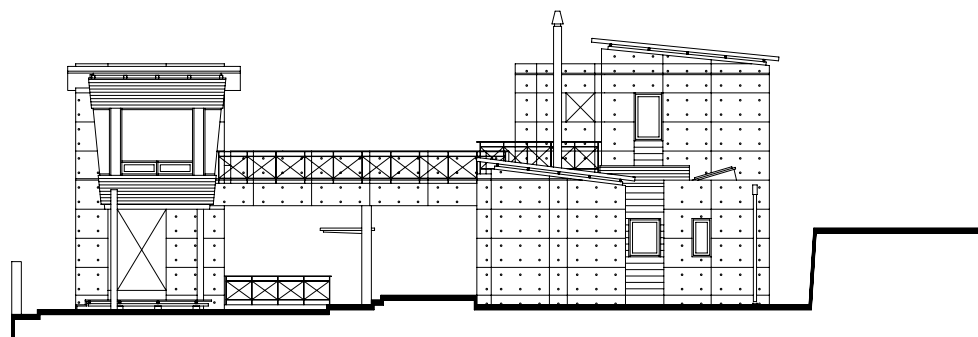
현장 디테일 보안을 위해 지난 1년 3개월여

간의 긴 시공기간 동안 현장 디테일 보안을 위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어렵고도 지루한 싸움이었다. 특히 공중 보행로를 지나 이르게 되는 언덕 위에 떠 있는 원두막은 강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장소이자 이 첨경현의 핵심공간이었으나 경사진 원두막과 공중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거푸집, 비계가 사용되었고, 콘크리트 입력 보완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붓기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힘든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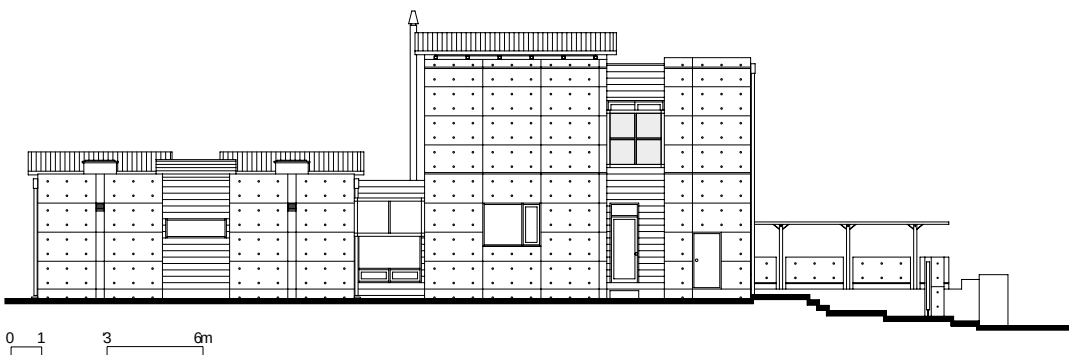
하지만 어렵게 완성한 이 원두막에서 남한강의 절경을 바라보며 탄성을 자아내는 건축주의 흡족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오랜 공사의 시름과 노고를 단번에 떨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



- | | |
|---|------------|
| 1 | 원두막 |
| 2 | 브릿지에서 본 전경 |
| 3 | 브릿지 하부 |
| 4 | 서측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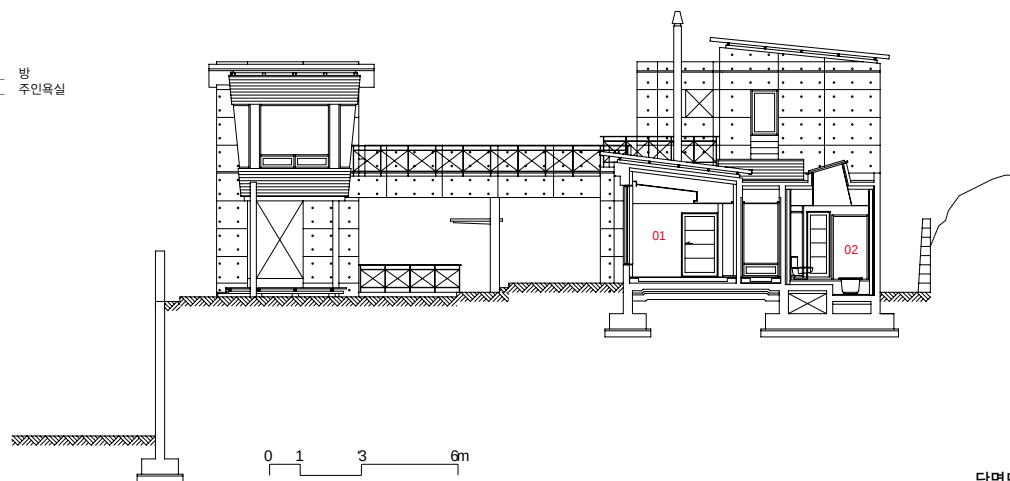


우측면도



배면도

01. 방
02. 주인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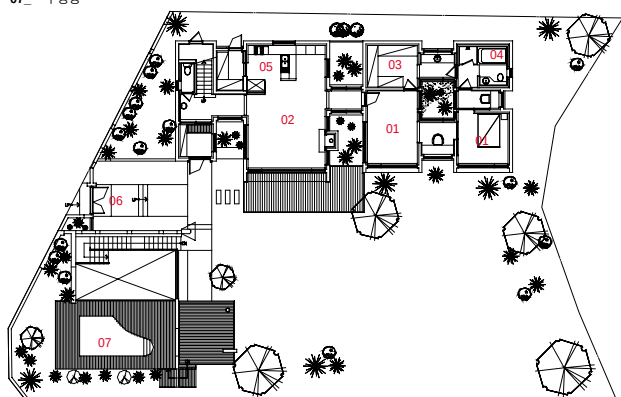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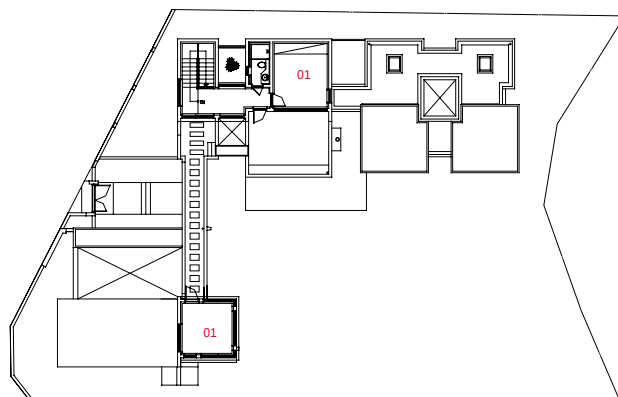




- 01. 방
- 02. 거실
- 03. 드레스룸
- 04. 주인욕실
- 05. 주방
- 06. 대문
- 07.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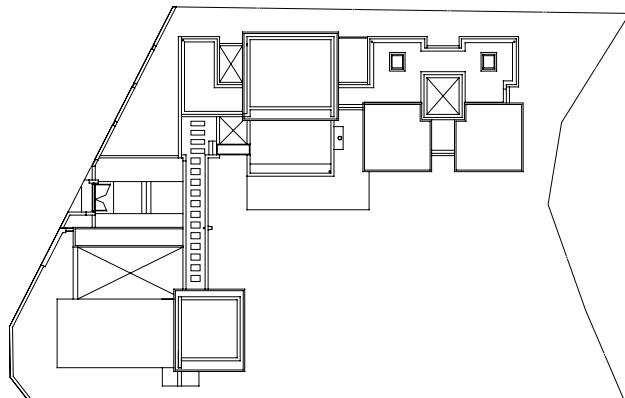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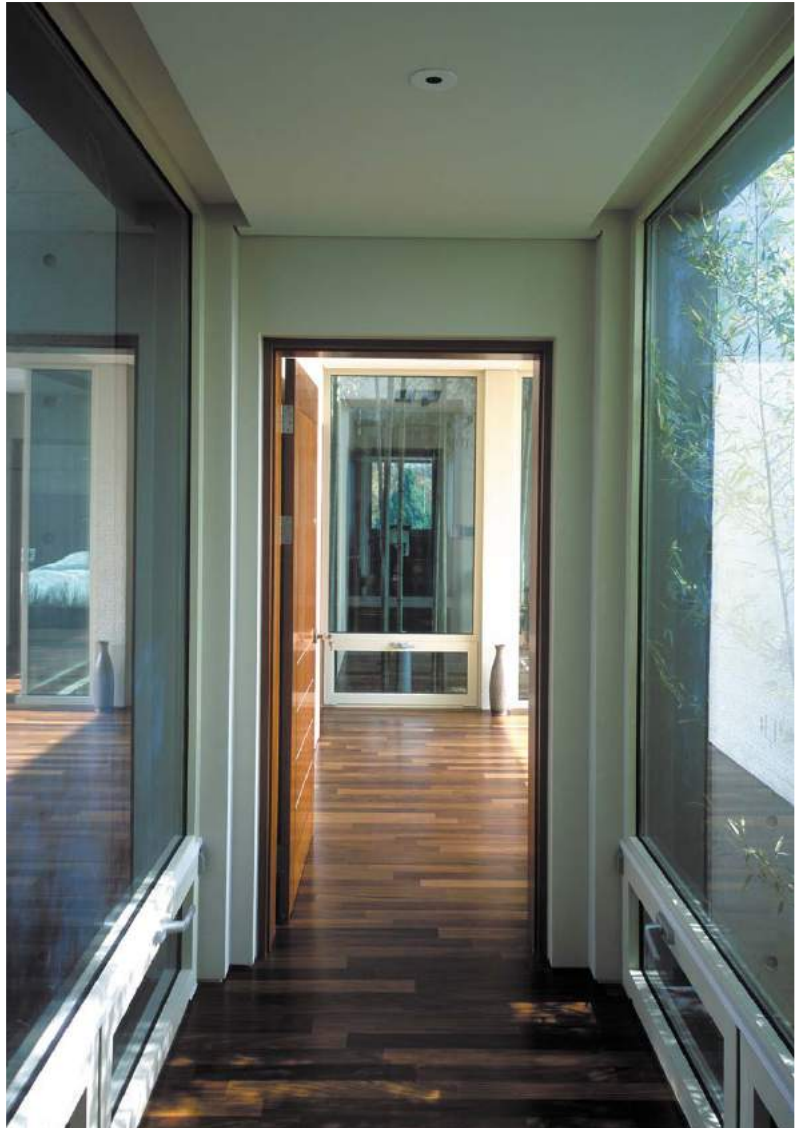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 | |
|---|---|---|
| 1 | 2 | 3 |
| | | 4 |
- 1. 거실과 데크
 - 2. 거실
 - 3. 침실공간 진입부
 - 4. 중정



지붕층 평면도



엘포트 빌딩

El-port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2-11
대지면적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대지면적	268,10m ²
건축면적	154,36m ²
연면적	986,83m ²
건폐율	57,58%
용적률	293,01%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 내후성강판, 적삼목루버, THK24 복층유리, THK10 고밀도목재패널
설계담당	정종인, 이민희, 박재철
구조설계	PEG 구조
설비설계	썬티엔씨
전기설계	파워텍 엔지니어링
시공사	(주)나래건설



Location	962-11,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268,10m
Bldg. area	154,36m ²
Gross floor area	986,83m ²
Bldg. coverage ratio	57,58%
Gross floor ratio	293,01%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six stories above ground





‘엘포트’는 상업 변화가인 테헤란로와 학원 중심가, 밀집된 주거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주거공간을 겸한 상업 오피스 건물이다.

도로에 진입하면서 만나게 되는 ‘엘포트’는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 컨텍스트에서 조금 뒤로 물러선 듯한 정적인 자점에 랜드마크와 같은 점을 찍는 동시에 이색적인 볼륨과 강렬한 색채를 가진 오브젝트의 느낌을 갖는다.

건물 외관에 쓰인 콘크리트와 내후성 강판은 지하 주차장과 주 공간을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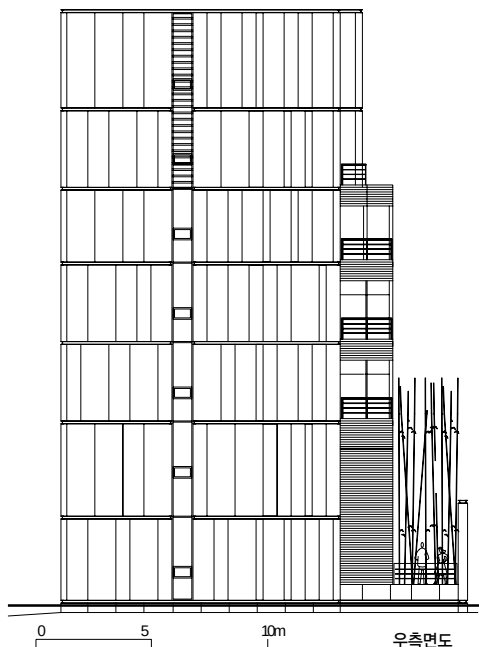
경사를 끼고 형성된 지하 주차장은 시야를 노출시킨 적삼목 루버로 처리되었고, 메탈 격자의 천정마감과 함께 공간의 밀도를 높이면서도 투명성을 가진 트레스홀드(threshold)가 되었다.

입면 재료는 내후성 강판으로 덮인 프레임 형태의 표피 안에 투명한 커튼월 유리를 사용함으로 코르텐이 가진 나무느낌의 자연 친근한 색조를 투명함과 대조시켰다. 내후성 강판은 인공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무광택의 색을 통해 세월의 흐름과 시간성을 담게

되는 재료다. 이 재료는 다시 주 계단과 엘리베이터 코아 부분의 루버가 되고 이는 입면의 통일성을 가중 한다.

입면 표피의 내벽은 파스텔 옐로우의 색감을 가진 고밀도 목재패널로 마감되어 외부의 강렬한 다크 브라운 색조와의 대비를 통해 재료의 물성을 더욱 드러내기 원했다. 배면은 표피 속에서 적삼목의 볼륨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각 층의 기능에 따른 재료와 구성 형식의 분리를 통해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하는 명료성을 가진다.

1, 2층에 위치한 이태리 레스토랑의 평면구성은 도로변의 소음과 산만함을 흡수하여 후면의 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원으로의 오리엔테이션을 유도하는 안락한 리트릿(retreat)을 연출한다. 인테리어의 재료와 색채 구성은 외부와 연결된 맥락의 물성을 사용함으로 내외부의 통일성, 미니멀리즘 적 단순성을 유도했다. 바닥은 짙은 갈색의 메이플 나무판으로 플로링 했으며, 바 카운터와 노출된 2층 슬래브의 테두리 벽면은 무채색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어 공간의 차별함과 세련미를 더한다. 후면의 정원에 심은 대나무는 다시 선명한 청록의 자



연색으로 내후성 강판의 배경과 대비된다. 실루엣으로 표현된 계단과 2층의 난간은 공간의 통일성과 시야의 열림을 의도하여 투명한 유리 난간을 설계했다. 1층은 내외부의 투명한 관계를 위해 유리로 노출되었으나 2층은 창문의 위치를 시야로부터 제한함으로 다소 내부 집중적인 모습의 대조된 공간으로 연출되었다.

5, 6층은 주거공간이 삽입된 원룸 형 스튜디오로 구성되었다. 6층의 주거 스튜디오 공간은 분절되어 적삼목 데크로 플로링된 안마당 개념의 공간이 삽입된다. 잔디가 식재되고 대나무를 심는 중층높이의 시원한 정원이 다시 벽을 통해 자연과 하늘을 불러들이는 생태적인 환경을 만든다. 데크로 연결된 마당 공간은 하늘로 뚫려있으면서 옥탑층까지 연결된 하늘 마당 휴식 공간이다. 옥상 공간은 설계실 직원들과 거주자들이 올라와 도시를 관망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리프레쉬(refresh)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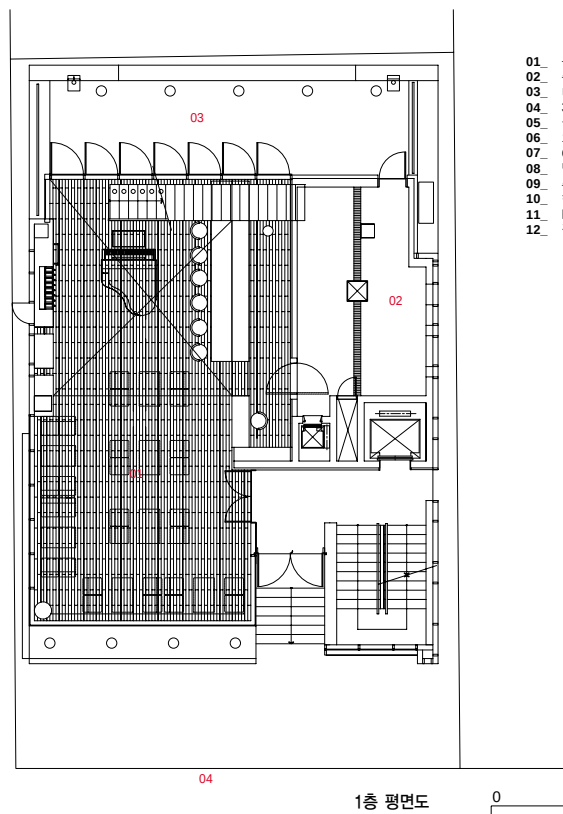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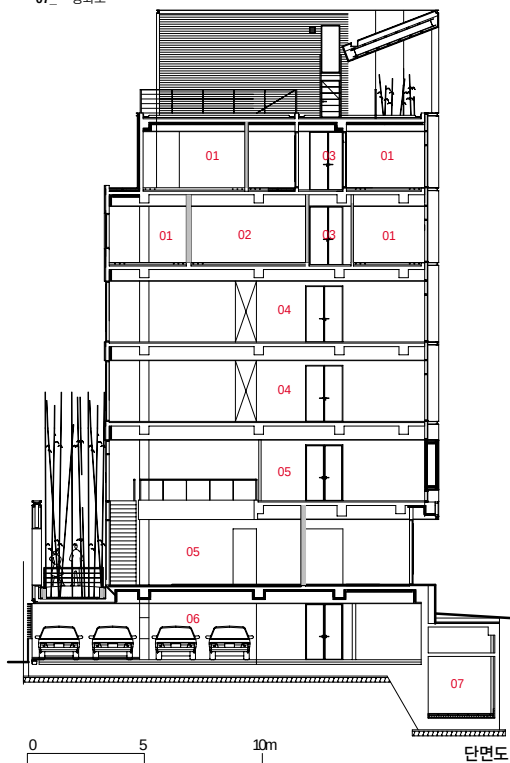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주 코아 부분 동선 방향성의 조절, 진입부로부터 혼재된 단층과 중층의 적절한 공간 비례의도, 예기치 못한 그런 area의 삽입으로 인한 다이내믹함과 긴장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동선의 방향은 건물로의 여정 속에서도 도로와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하며 도시 속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입면과 측면의 구성 역시 도시 조직의 축을 중심으로 완전한 열림과 닫힘 그리고 투명성을 가진 면과 닫힘, 폐쇄성을 가진 면의 대립된 구조로 읽을 수 있다. 미니멀리즘 건축의 단순성, 명료성의 조형적 특성을 드러내는 입면 구조는 프레임으로 절제된 외피가 건물을 감싸는 형태를 취하며, 외피는 프로토타입 으로부터 유기적으로 변화된 경계선이 된다. 생태적인 재료로서 선택된 내후성 강판은 적삼목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 친화의 정서를 발산하고 건물 전체의 유기적인 색채계획을 통한 물성의 발현이 의도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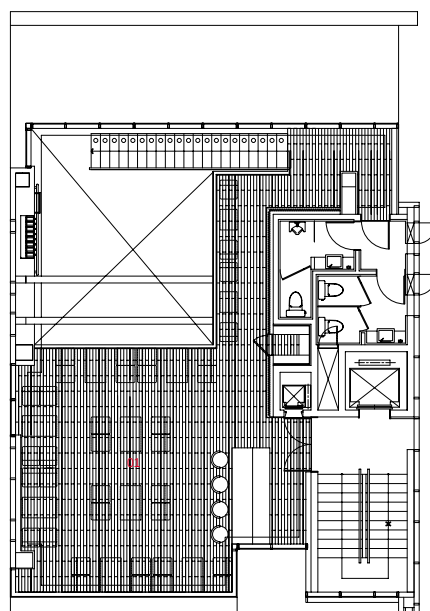
- | | |
|---|---|
| 1 | 2 |
| 3 | |
1. 우측 디테일
2. 옥상의 하늘 마당 휴식공간
3. 내후성강의 흐름에서 들어가 있는 주출입구



- 01. 방
- 02. 주방
- 03. 현관
- 04. 사무실
- 05. 음식점
- 06. 주차장
- 07. 정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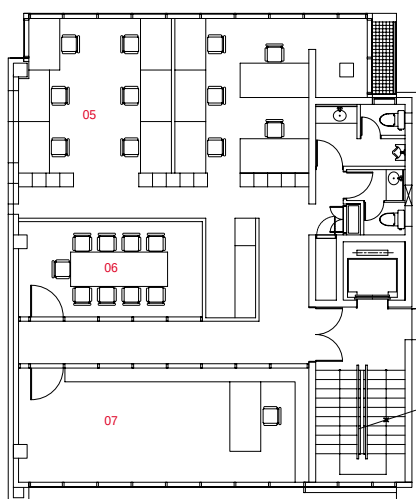


- 01. 음식점
- 02. 주방
- 03. 대나무정원
- 04. 35m도로
- 05. 설계실
- 06. 회의실
- 07. C.E.O실
- 08. 방
- 09. 주방
- 10. 현관
- 11. DECK
- 12.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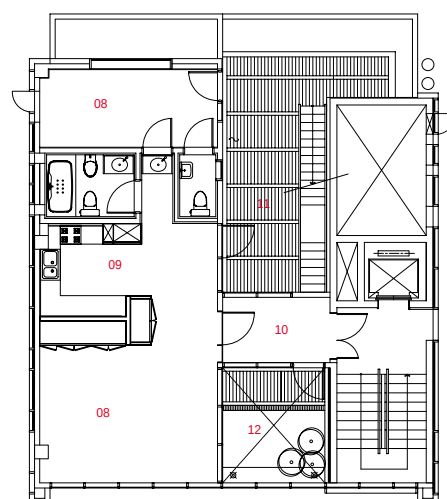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사무실내 전시복도
 2. 외인을 위한 공간
 3. 건축사의 공간
 4. 2층 높이로 오픈된 공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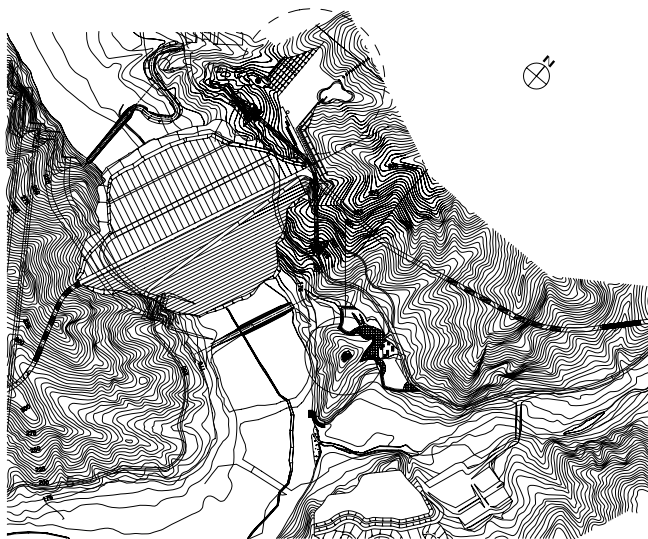
6층 평면도

평화의 댐 전망대

A dam of Peace Observato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1-8번지
지역지구	농림지역, 관리지역
용도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1,510㎡
건축면적	65,36㎡
연면적	65,36㎡
건폐율	4.33%
용적률	4.33%
구조	철골조
마감	티타늄아연판
시공사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축주	한국수자원공사
설계담당	오세열, 신애리, 김은희, 장경민, 정진교
설계기간	2005. 05 ~ 2005. 08
공사기간	2005. 09 ~ 2005. 10

0 10 50 100 200m



Location	San 321-8, Dongchon-ri, Hwacheon-eup, Hwachepm-gun, Gangwon-do, Korea
Site area	1,510㎡
Bldg. area	65,36㎡
Gross floor area	65,36㎡
Bldg. coverage ratio	4.33%
Gross floor ratio	4.33%
Structure	R,C
Design period	2005. 05 ~ 2005. 08
Construction period	2005. 09 ~ 2005. 10

- | | |
|---|---|
| 1 | 2 |
| 3 | |
1.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전망대
 2. 벨파크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전망대
 3. 자연의 풍경을 담은 전망대



평화의 종이 있는 전망대

평화의 댐은 우리 역사의 아픔, 그 아픔은 순간적인 흐느낌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객관적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군 전역이 6.25 중 전쟁터였던 화천군에서는 동족상잔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와 분단극복을 위한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평화의 댐 가까이에 평화의 종 전망대를 계획한다. 그리하여 심오하게 울리는 종소리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민족을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게 이끌 것이다.

평화의 댐 전망대는

화천군과 양구군의 사이에 위치하며 파로호를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평화의 댐, 물 문화관과 연계하여 인접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 계획시 기존 자연환경, 건물, 도로 등을 고려한 배치와 주변 산세와의 어울림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입면을 생각하였다. 수직, 수평 동선과 시야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지역주민, 방문객의 평화의 댐 전망대에 대한 관람의 편의를 고려한 데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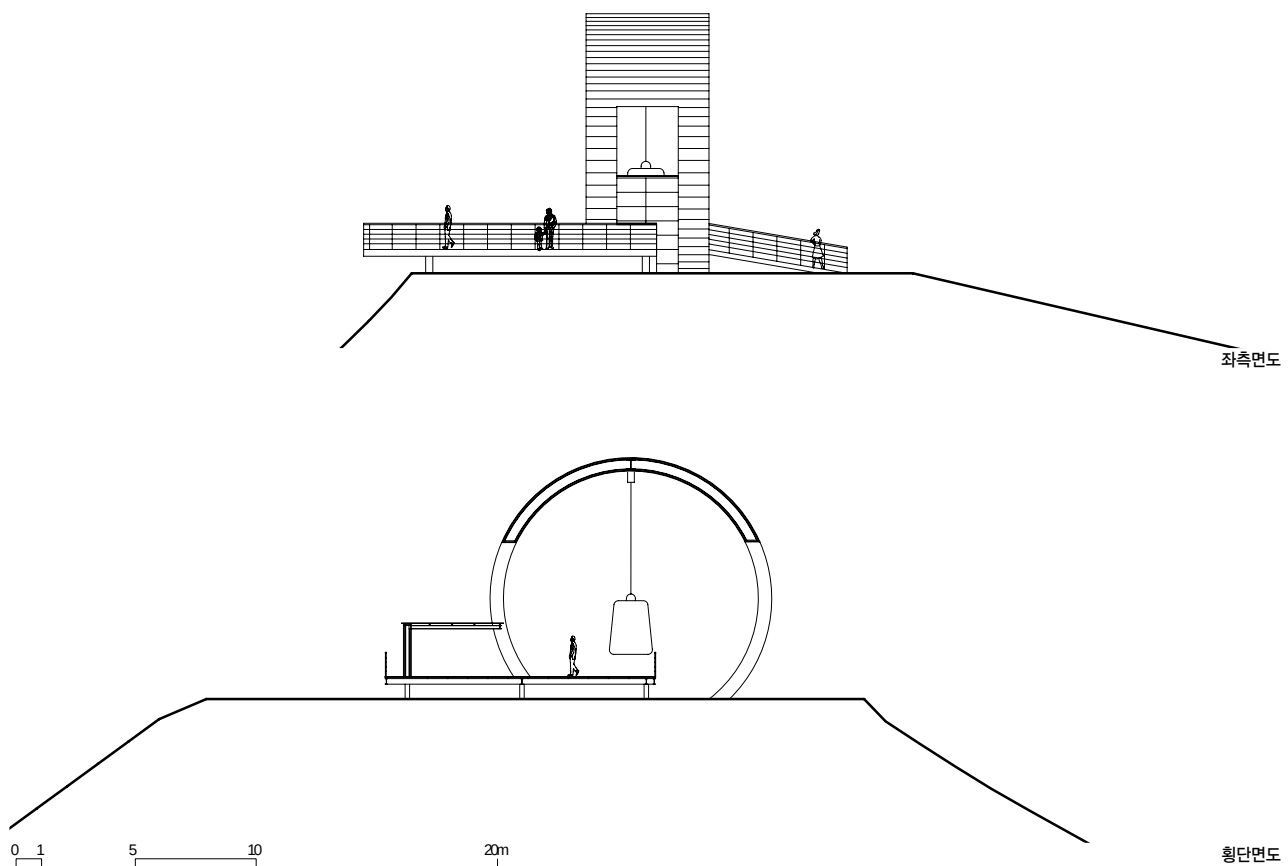
전망대가 평화의 댐 및 물 문화관과 연계되어 관광객들이 댐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도록 계획되었다. 전망대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계획하였고 원형의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평화의 종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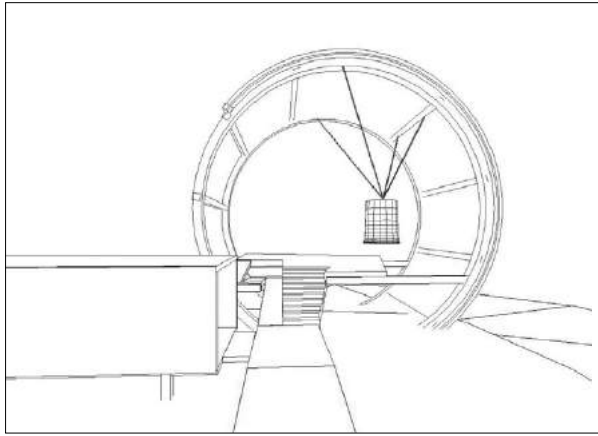
원형의 프레임워크와 전망데크

외부에서 직접 전망 데크로 이동하면서 종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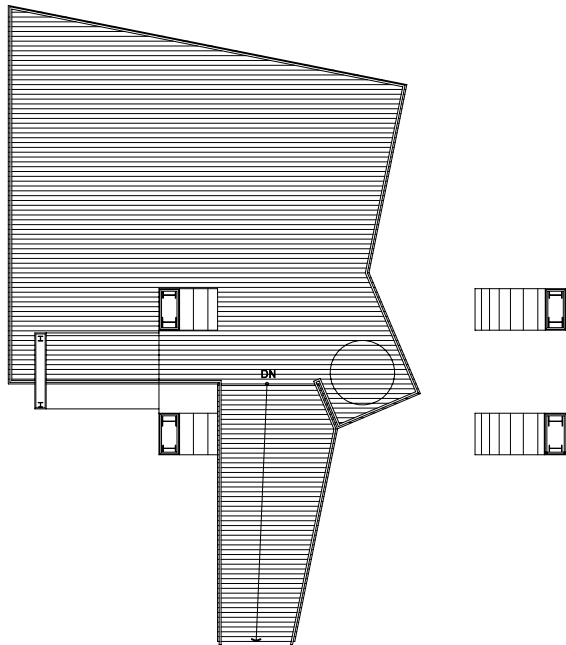
인지하게 되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계단을 통해 전망대로 진입하게 되면 주변산세와 조화되면서 현대적 이미지를 지닌 형태의 구조물이 나타난다. 거대한 원형의 프레임워크는 평화의 댐 및 주변자연이 전시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전망대 부근 조망을 고려하여 설치한 데크가 있다. 수평지붕이 있는 데크로 들어서면 탁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또한 티타늄아연판과 접합유리, 목재 데크를 재료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룬다. 전망대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도 검토 후 합리적 경사로와 시야확보를 위한 원형구조물 내 개구부를 계획하였다. ㉮





스케치



1층 평면도

0 1 5 10 20m



- | | |
|---|------------------|
| 1 | 파로호에서 바라본 전경 |
| 2 | 측면에서 바라본 전망대와 덩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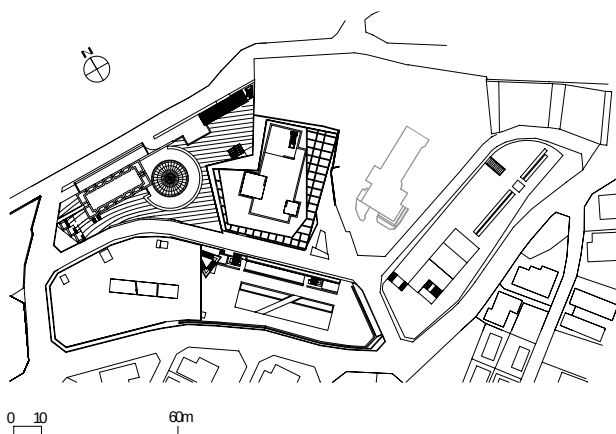


삼성미술관 리움

Samsung Museum of Art Leeum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2-3번지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8,102㎡
건축면적	3,709㎡
연 면 적	28,264㎡
규 모	지하 3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한남동고미술센터 - 테라코나 벽돌 한남동현대미술관 - 스테인레스스틸 블랙파티나, 엑스트라화이트 접합복층유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 엑스트라화이트 접합복층유리, 자라목
시 공 사	삼성물산(주)
건 축 주	삼성문화재단, (북)삼성생명공익재단



Location	742-3,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Site area	8,102㎡
Bldg. area	3,709㎡
Gross floor area	28,264㎡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1. 아동교육문화센터 덕크에서 본 야경
2. 리움 단지 전경

국내 최대의 사립 미술관으로 그 방대하고 수준 높은 소장품을 자랑해 온 삼성문화재단에서 서울 도심에 우리 나라를 대표할 미술관을 새로 짓기로 한다. 서울의 문화축을 재편할 랜드마크이자 세계를 향한 문화의 발산지가 될 이 미술관 건립에서 우리는 부지 선정과 컨셉트의 도출, 건축가 선정으로부터 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1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미술관 건축은 IMF 등의 난관을 맞으면서도 끈기 있게 계속되었고, 각 건축가들을 자극하고 대안을 모색해냄으로써 협력 방식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와 공간 그리고 예술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을 담을 독특한 개성의 세 건축물을 하나의 부지 안에 유기적으로 배치한

이 복합형 미술관은 창의력과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이 시대 건축의 일면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고미술관인 M1은 스위스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를 맡았다. 역원추형의 매스는 도자기를, 성곽의 형태를 닮은 사각 매스는 인류의 보고인 예술품을 수호하는 동시에 성곽 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 고미술품을 외기로부터 차단하려는 듯한 견고한 벽체는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되었는데, 이는 흙과 불에서 탄생한 도자기를 은유하는 것이다. 이 특징적인 외관과 빛깔은 주택가에 낮게 위치한 LEEUM의 랜드마크 역할도 맡는다. M1의 지하에는 세 건축물을 연결하는 중성적 공간인 믹싱 체임버가 위치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긴 로툰다를 통해 자연

광이 지하까지 내려온다. 보호와 보존이 특히 중요한 고미술품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글라스바우한의 특수 케이스를 도입했으며 조명 및 내장재는 물론 미술관 내부의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한국 및 세계의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담는 M2의 기본 설계는 프랑스의 건축가 장 누벨에게 의뢰했다. 굴착된 대지에서 광물처럼 솟아난 괴체 그리고 산수화처럼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부 공간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다. 저철분 투명 유리 사이에 원석처럼 박힌 검은 전시상자들은 M2의 외관을 구성하면서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갤러리의 역할을 맡는다.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녹슬게 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낸 외장재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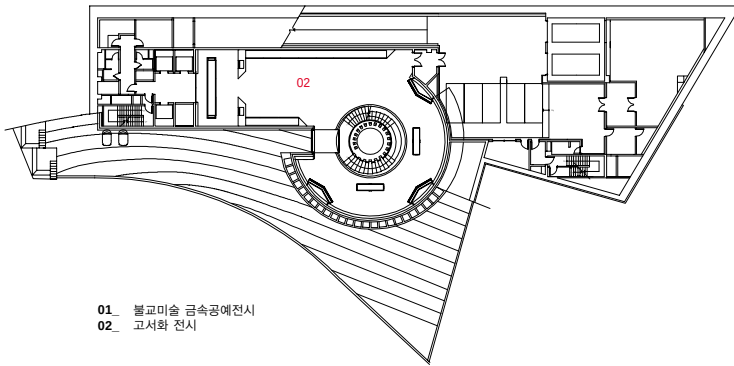
랙 파티나, 굴착된 지면에서 나온 재료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선근 가든의 돌망태 등 이 건물의 특징적 요소들은 삼우설계가 새로이 고안하고 건축가 및 건축주를 이끌어 가며 얻은 성과다.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인간과 예술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이 건축물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좋다.

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시 및 순환의 방식을 실험하기 위해 렘 쿨하스의 OMA와 협력했다. 렘 쿨하스는 세 건축물 사이의 유기적 순환과 건물로의 진입 방식 등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동교육문화센터 설계 과정에서는 굴착된 지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내부에 개념적으로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블랙 박스를 제안했다.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블랙박스는 아직 향방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예술적 상상력을 반영한다. 여기에 블랙 콘크리트를 세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이 개념을 최적화한 형태로 실현해 냈다. M1과 M2를 부각시키기 위한 평평한 고원과 같은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는 개념 아래 극도의 투명성으로 서로를 관입시키는 외경과 내경, 세 줄의 띠로 집약되는 미니멀한 외관, 관람객의 접근을 쉽게 한 진입 경사로 등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삼우설계의 끈기 있는 파트너십으로 렘 쿨하스의 개념을 실제 건물로 구현시킨,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로 기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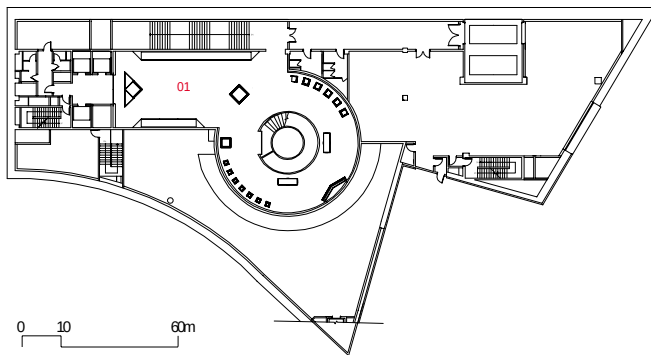
- | | |
|---|-----------------|
| 1 | 고미술센터 전경 |
| 2 | 고미술센터 로툰다 부분 |
| 3 | 고미술센터 백자 전시실 내부 |
| 4 | 메인 로비 전경 |

●고미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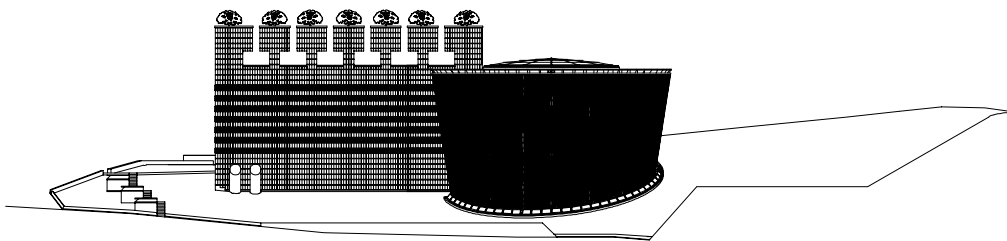


- 01_ 불교미술 금속공예전시
02_ 고서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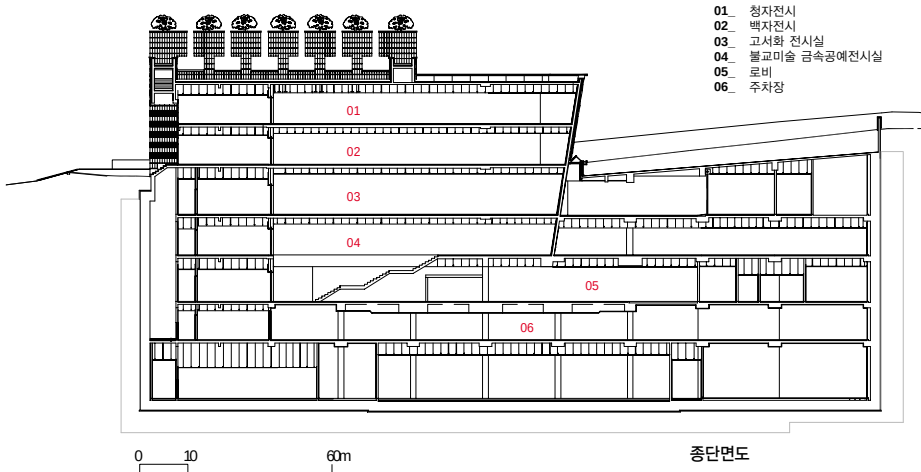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 01_ 청자전시
02_ 백자전시
03_ 고서화 전시실
04_ 불교미술 금속공예전시실
05_ 로비
06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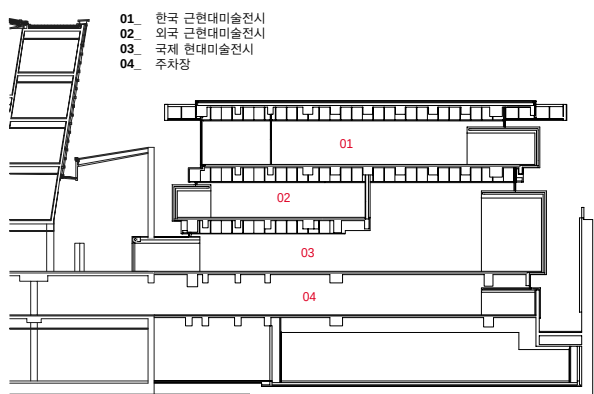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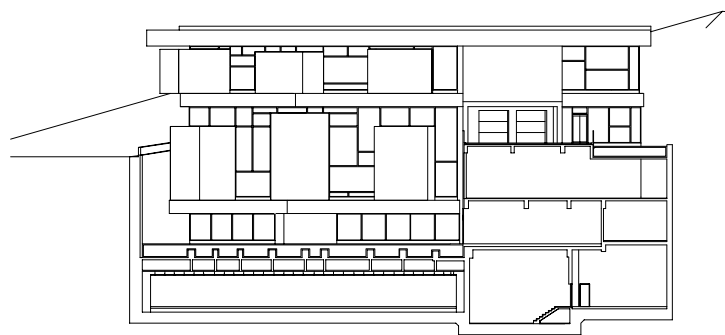
- | | | |
|---|---|---|
| 1 | 2 | 3 |
|---|---|---|
1. 현대미술관 2층 전시실내부
 2. 현대미술관 전경
 3. 현대미술관 지하층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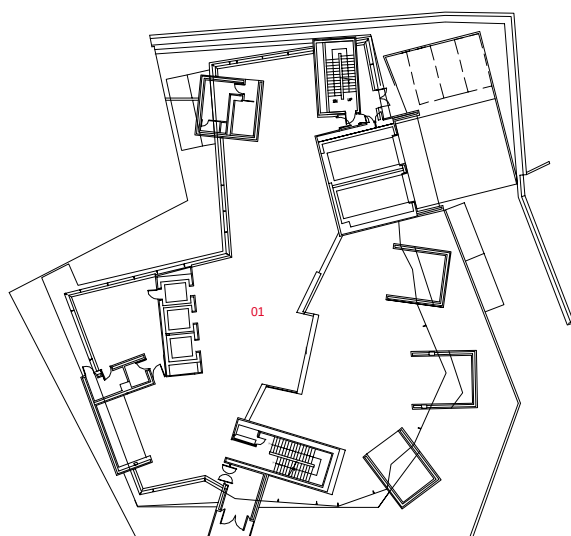
●현대미술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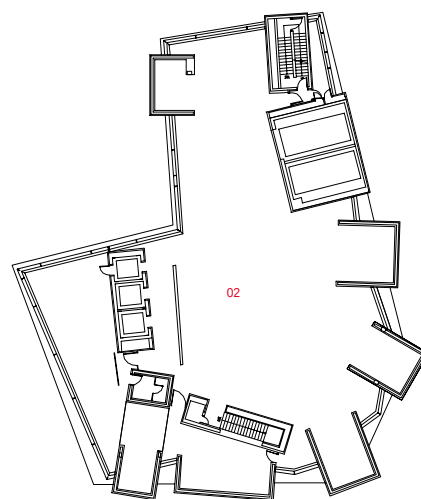


동쪽입면도



1층 평면도

01. 외국 근현대미술전시
02. 한국 근현대미술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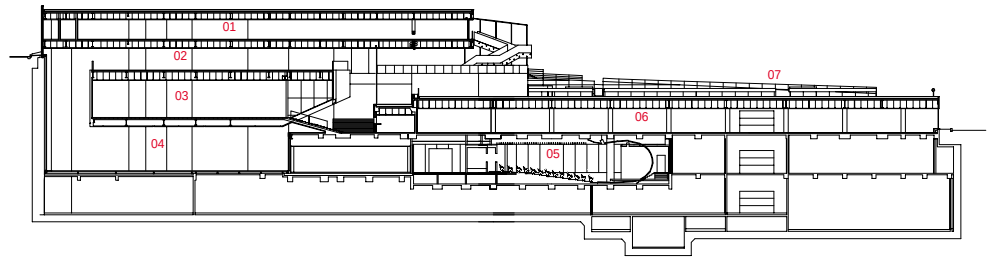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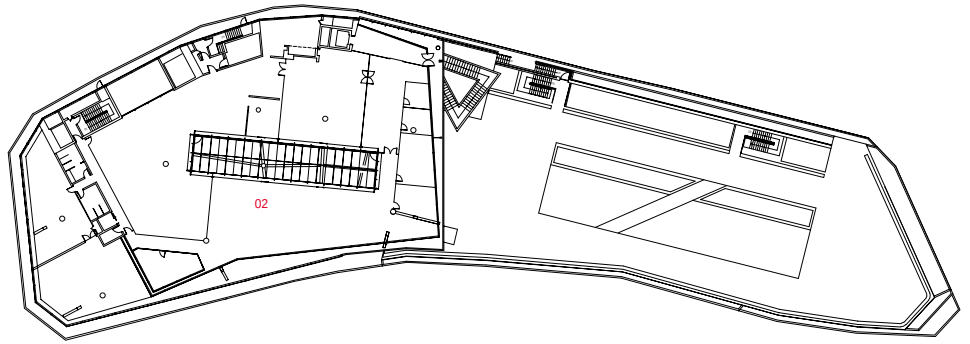


● 아동교육문화센터

- 01 사무실
- 02 라운지
- 03 기획전시실
- 04 아동 예술체험공간
- 05 강당
- 06 주차장
- 07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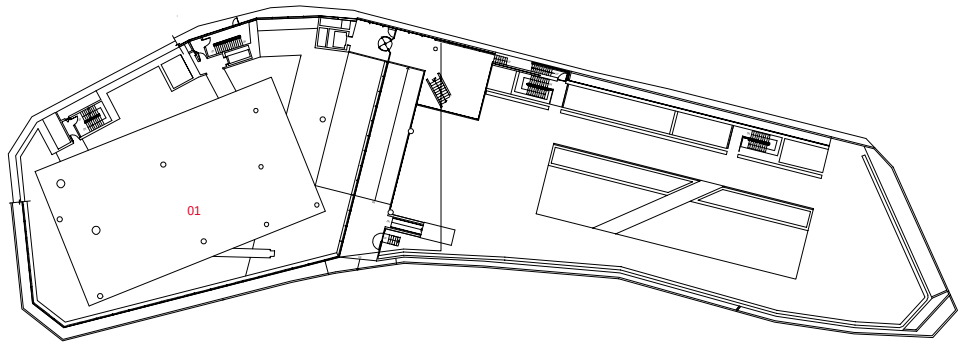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 01 라운지
- 02 사무실



1층 평면도

0 10 60m

- | | |
|---|-------------------|
| 1 | 아동교육문화센터 전경 |
| 2 | 주도로에서 본 센터 파사드 야경 |
| 3 | 아동교육문화센터 내부 볼렉박스 |
| 4 | 아동교육문화센터 내부 진입 램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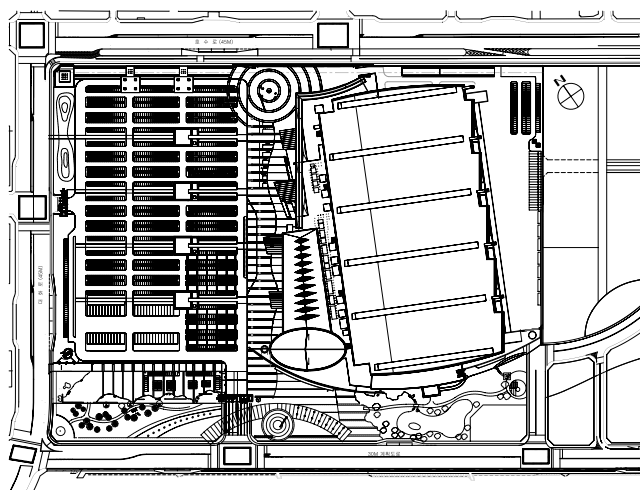
김정철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종찬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상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종국 / (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eong-cheol + Lee Jong-chan +
 Lee Sang-lim + Kim Jong-kug, KIRA

한국국제전시장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
 지역지구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241,586㎡
 건축면적 89,210.07㎡
 연면적 116,571.46㎡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조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THK3 AL 복합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설계담당 정림 : 박승홍, 이형재, 이종희, 조민건, 임성필, 최진서,
 윤창민, 김대준, 김선곤, 강창수
 원양 : 박근우, 김영진, 김하영, 황대홍, 이수민
 공간 : 조성호, 황정현, 이평주, 정기홍, 김용태
 건원 : 광용길, 김연준, 양수현, 박진숙
 구조설계 (주)다원구조
 기계설계 삼신설계
 전기설계 나라기술단
 토목설계 (주)대경 E&C
 조경 서안, 신화
 인테리어 희훈
 교평 송현 R&D
 시공사 삼성, 현대, 대우, 태영, 대림
 건축주 한국국제전시장(주)



Location 2306, Daehwa-dong, Ilsan-gu, Goya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241,586㎡
 Bldg. area 89,210.07㎡
 Gross floor area 116,571.46㎡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한국국제전시장의 Master plan은 범+선진+SOM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시부지 10만평과 지원시설부지 13만평을 개발하여 총전시면적 54,000평 규모의 미래형 국제전시장과 컨벤션 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2005년 5월까지 전시면적 17,000평 규모의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호텔, 공항서비스, 판매위락시설 등 전시컨벤션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개발할 예정으로 공사를 발주하였다. 정림+원양+공간+건원건축이 설계를 진행하여 2003년 2월 착공, 2005년 5월 완공에 이르렀다.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은 대지 북측으로 일산 신시가지가 조성돼 있고 동측으로는 호수공원 남측으로는 근경에 농지와 원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어 도시와 자연, 호수공원의 녹지흐름이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전시는 다목적홀(1,500평)에서 콘서트, 각종 이벤트, 소규모 전시, 패션쇼, 시사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단위홀

(3,400평 x 5개홀, 단일공간 17,000평)을 중심으로 대형공연, 대규모 모터쇼, 스포츠 이벤트, 건설 중장비 전시가 가능하다. 2, 3층으로는 50~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소규모 중대규모 회의시설과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의 부대시설은 전시장과 연계하여 전시기능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대시설과 외부전시장, 휴게공간, 프라자 등은 지역주민에게 향시 개방된다. KINTEX 1단계 완공시 단일공간최대면적으로 아시아의 대표성과 무역거점도시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네가지의 생각

• 호접천화 (蝴蝶穿花) - “꽃의 도시 고양시에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은 형상”

전시장 1, 2단계 완성시 호수, 꽃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꽃밭에 나비가 앉은 모습을 의미한다.

• Highway and Byways 그리고 땅 - 신도시의 의미

고속도로, 샛길, 기존 논밭의 이미지를

Form, Surface and Color의 환상적이고 은유적인 형상으로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모습을 의미하며 땅은 과거와 현재 이 대지와 기능들 실제의 것과 만들어진 흔적들을 하나로 융합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통(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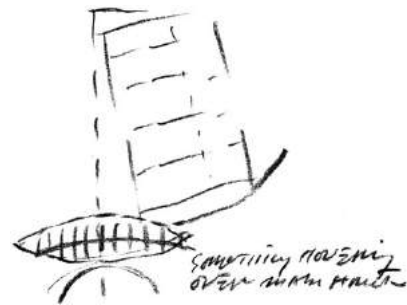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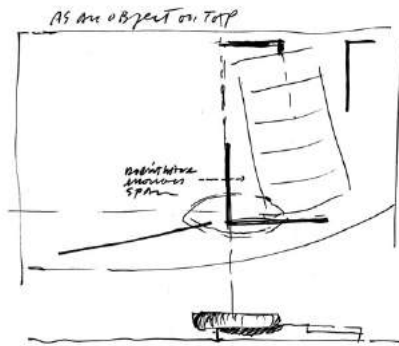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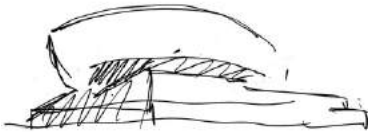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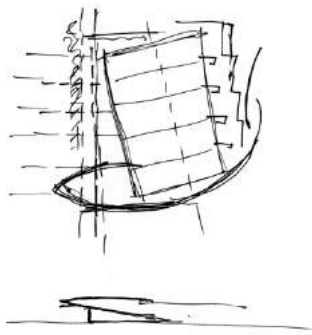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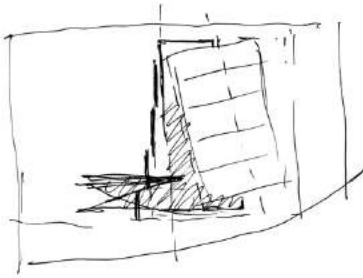
자연속의 도시, 도시속의 건축, 건축 속의 인간으로 자연, 도시, 인간의 경계를 소멸하고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의미한다.

• 흐름과 상징

도시흐름은 대화로와 호수공원으로부터 연결된 녹지축을 통하여 대지내부로 인입되고, 녹도의 곡면을 따라 계획된 정면 커튼월과 역동적



2/21/2002



1. 전시장 전경
2. 전시장 정면
3. 꽃길무대
4. 후면출입구
5. 전면 수공간
6. 입면과 아우러진 수공간
7. 대회장 외부 Pond



이미지의 지붕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도시의 상징성과 새로운 경관요소로 나타나며 이곳은 시간의 흐름에서 생겨나는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관람자는 세 개의 길, 신도시, 호수공원에서의 접근과 자동차를 이용한 주차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호수공원으로부터 접근된 시각적 요소는 5개 매스로 분절된 지붕의 선, 굴곡과 곡선을 갖는 기하학적 형태의 예리한 메탈 파라펫, 상승감과 홀의 인지성을 위한 5개의 수직월을 연속적으로 경험한다.

전면광장과 플라자로의 접근은 꽃을 상징하는 칼라풀한 입면들로 구성된 형상들을 보게 되며 이 요소들은 빛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공간에 의한 투명성과 깊이감을 더해준다. Hall은 상부천장을 통한 자연스런 빛의 유입, 외부 자연이 내

부로 연속되는 실내정원의 푸르름, 목재 느낌의 디자인 월과 융합하여 인공건물에서의 자연의 느낌을 더욱 살려준다.

동시에 이곳은 휴게, 소규모 이벤트, 안내, 동선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Major space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목재로 된 디자인 월 다음 공간의 콘코스는 동선의 집중, 분산과 포도송이처럼 기능이 형성되며 전시장으로 통하는 5개의 문을 암시해 준다.

각 입구는 상부 지붕에서 자연의 빛이 20m 높이의 벽면을 타고 은은하게 바닥을 비춤으로써 콘코스와 전시장간 전이공간 역할을 하게 되며 전시장은 천정고 15m의 무채광창으로 축구장 2개 크기로 구성되며 대형 공간은 다양한 가변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program과 이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LEV, Escalator 등 수직동선을 이용하여 2, 3층 회의 존으로 접근하면 동적인 벽과 천창, Hall에서의 사람들의 행위에 의한 생동감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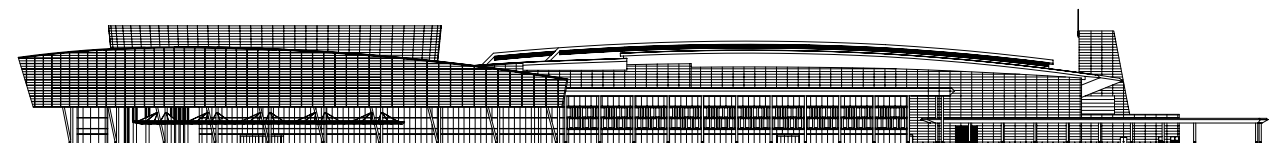
2, 3층 복도 및 홀을 따라 형성된 커튼월 밖으로의 조망은 내부공간속으로 수평선을 끌어 들임과 동시에 드넓은 자연경관을 향해 열려 있음으로 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하나되는 접근을 보여준다. 넓게만 생각되던 전시장은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로 새로운 문화의 장소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옛 장터나 지금의 전시장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쉴 곳, 먹을 곳, 볼거리 새로움을 찾아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태인 듯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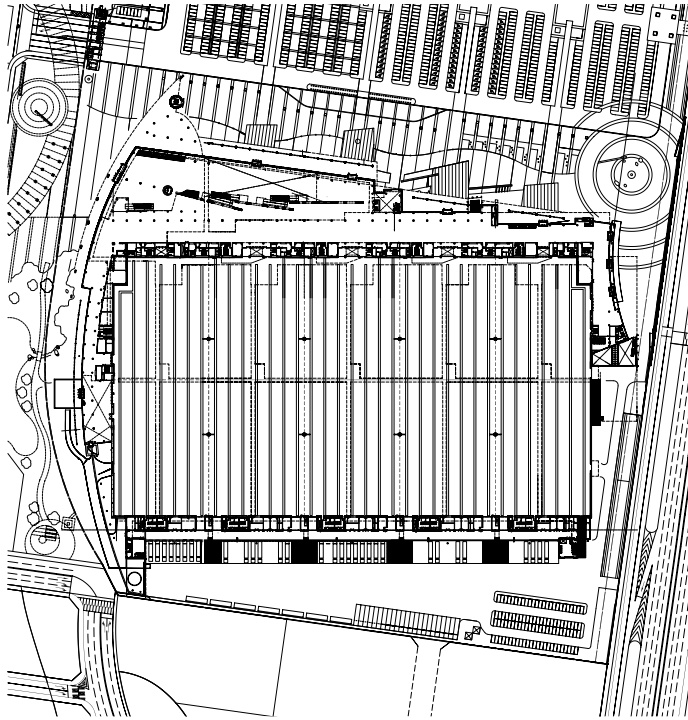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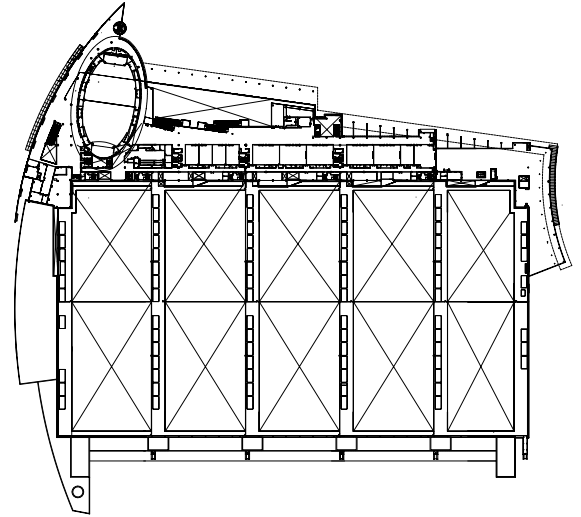
- | | |
|---|---|
| 1 | 2 |
| 3 | 4 |
- 1. 콘코스 내부
 - 2. 대회의장 홀
 - 3. 콘코스 내부
 - 4. 콘코스 전면 꽃길과 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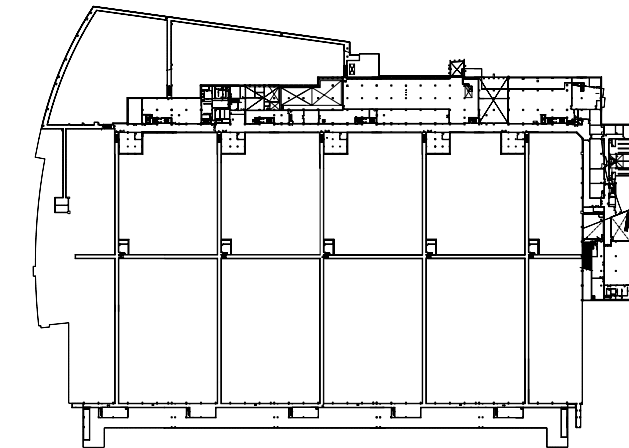
남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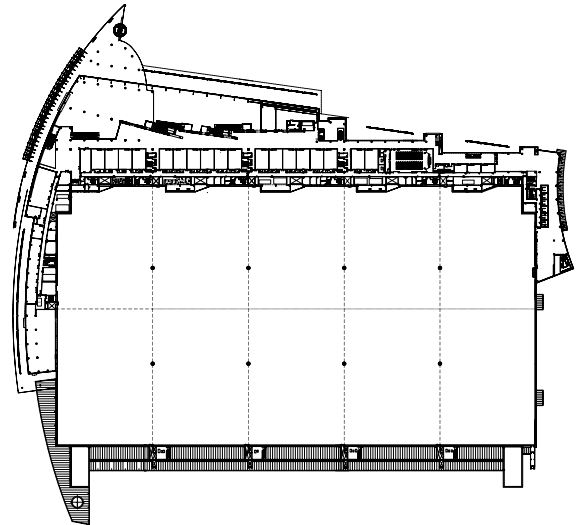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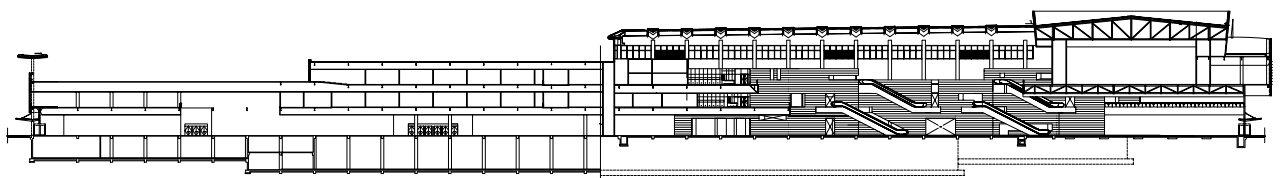


0 10 40 50m
5 20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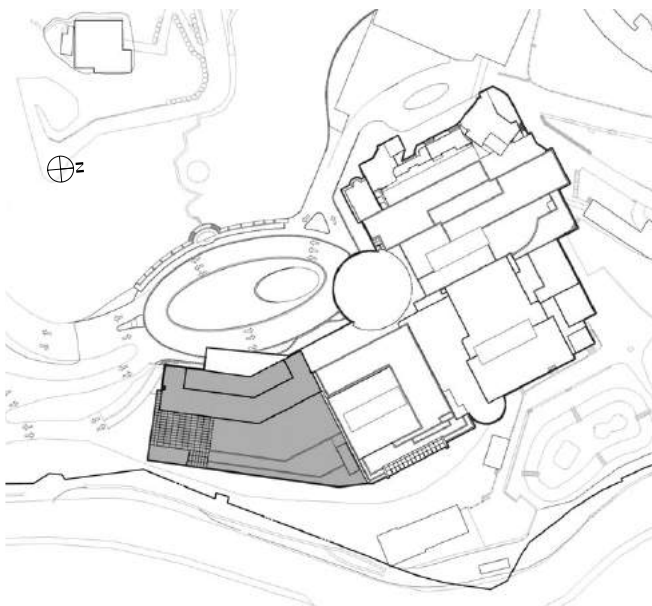
종단면도

W 서울 워커힐

W Seoul-Walkerhill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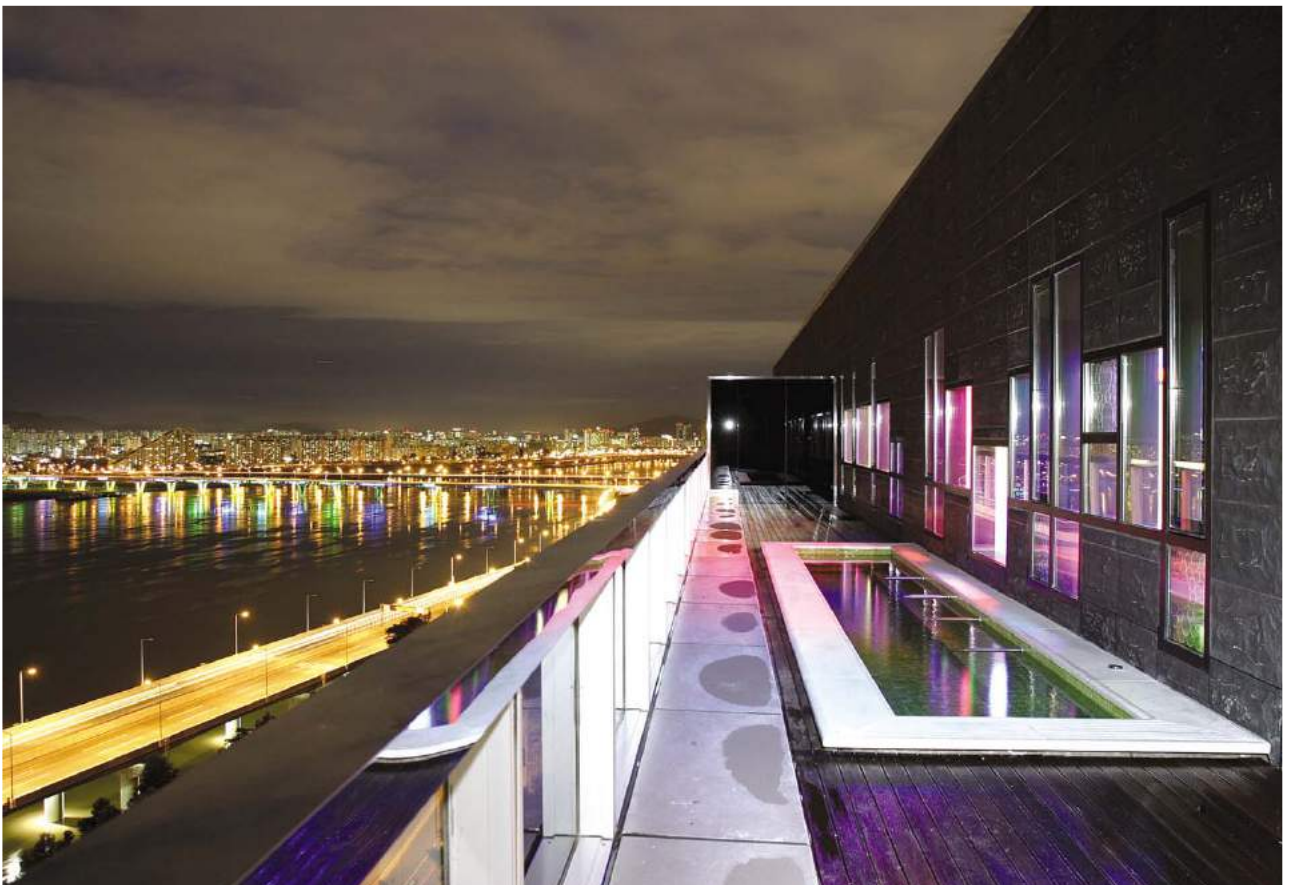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 21번지 일대
지역지구	관광숙박시설 특례고시지역,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용도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	87,600㎡(특례고시지역)
건축면적	20,597.34㎡(구관포함)
연면적	153,832.94㎡(구관포함), 46,869㎡(신관)
건폐율	23.51%
용적률	105.43%
규모	지하 3층, 지상 15층(신관)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 THK32 컬러접합복층유리, FUJI BLACK 화강석,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페인트, 대리석, 흙음텍스 등
설계담당	신상린, 이오주, 이승상, 이은석, 신승엽
건축주	(주)워커힐
시공사	SK건설(주)
준공일	2004. 8. 20



Location	San 21, Gwangjang-dong, G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87,600㎡
Bldg. area	20,597.34㎡
Gross floor area	153,832.94㎡
Bldg. coverage ratio	23.51%
Gross floor ratio	105.43%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fifteen stories above ground







W 서울 위커힐은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인 스타우드사의 스타 일 호텔 브랜드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W 호텔이다.

이는 OMA의 아시아법인으로 잘 알려진 홍콩의 RAD와 희림건축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한 기존호텔과는 대비되는 투명성을 강조한 호텔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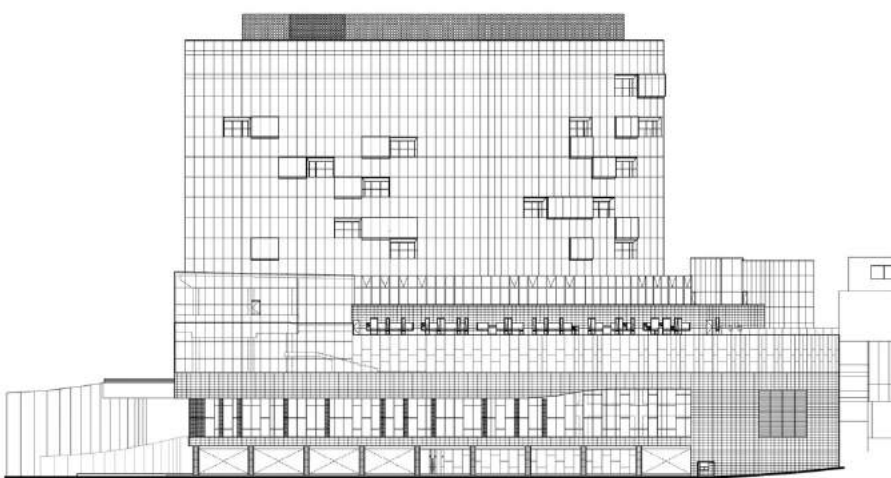
총 14층에 253개 객실을 비롯하여 SPA, GYM, 수영장, Restaurant, BAR, Ballrom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스파를 주 개념으로 하여 운동, 휴식, 마사지, 치료, 뷰티, 헤어, 네일 그리고 음식까지 준비된 복합적인 개념의 스파시설로 도시 근교에 위치한 편안한 리조트로서의 이 호텔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위해 푸른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을 형상화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객실 타워의 스킨은 Laminate Glass를 이용하였다. 이는 페어글라스 내부에 여러장의 필름들이 겹치며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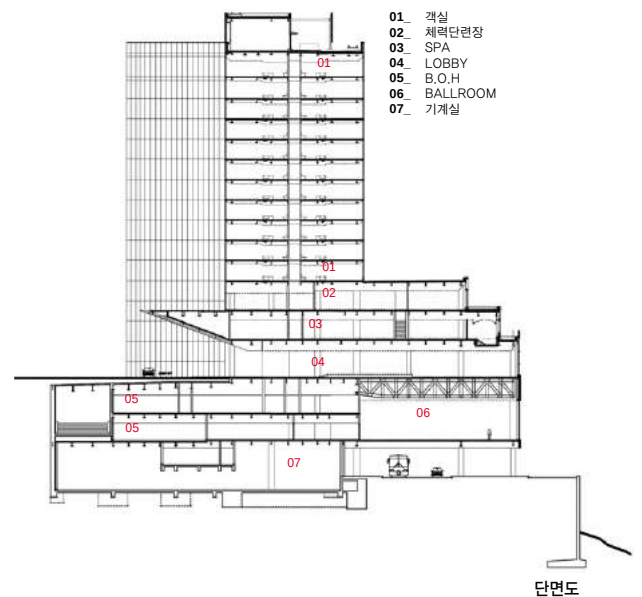
동선계획에 있어서는 구관과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차량동선, 고객동선, 종업원 동선분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Ballroom은 지하 3층 로비에서 진입해서 지하 2층으로 계획하였고 메인로비는 대지서측의 1층에서 진입하도록 하였다. 1, 2, 3층의 부대시설들은 한강의 조망을 최대한 내부로 인입하였고, 코아공간은 후면에 위치시켜 지하층에 집중된 Service Zone과 연계시켰다.

1층 로비상부와 수영장에 공간감과 투명성을 전제로 지붕과 벽을 전면 유리로 계획했고, 주요마감재는 화이트, 레드, 블루, 블랙 등의 과감한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기존호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Trend를 제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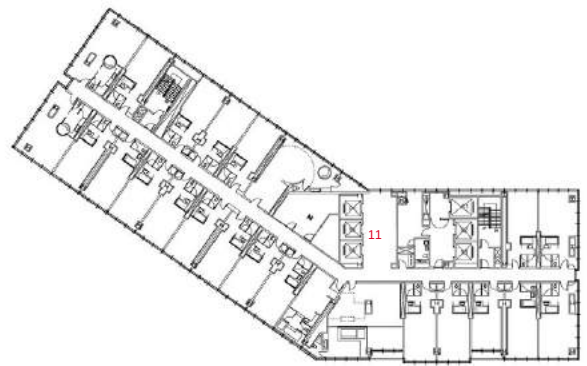
- | | |
|---|---|
| 1 | 3 |
| 2 | |
1. 주출입구와 연못
2. 야경
3. 3층 체력단련시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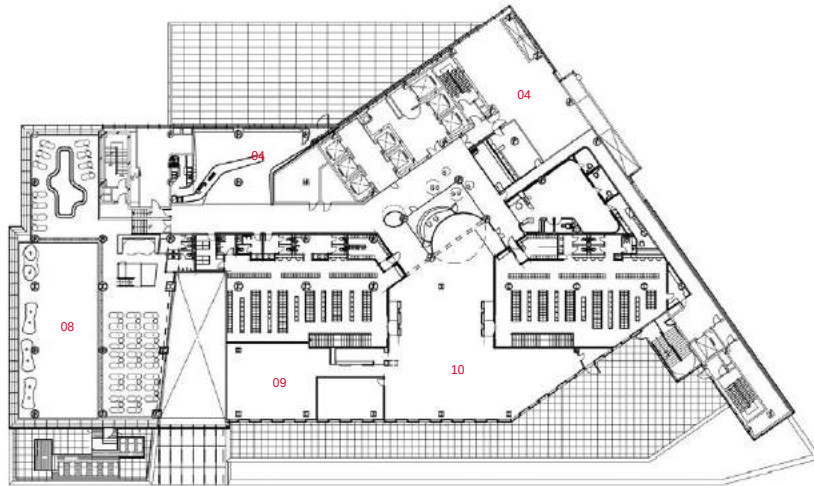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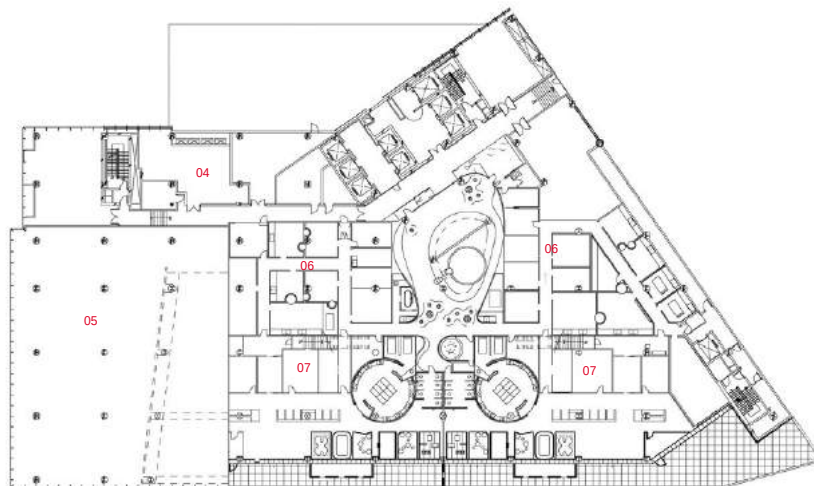
5층 평면도

- | | |
|---|---|
| 1 | 2 |
| 3 | 4 |
- 1. 에스컬레이터
 - 2. 1층 로비라운지
 - 3. 레스토랑
 - 4. 2층 SPA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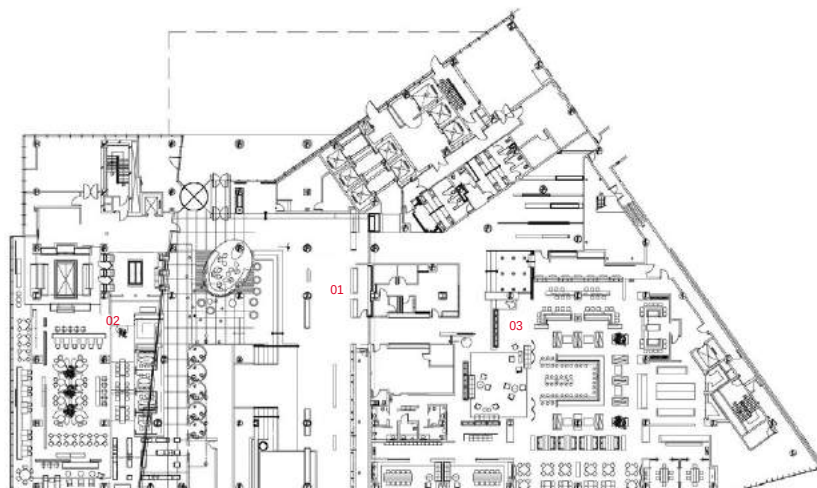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 로비
- 02. W-CAFE
- 03. 식당
- 04. 공조실
- 05. VOID
- 06. TRETMENT
- 07. SPA
- 08. 수영장
- 09. 에어로빅
- 10. 체력단련실
- 11. 홀

삶은 흘러가고 거기에 그곳이 있다

Life Goes On and There We Find It



이 건축물은 새로운 경제활동과 소비문화의 중심지인 삼성동에서 주거문화의 중심지라 칭할 수 있는 대치동으로 향하는 길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변경전의 건축물은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너무 많은 표정 때문에 그가 가진 위치적, 물리적 매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필요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이 건축물은 존재만으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기존 건물의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들은 오히려 시각적 혼란을 일으켰기에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건물과 새로운 공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시각적 피막을 주었다. 이 피막은 또한 하나의 픽처 프레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한 시각적인 유도를 하였다.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한 차선택이 아니다. 신축을 통해 얻지 못하는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다. 때문에 신축보다 수많은 제약조건이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건물이 들어선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기존의 구조가 새로운 기능에 적합한 형태로 창출되어야 하며, 경제성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건축 작업보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은 그 결실을 맺기 매우 어렵다. 특히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체크와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공자의 역할이 클 것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동안 우리의 도시도 삶을 이어간다. 우리가 늙어가는 만큼 우리의 도시도 쇠퇴해간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세월의 손때만큼 그 도시는 정겨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 하나하나의 우리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그릇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조사

리모델링은 어떠한 신축 프로젝트보다도 많은 초기시간 투자를 필요로 한다. 신축설계는 백지의 캔버스에 작가의 의도를 마음껏 스케치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만 리모델링은 시간이 많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상태의 모든 것(구조, 전기, 설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아예 도면이 없는 경우와 운이 좋은 경우 도면이 남아있더라도 대개의 중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1980년 이전 건축물은 구청의 건축물대장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도면작성을 위한 실측이 필요전제조건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구조도면 파악이 최우선 검토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신축설계보다 몇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다.



위치

본 건물은 위치적으로 삼성역에 인접하는 언덕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70m도로에 접한 수입자동차시설이 조성되어진 거리에 있다. 지어진지 5년정도 되었지만 건축주는 주차대수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증축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화강석버너마감의 외장오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외부 일부 마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위치 및 지역적으로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위하여 건축물이 보다 잘 인식되어지도록 커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공사전 상황 및 증축계획

리모델링은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증축의 건축법적인측면과 구조적인 문제검토가 최우선 선행

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프로젝트의 건축법적인 증축문제는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어 증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는 신축 당시에는 증축을 고려하여 건축된 건물은 아니었지만 경량증축구조를 택하고 일부 보강하는 방법으로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스키매틱 디자인

기존건물은 6층건물로 크지 않은 규모지만 기본 매스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디자인에 응용되어 증축외장건축 계획이 결코 쉬운상황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강하고 단순한 디자인 어휘로 기존건물과 증축의 Volume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사각의 Box Frame요소로 시각을 유도시켜 모던하고 하이테크한 분위

기로 건물을 정리 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재료계획

기존의 외장재료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염되어있는 상태여서 리모델링 마감재는 차후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외장재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졌다. 또한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강석과 같은 재료를 이어붙이는 디자인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설계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복합패널과 짙은색의 블랙대리석물갈기 마감으로 조합하여 선택되었다.

시행중의 문제

기존건물이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잦은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건물이 접해있는 도로는 70m 미만지구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도 리모델링에 있어 많은 장애요인이 되었다.

결과

설계와 시공, 모든 측면에서는 가장 악조건인 상황에서 시작한 증축리모델링 공사였지만 건축주에게는 건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변의 수입차 전시장 신축건물에 전혀 뒤지지 않는 또한 본 건물이 삼성역과 대치동 언덕정점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으로써 성공적인 리모델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더불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발

생되는 리모델링 설계에 대해서 설계자의 많은 경험과 노력이 계속 축적되어져 설계에 반영되어지기를...

마치며

그동안 수많은 설계를 했지만 리모델링 설계만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설계 분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칠 때 매우 중요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분야의 총 책임자로서 대부분의 경우가 건축사의 역할은 배제된 채 너무 쉽게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기획 및 투자수익분석 검토 후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자연스런 프로세스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그 반대의 프로세스 즉, 건설사나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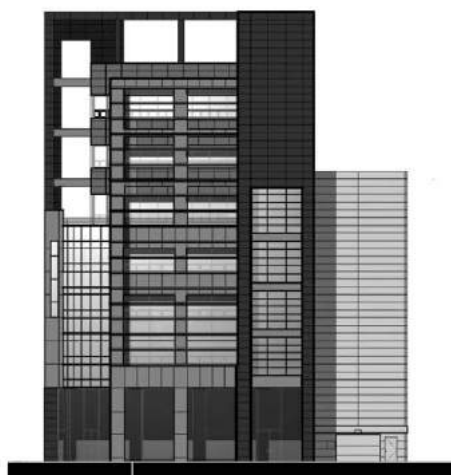
업체에서 기획을 해서 건축사사무소에 개인·허가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 때, 증축이나 대대적인 구조변경 등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건축사사무소를 찾을 필요조차 생기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신축·사용검사 후의 내부 구조 변경조차도 건축주와 인테리어 업체에서 임의로 설계하여 공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둥, 벽, 슬래브만 남긴 채 철거해서 모든 내외장이 바뀌거나 또한 내부에 기둥과 보가 잘려나가고 많은 면적의 슬래브가 철거돼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공사용 외부 분진망 안에서 공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행정관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법상의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

리모델링은 사회적, 법적,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듯 방관만 하고 있거나 혹은 방관되어지고 있다.

설계시장이 외국에 개방된다고 호들갑스럽게 걱정만하고 떠돌고 있는 사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설계영역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다.

이제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단순기준이 아닌 실제적, 총량적기준으로 증축, 개축 대수선에 대한 법을 검토해야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정면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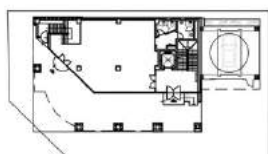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5-8
지역지구	중심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64.90㎡
건축면적	315.42㎡
연면적	1,617.25㎡ (변경전) 1,999.68㎡ (변경후)
건폐율	55.31% (변경전) 55.84% (변경후)
용적률	230.23% (변경전) 297.93% (변경후)
규모	B1/6F (변경전) B1/8F (변경후)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플럭스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C-Black
구조설계	(주)동양구조설계
전기설계	(주)대기기술단
설비기계	(주)미래설비계획
설계기간	2004. 3 ~ 2004. 5



3~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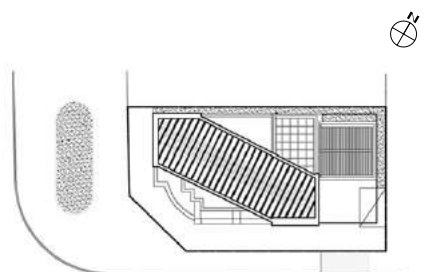
9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해운대호텔 재건축

Haundae Hotel

공군에서 군 복지시설로 부산시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식당과 호텔 13실을 갖춘 군 휴양시설인 해운대 호텔을 운영 중에 있으나 건립 후 38년이 경과되어 휴양시설로써 기능상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군 복지시설인 해운대 호텔의 시설 현대화와 규모의 확충을 통한 군의 사기진작 및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육군과 공동으로 해운대호텔 재건축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1등작으로는 '행림건축사사무소+P.D.I'의 안을, 2등작으로는 '(주)무영이맥스종합건축사사무소 + 김광배 교수' 안을, 3등작으로는 '(주)명승건축사사무소 + 천익영 교수'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1등작 / (주)행림건축사사무소(이용호 · 김홍백 · 고진국)+ P.D.I.(허승희 · 오세민)

대지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49-7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용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1,653.50㎡
건축면적 949.84㎡
연면적 15,337.86㎡
건폐율 57.44%
용적률 669.51%
규모 지하 4층, 지상 16층
설계팀 서재한, 김민석, 김용빈, 최수형, 김정섭, 박성균, 김경만

concept

Project의 기본 컨셉은 사용자를 위한 당연한 기능이나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가치와 함께 오브제와 장소들을 재 정의하는 형태적 혁신을 만드는 데 있다.

도심형 휴양지로 변모된 해운대에 기능적, 공간적, 시각적 특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호텔기능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내러티브적 공간구성과 극적인 효과를 위한 다양한 형태 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통해 감성적 연결을 갖게 되는 공간을 창조한다.

이는 호텔의 전통적 기능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의 계층 및 이용목적 등이 복잡화, 다양화 함에 따른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크게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명확한 차이를 상층부와 저층부의 명쾌한 매스의 분절을 통해 드러내며, 공간 프로그래밍에 따른 각기 다른 입면의 감성적 표현은 사용자들을 개인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오브제나 공간과 강력하게 연결하여 개성을 부여하는 Landmark로 창조한다.

명확한 기능분배를 위하여 매스들은 분절되어지고 삭제되어진다. 다양한 선형적 구조(Linear framework with Interactions)와 Box들의 통합체인 Podium의 형태구성은 각기 다른 높이의 필로티와 함께 구성되어 공중에 떠 있는 듯 강한 입체감을 준다. 주 객실부는 모두 바다를 향한 View를 가지며 도심적 Hotel과 휴양지형 Condo의 복합체로써 Roof Garden과 발코니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 휴식공간 + Dynamic view를 제공한다.

Skin

투명성과 반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투명유리와 함께 Graphic Printed Glass(Silk screen)로 비규칙적인 패턴을 표현한다.

이 패턴화된 유리스킨(Skin)의 조합은 입면적 요소로써 섬세함을 만들고 자연광의 유입량을 조절한다.

이와 함께 그림자 Box의 효과를 만들어 낮과 밤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가능하게 한다.



주간에는 선형적 Mass의 깊이감에 의한 그림자와 함께 자연광의 반사차이를 만드는 다이내믹한 기호적 표현을 창조하며, 야간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불규칙적이고 독특한 입면표현을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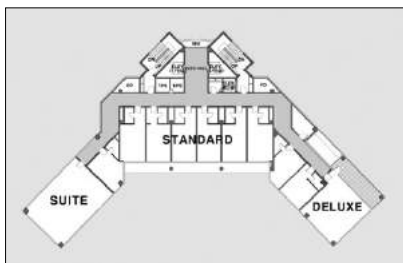
Lighting

Sky Lounge와 2층의 돌출된 Box에 Lighting Frame을 설치하여 인지성을 강하게 하며, 객실 Mass의 Patterned Glass의 무성을 이용하여 Symbolic한 실루엣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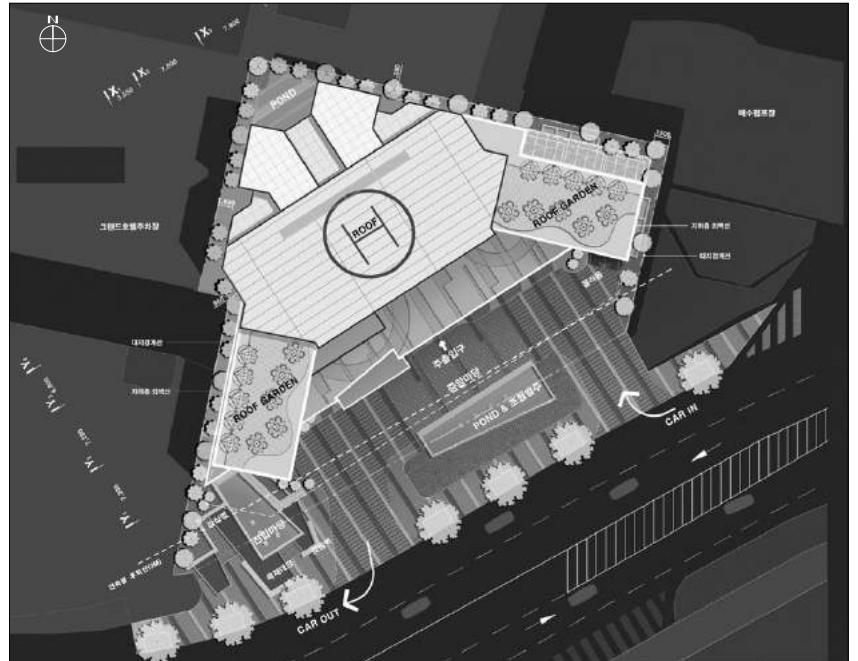
Podium의 다양한 선형 구조체들은 내부조명에 의해서 Illuminate되는 부유체로서 야간에 인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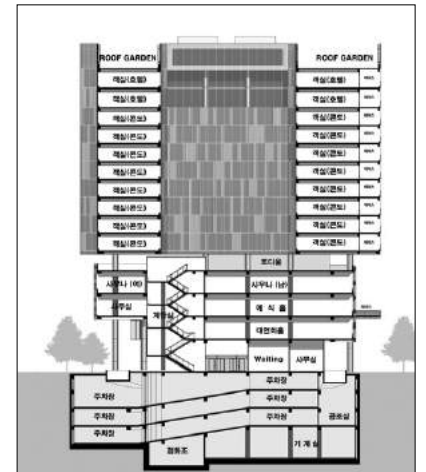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호텔층 평면도



배치도



종단면도

해운대호텔 재건축

Haundae Hotel

2등작 / (주)무영아멕스종합건축사사무소
(윤동환) + 김광배 교수(고려대학교)

대지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49-7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용 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1,653.50㎡
건축면적 1,107.18㎡
연 면 적 15,220.14㎡
건 폐 율 67.49% (법정: 72% 이하)
용 적 률 685.00% (법정: 1,200% 이하)
규 모 지하 4층, 지상 16층
주차대수 95대 (법정: 89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스틸루버,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윤동환, 김동균, 김선아, 김성일, 이기홍, 강덕경, 이정훈, 오영석

비상(飛翔)

우리는 늘 마음속에 바다를 품고 산다.

그 바다에 서면 우리는 새처럼 날아오르는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꿈꾸어온 바다와 아름다운 비상(飛上).

날개의 깃털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지어진 해운대 바닷가의 호텔을 상상해 본다.

넓은 창밖으로 가득한 하늘과 함께 깊은 휴식을 가지며 무한의 바다를 품고 날아오르는 꿈을 꾸는 재충전의 요람이 되길 소망한다.

바다를 닮은 호텔

바다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트인 경관은 해운대 보라매호텔의 가장 큰 매력이다.

콘도와 호텔의 객실에서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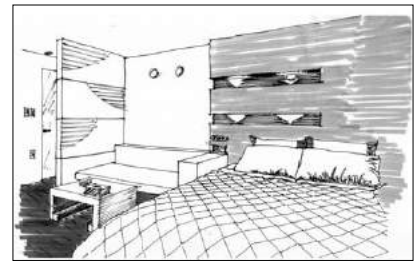
하늘을 닮은 호텔

넓디넓은 바다위로 펼쳐진 무한의 창공. 하늘을 닮는다는 것은 날아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 공간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친 모습의 호텔 이미지를 추구했다.



호텔거실



콘도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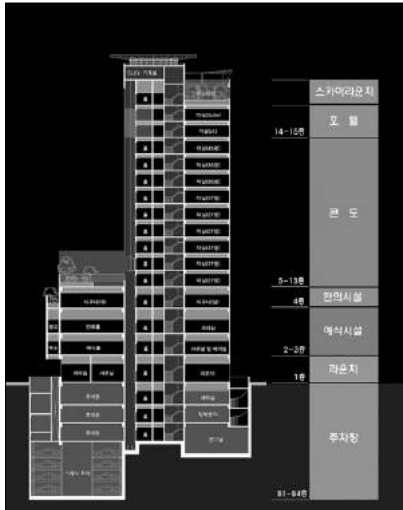


콘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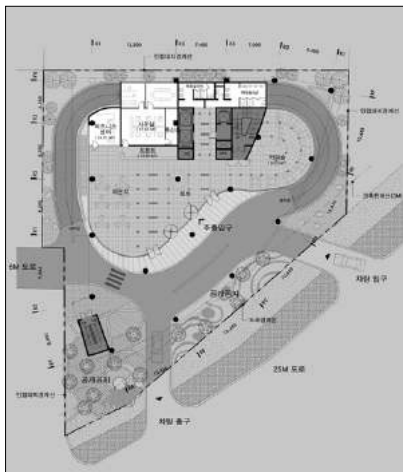


호텔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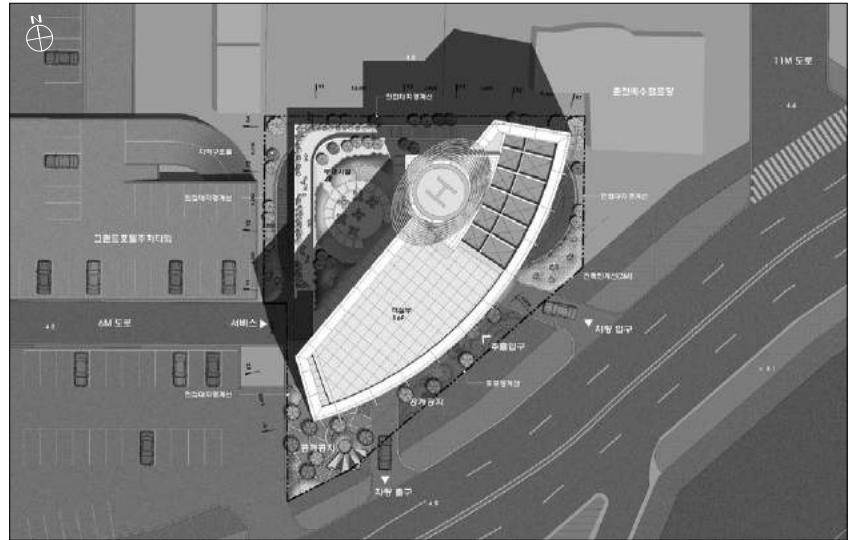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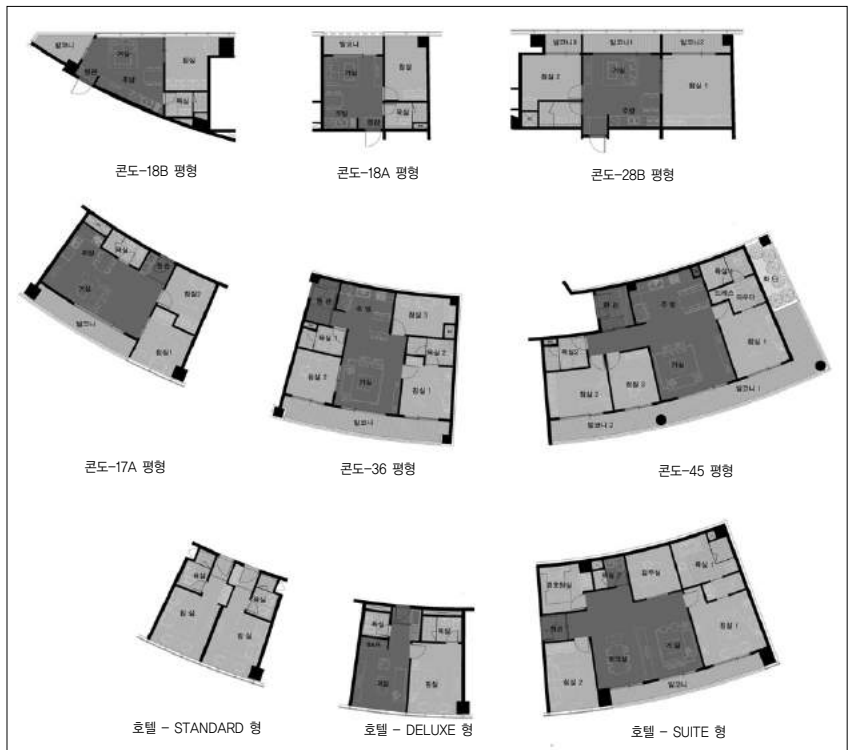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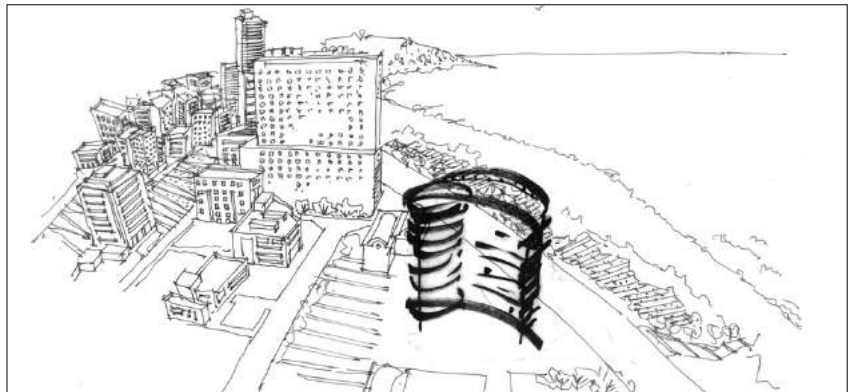
단면개념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객실유닛평면도

해운대호텔 재건축 Haundae Hotel

3등작 / (주)명승건축사사무소(주수웅) +
천의영 교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대지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49-7 외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최저고도9m지구
용도 호텔 및 콘도
대지면적 1,656.99㎡
건축면적 824.36㎡
연면적 15,367.22㎡
건폐율 49.75 %
용적률 667.37 %
규모 지하 4층, 지상 19층
설계팀 이흥주, 장길성, 이정완, 오기석, 정성인,
김동일, 신동기, 김광호, 주현진

Sky Beacon!

건물형태는 하늘과 바다가 접하는 대지의 독특한 특징을 형태에 반영하여 계획했다.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터블런스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에어로 다이내믹스로 표현하여 계획하였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이미지를 형태화하여 바다의 등대와 하늘의 관제탑과 같은 형상으로 계획했다.

배치의 접근 방식으로는 500평이라는 작은 대지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은 층으로 산정하여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높이)를 이루면서도 랜드마크적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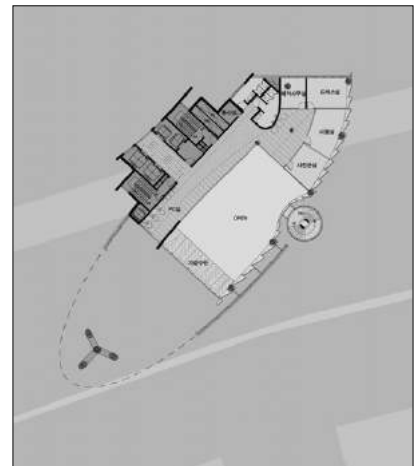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정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view와 역동적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바다를 향해 넓게 유선형으로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전면의 24m도로로 진·출입가능하며 6m소방도로는 일반차량 및 택시의 출구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한 One way 방식을 채택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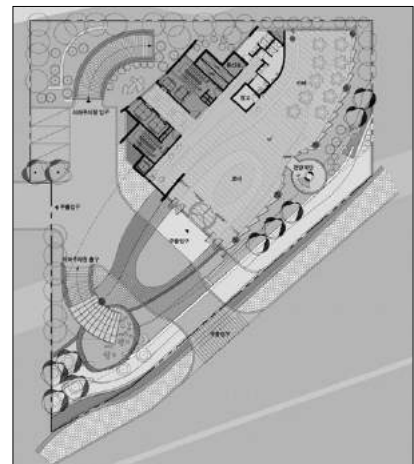
평면구성으로 볼 때 기존 로비의 단일화 방식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로비를 저층부의 단기 방문객을 위한 메인 로비와 7층부터 고층부의 투숙객을 위한 객실로 비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객실구성은 실마다 대지의 위치상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조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면배치 계획하였고 그 조망들을 통해 Wonderful Room, Moon light Room, Ocean Room, Sunset Room 등 차별 특성을 만들어 주었다.

19층 스카이라운지는 옥상정원과 하나의 공간으로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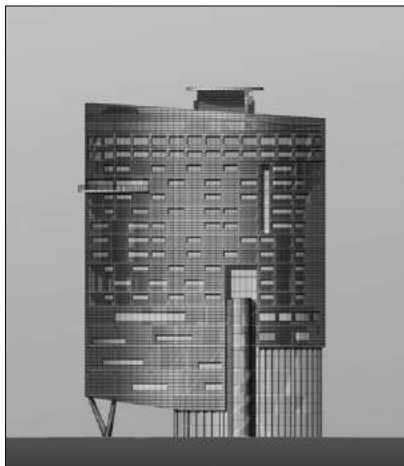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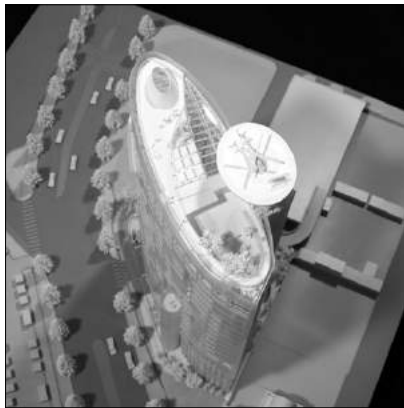
계획하여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늘정원의 옥상은 경사 램프를 통한 하늘전망대의 동선유도를 통해 다양한 시선의 유도를 할 수 있게 계획했다.

입면구성은 층마다 다르게 계획된 비움의 공간을 통해 공군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다양한 입면구성으로 연출했다. 비움의 공간은 녹화, 브릿지로 계획하여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공간 체험을 통해 잃어버린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면구성은 크게 1~4층 연화부, 5~6층 관리부, 편의시설부, 7층부터의 객실부로 나뉜다.

연화부와 객실부의 중간인 5, 6층에 매개공간을 형성하여 두 개의 프로그램을 잡아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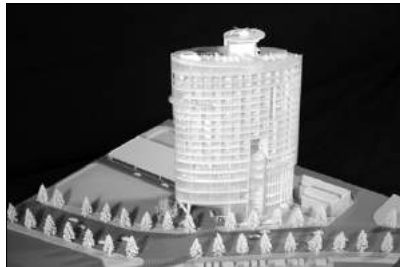
옥상에는 하늘 정원을 계획하여 여름철 열섬효과 방지 및 겨울철 단열 성능을 강화 했다.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되도록 했다.



정면도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 공모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주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 송복섭(한국), 김영준(한국), 피에르 아우렐리(이태리), 장 피엘 뒤리그스(스위스),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스페인) 등 5명의 당선자와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의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된 도시개념 국제공모는 지난 5월 27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대상지 자료 배포(7. 12)와 질의응답(7. 12~7. 29) 및 현지답사 등 4개월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10월 31일 작품접수를 마감하였고,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 4일간 심사하여 당선작을 발표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121개(국내 57개, 국외 64개) 작품이 출품되어 이 중 김영준(한국) 「Dichotomous city」과 송복섭(한국) 「Thirty bridges city」, 피에르 아우렐리(Pier Vittorio Aureli, 이태리) 「A Grammar for the city」, 장 피엘 뒤리그(Jean-Pierre Durig, 스위스) 「The orbital road」,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Andres Perea Ortega, 스페인)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등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고, 장려상으로는 최현규(한국)의 「비보(裨補)」, 위르겐 쿤츠만(Jürgen Kunzmann, 독일) 「City in Flow」, 스미야 마모루(Sumiya Mamoru, 일본) 「Archipelagic city」, 토마스 푸셔(Thomas Pucher, 오스트리아) 「Yeon Meong(음양)」, 크리스티안 운두라가(Cristian Undurraga, 칠레) 「Nurturing a new urbanity」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David Harvey(미, 공동위원장과 Nader Tehrani(미, 공동위원장), Arata Isozaki(일), Winy Maas(네덜란드), 민현식, 온영태, 유걸, 박삼욱은 이번 심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디자인에 기여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환경 친화적인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였는지, 도시가 편리한지, 보편타당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당선작 중 특히 김영준의 「Dichotomous city」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시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등 이질적인 현상들을 중첩하는 등 도시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접근방법은 다른 당선작의 도시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해내는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송복섭의 「Thirty bridges city」에 대해서도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건립토록 하는 등 창의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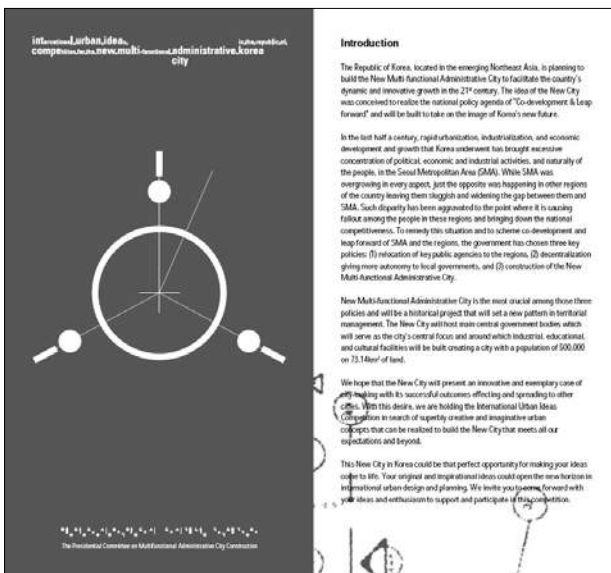
국제공모 심사위원장인 David Harvey 교수는 당초 1등·2등·3등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도시건설계획에 각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고루 채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수상을 결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 신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이후 도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당선작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심사 후기를 밝혔다.

당선작 5팀에게는 각 10만불, 장려상 5팀에게는 각 2만 6천불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당선자들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상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공주시 장기면 일원으로서 약 73.14㎢(7,314ha)의 대지에 5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담당할 주 기능은 국가 중앙행정이며, 부기능은 정책연구, 문화·국제교류, 대학, 첨단산업, 관광레저 및 기타 도시 기본 서비스 기능이다. 따라서 재정·교육·과기·문화·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설·해양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 총 49개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겨가게 되며, 대상지 경계로부터 4~6km(약 224㎢) 지역이 향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청사건립 공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비용은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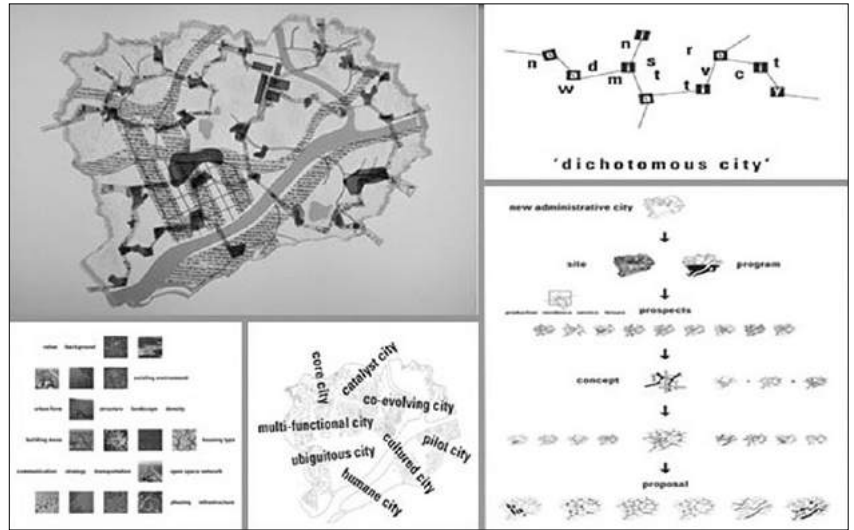
당선작 / **Dichotomous city**
김영준(주. 김영준 도시건축사사무소)

작품개요

'The Dichotomous City'는 기존 지역의 개발 속성과 성향을 유지하면서 영역에 대한 좀더 불규칙적이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도시 조직이 막연히 확장되는 국면 대신에 전이, 이동, 교류 등 불확실성을 매개로 변환, 부가, 대체의 접근이 열려있는 일련의 '유연한 지도'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심사평

이 작품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수단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The Dichotomous City'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설계프로세스(Process)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정보 나열, 현상 표현, 관계 분석, 복잡한 패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도시의 현황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겹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기법이 다양한 설계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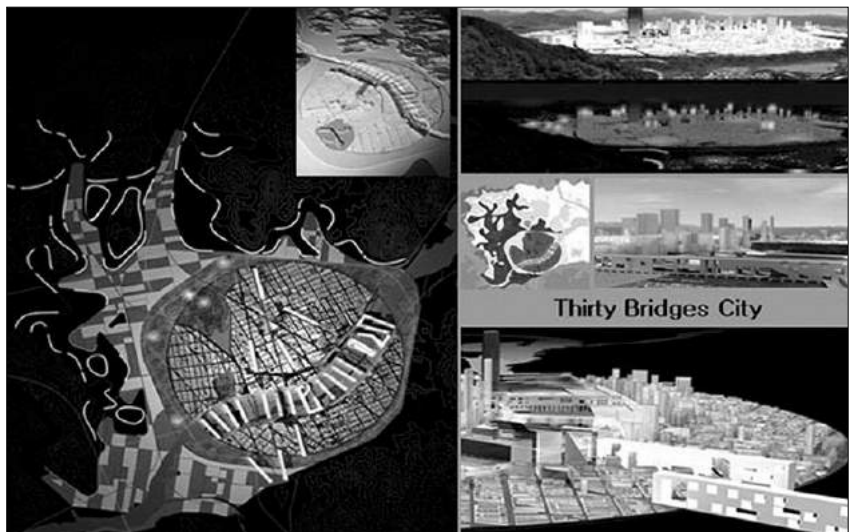
당선작 / **Thirty bridges city**
송복섭(한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작품개요

도시는 주요 기능이 집중된 직경 3.5km의 원형 도심 부를 중심으로 건설된다. 도심을 둘러싸는 Eco-Ring'은 도시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되었다. '다리위의 도시'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강을 느끼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강변에는 레저, 스포츠, 위락, 주거가 혼재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고무한다.

심사평

공간배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 작품은 개발밀도에 대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원형의 도시 중심부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의 외곽지역은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반면 원의 내부에 다양한 이벤트, 공간, 도시적 형태를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간적 근접성을 제공하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의 중심부를 금강이 관통하고 있는데, 다리를 중요한 설계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0개의 다리는 개별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기능하며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단순히 통과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금강

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을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정부청사, 엔터테인먼트, 기타 설계요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계획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독특한 기하학적 표현은 가로형태와 격자형이 제시하는 무질서한 혼란과 환상형 도시의 강력한 형태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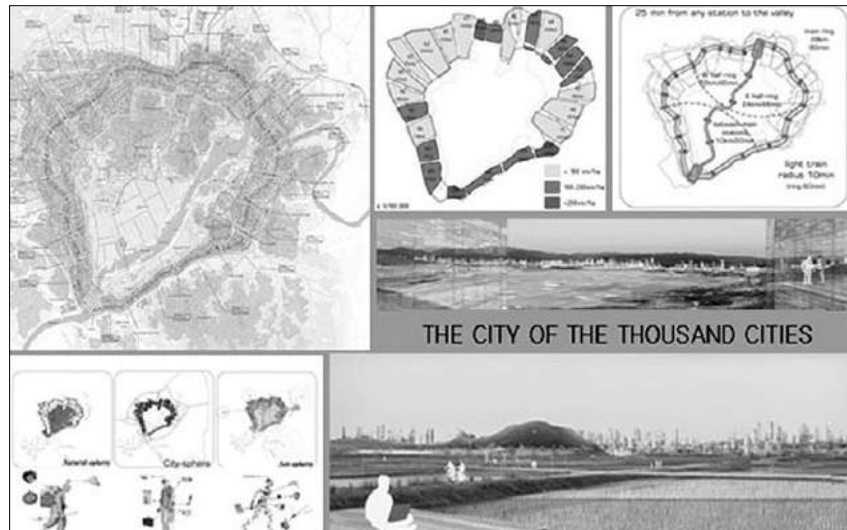
당선작 /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Andres Perea Ortega / 스페인

작품개요

- 제한이 없는 도시, 지속적인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
- 모두가 원하는 도시와 건축물의 건설은 가능하다.
- 시민들의 생활과 자연의 조화는 가능하다.
- 자유와 평화의 도시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애원할 필요는 없다.
- 조경과 환경조건 등 현실 그 자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심사평

'City of the Thousand Cities'는 독창적 설계형태 뿐만 아니라 개발단계, 교통계획, 경관, 개발밀도, 교통,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분석적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어 가장 구체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지와 농경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중심부를 비워둔 것이다. 이러한 중



심부의 '비어있는' 지역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요에 따라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전이지대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Identity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제시된 도시형태는 방사형과 격자형이 혼합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평가한 사항은 격자형태가 자연지

형뿐만 아니라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격자형태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팽창, 수축, 뒤틀림, 수용의 역할을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만약 설계자가 격자형의 장점만을 강조하였다면 비난을 받았을 것 같다. 주변의 맥락을 적절히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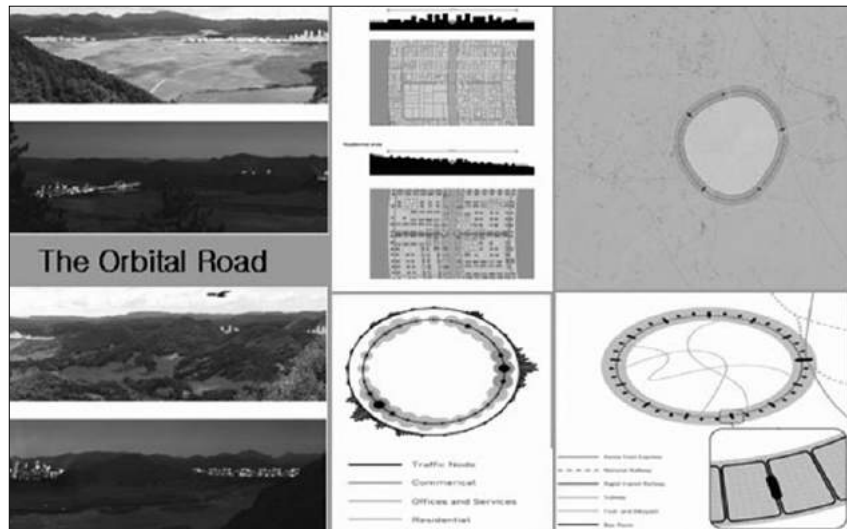
당선작 / The orbital road
Jean-Pierre Durig / 스위스

작품개요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되면서 기성시가지의 주민들은 점점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 주요도시의 중심시가지는 쇠퇴하고 있으며, 통근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해결할 과제는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설계자로 하여금 공원주변에 도시가 건설되는 반지형태의 도시를 제안하게 하였다. 또한 반지형태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는 민주적 도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심사평

'Orbital Road'는 도시형태론에 근거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히 평면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보조적으로 단면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 자연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 계곡, 언덕, 평지 등 다양한 지형적 요건들을 감안하여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지형적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도시형태론적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습과 유사하게 이 제안은 '격자'와 '자연'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시(時)적인 표현력을 강하게 구사한다. 만약 이 제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고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당선작 / A Grammar for the City
Pier Vittorio Aureli / 이태리

작품개요

도시는 도시벽(City-wall)으로 언급된 것에 의해 폐쇄된 다양한 공간(ro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벽은 십자가 형태를 통해 추가적인 교화를 행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도시벽은 개별공간을 설정한다. 이 벽들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틀을 형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정주공간이다. 유용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서 도시벽은 연속되는 도시벽의 형태로 경관을 생성한다. 도시벽은 단지 건물의 집적체로 끝나는 것을 막는다. 가로, 도시벽, 도시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형태결정론이 아니라 제로생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사평

심사위원들에 의해 'The Grammar for the City' 또는 'Expo'로 명명된 이 작품은 두 개의 매혹적인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특성을 제시했다. 우



선 막대형 건물의 배치, 기반시설의 부족, 매트릭스의 과격함에 근거한 격자형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부분적으로 이상향적인 특성(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현실적(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원형을 반영)인 격자형 기본구조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응용이라는 차원에

서 볼 때, 가장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은 서로 다른 실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매트릭스는 파격적인 배치 속에서 이질적인 구성요소의 복합성을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직적인 표현기법이 다른 당선작품에 표현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장려작 / 비보(裨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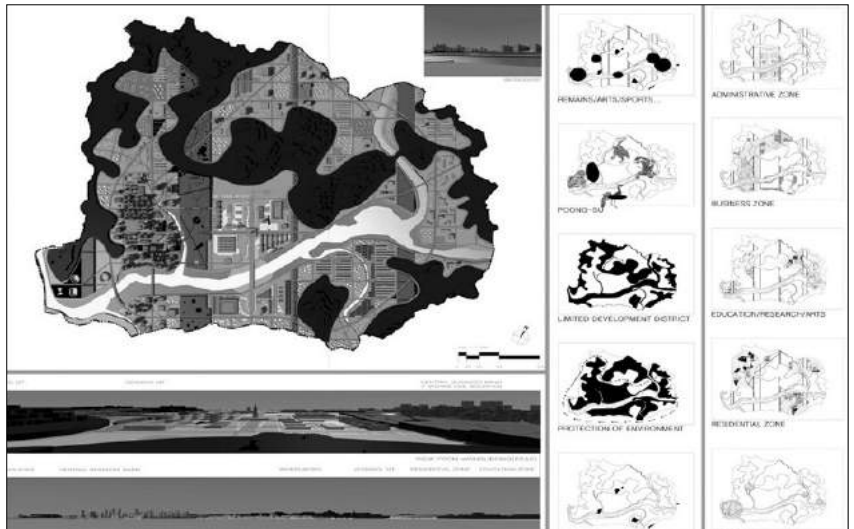
최현규(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작품개요

일정 높이(표고 50m)이상의 산을 생태계 및 유적 보호, 레저 등의 목적으로 보존시킨다. 배산임수형의 지형을 최대한 확보하고 녹지의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하며, 국토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교통망을 배치시킨다. 4개의 녹지띠를 만들어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영역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역할 하게 한다. 전통적 도시관으로 볼 때 행정영역(明堂地) 우측의 산이 너무 낮으므로 우측을 상업지역의 고층빌딩군으로 조성해 풍수에서의 우백호가 될 수 있게 한다.

심사평

이 작품은 중심축과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의식지향적 계획원리를 도입한 가운데, 매우 단



순하지만 의미 있는 기법, 즉 산과 도시를 구분하는 도로의 관계설정과 같은 표현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높이에서 양질의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목걸이처럼 도시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장려작 / **City in Flow**
Jurgen Kunzemann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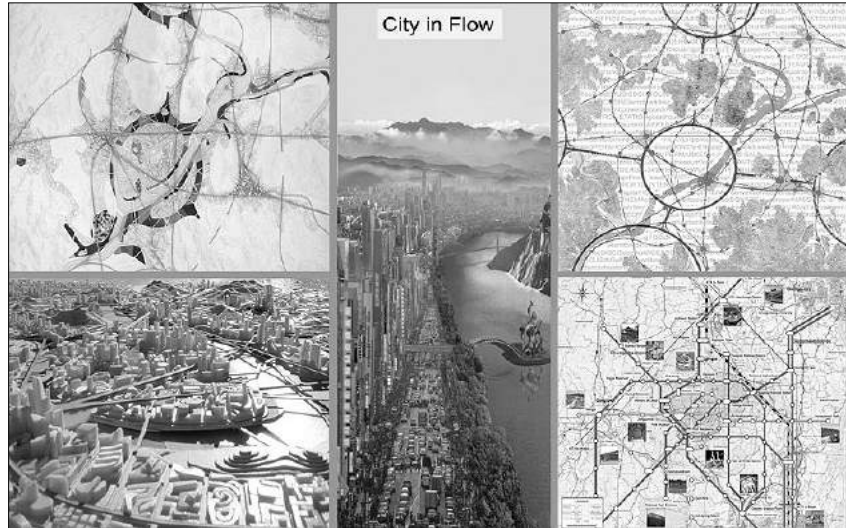
작품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3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지형상 New Orleans처럼 100년 홍수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한 도시확산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과도한 인구가 유입되어 서울처럼 과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유동성이다.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공포를 유발하지만 유동성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연재난, 대도시, 사람의 힘은 파괴적이지 않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21세기 도시를 건설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심사평

'City in Flow'는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관점에서 고리(ring)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부 주변에 고리형태의 도로로 표현된 그린벨트를 설치함으로써 설계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계획의 실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이론에 충실한 고답적

인 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리형태는 도시를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금강을 위한 하나의 범람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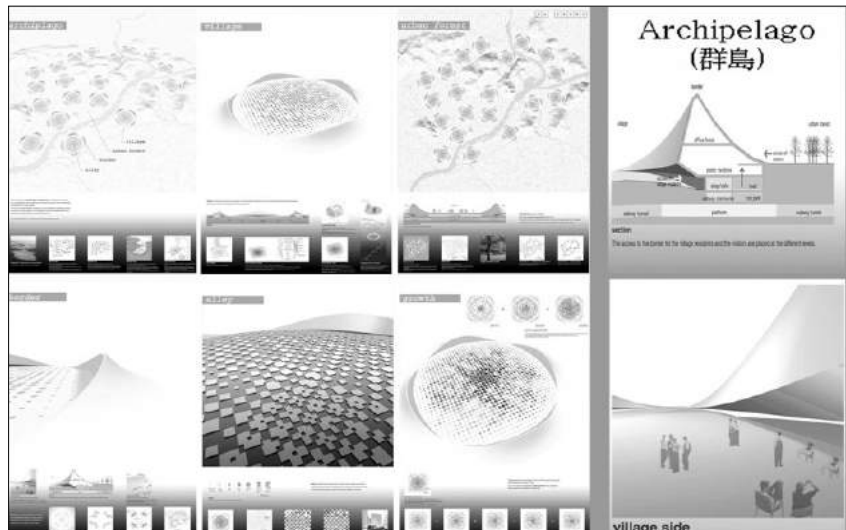
장려작 / **Archipelagic city**
Sumiya Mamoru / 일본

작품개요

자치권이 있는 도시의 공간단위인 마을은 다양한 시설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밀집한 공간이며 하나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지에 20개의 마을이 군도처럼 분산되어 다수의 중심을 가진 하나의 도시가 된다.

심사평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녹지공간에 의해 도시라는 섬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군도'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당선자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모호함을



표현하기 위해 농경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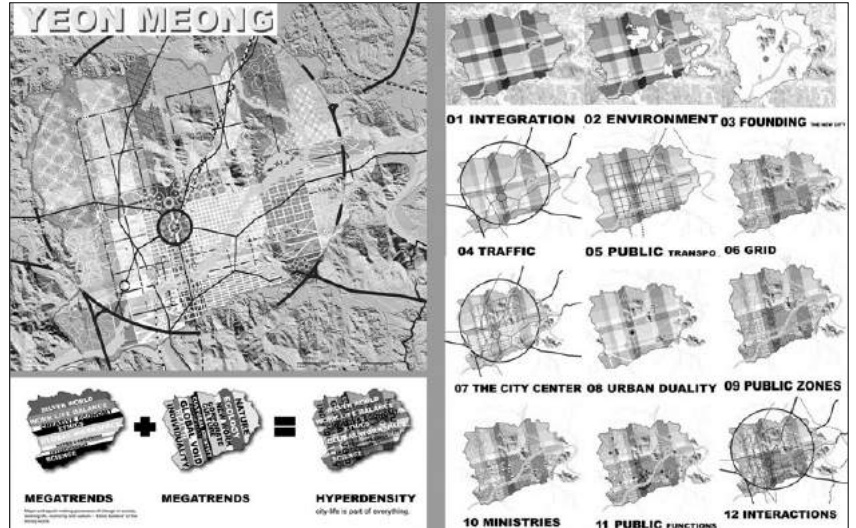
장려작 / Yeon Meong(음양)
Pucher Thomas / 오스트리아

작품개요

전통적 계획 및 아바니즘을 시작하기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세계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프로필이나 브랜드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세계적인 추세(mega trend)를 수용하고 매트릭스를 연결시키는 형태 속에서 개발을 지속하며, 마스터플랜의 기본구조와 도시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초뿐만 아니라 도시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주체는 경제적 이슈를 찾아내고, 도시밀도간 적절한 배치, 국제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평

'음양(Yeon Meong)'으로 명명된 이 작품은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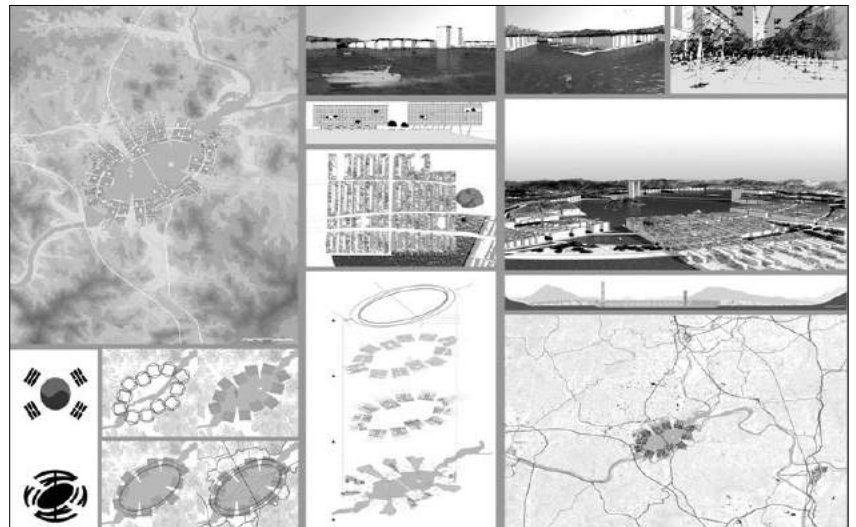
적으로 격자형 패턴을 도입하였지만, 실용성을 갖춘 띠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실용적인 띠 형태는 남북 및 동서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근접하여 그려진 프로그램들의 띠들은 남북 축으로뿐만 아

니라 동서 축으로 형성되어 교차점을 형성시키고, 용도지역의 설정에 따른 단순함이나 커뮤니티간의 격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장려작 / Nurturing a new urbanity
Cristian Undurraga / 칠레

작품개요

이 작품은 전통과 개발을 통합시킨 작품이다. 금강을 보존하고 도시의 특징을 주기 위해 중앙에 호수를 만드는 것이다. 산과 호수 사이로 12개의 구역(district)이 제안되었으며, 이 생활권(district)의 규모는 전통적 도시경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규모로서 옥상부분을 현재적으로 녹지 공간화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개별 구역에는 중앙에 정부공공기관과 업무지역이 있으며 양쪽 끝으로 복합용도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부기관과 상업지역은 중앙에, 외곽지역은 4개의 고리형 대로, 지하철 및 수상교통을 통해 지역차원의 도시기반 시설을 도시로 연결시키는 복합용도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역 사이의 지역은 도시서비스 시설과 4개의 지역공원을 설치토록 하였다.



심사평

도심부의 금강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한 이 작품은 새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한 명확한 중심지를 제안하고 있다. 12개 중앙행정기관이 금

강에 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미래의 도시확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외곽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서 승 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uh Seung-jik

발코니 구조변경의 합법화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Legalization of
Balcony Remodelling

정부가 발코니 구조 변경의 합법화를 당초 예정보다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아마도 조기 합법화의 요구가 빗발친데서 비롯된 '민원 해소성'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부터 합법화 자체가 무리라고 우려하던 차에 준비도 안 된 합법화를 그것도 더욱 앞당기기로 했더니 혼란을 겪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의 발코니 구조변경의 합법화가 규제개혁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한때는 안전을 이유로 구조 확장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환경 개선의 차원이라고 설명하니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의 변화다. 특히 처음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가 안전을 우려하는 비난이 쏟아지자 허둥지둥 발코니 내 대피 공간 의무화와 불길을 막을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만 봐도 얼마나 준비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개선이라고 해봐야 30평에서 50평 규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0평 내외의 면적을 세금 부담 없이 늘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이는 환경개선 효과 이면에는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발코니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코니는 원래 서양건축에서 비롯된 건축 양식의 하나로 인간의 편리성 추구하고 안전 등을 위해 발전된 하나의 건축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원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실용성에 비중을 둔 나머지 통상 완충 공간(buffer space)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본래의 건축양식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발코니의 모습은 아니다.

당장 보이는 몇 평의 사용면적 증가를 개선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안전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간과 한다면 더 큰 대가를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완충 공간으로서의 발코니는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공동 주택의 발코니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실이나 기타 실 등의 확장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공동주택 650만 가구 가운데 203만 가구가 비 내력벽 철거 또는 나무 등 경량재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경우 그리고 기둥이나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 행위 등을 통하여 이미 발코니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음성적으로 널리 행해진 발코니 확장을 더 이상 묵인 할 수도 그렇다고 규제할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양성화를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정부의 부처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안의 제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니 걱정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발코니의 구조 변경 합법화가 가져오게 될 염려스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안전성 문제이다. 그동안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통로로는 물론 층간의 연기(smoke) 확산을 지연시켜 신속한 초기 대피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화재 피해의 75% 이상이 각종 연소가스(gases)에 의한 피해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0.6평에서 0.9평의 대피 공간 확보만으로는 화재와 재난에 대한 발코니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당초 기대하는 확장 효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어떤 대안으로도 쉽게 보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구조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다. 발코니는 건축 구조상 한쪽만을 건물에 지지하는 캔틸레버(cantilever)식 구조다. 물론 구조물의 강도나 적재하중을 충분히 감안 하고는 있지만 구조 확장으로 인한 칸막이벽이나 날개벽의 해체 등으로 그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건물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또한 어떤 대안이 있어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다.

셋째, 발코니는 건물의 처마역할로 자연 환경이용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건축 시스템이다. 특히 효과적인 일사의 조절은 건물의 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층간 공기 전달 음을 차단 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의 이중 외피 공간의 형성은 완충 공간으로서 겨울에는 창가의 차가운 냉기 유입과 결로 발생을 막아주며 여름에는 창

가의 뜨거운 복사열을 차단시켜 주므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확장에 따른 에너지 절감율을 개략 살펴보면 특히,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실 확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에너지 절감율이 예비 인증 2등급(23.5~33.5%)에서 3등급(13.5~23.5%)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인증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60mm 이상의 단열재와 Low-e 유리의 추가 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코니 공간은 21세기 건축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원이 없는 도시민에게 그 래도 생활의 여유와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건축 공간임으로 더욱 확대 권장시켜야 할 요소이다.

넷째, 이번 합법화가 오히려 제2의 편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 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분양가 상승 등도 우려되는 점이지만 특히 건축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모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부담 없이 건축면적만을 늘리려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 한들 결코 발코니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확장의 이유로는 70% 이상이 '실내 공간 확보'라는 사실과 또한 확장세대의 87%가 확장에 만족을 나타낸 것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소형 평형(25평 이하)의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이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바 여기에 대피 공간을 따로 확보 해야 한다면 유효면적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당장 보이는 몇 평의 사용면적 증가를 개선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안전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간과 한다면 더 큰 대가를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인간에 의해 파괴된 도시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인위적으로 자연을 다시 불러온 청계천 복원과 같은 시행착오의 역사에서도 잘 증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발코니가 없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환경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빗발치는 민원의 해결이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건축양식이 주는 친환경적인 기능과 역할을 불과 몇 평도 안 되는 사용 면적의 증가와 바뀌워서는 안 될 일이다. 때늦은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발코니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잘 계도하여 진정한 주거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깊이 생각했어야 했을 일이다. ■

박 시 익
명당건축사 사무소
by Park Si-ik, KIRA

풍수지리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02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기하학적 구조와 풍수지리

고대 그리스의 건축 철학

그리스는 산맥들에 의해 수많은 작은 지역으로 분할된 곳이며 지리적으로 굴곡진 해안선으로 형성된 만이 많고 반은 육지 반은 바다와 같은 곳이다. 이곳의 기후는 다양하여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건조하고 더우며 거의 일년 내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스인은 인간의 이성이 지니는 힘을 존중한 최초의 문화인이었다. 단순함을 지닌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지성을 갖춘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그리스인은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추구해 왔다. 예컨대 그리스의 제우스는 여러 신들 중에서 주신(主神)이며 최고의 지배자로 하느님에 해당된다. 그리스에서 아폴론은 태양신이며, 용왕신은 포세이돈, 지신은 데메테르다. 이와 같이 그리스는 여러 종류의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이룩해 왔다.

그리스 신전은 그리스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다. 그리스 신전에는 신과 인간이 영원히 거대한 우주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도 담겨 있다. 자연의 질서를 그리스인은 기하학적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오늘날 남아 있는 신전을 통해 그리스 신전 건축의 기하학적인 비례를 해석하게 된다.

그리스인은 산 정상이나 작은 숲 같은 곳에 여러 신들이 산다고 믿어 이들을 모두 숭상했다. 그리스인은 신의 형태를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각상에서 신은 이상화된 인간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신전에 안치되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지어진 신전 건축물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현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 건축물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이론으로 연구해 보면 이들 건축물이 생기를 발생하는 명당 건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스 신전은 대부분이 산의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전의 출입구는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여 건물의 동서 축이 길고 남북 축이 짧다. 신전을 산의 정상부에 건립한 것은 산의 정상부를 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전을 동향으로 배치한 것은 태양신을 위대한 신으로 여겨 신전에 많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결과다.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적인 개념 역시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러 신을 숭배해 오는 내용과 유사점이 많다. 그리스 신전 건축에 담겨 있는 풍수적인 이론을 살펴보자.

그리스의 학자 비트루비우스가 기원전 30년경에 쓴 『건축 십서(十書)』에는 그리스 신전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1:2의 비율로 구성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리스 신전이 1:2의 비율로 구성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풍수지리 이론으로 그리스 신전들을 분석한 결과 그리스 신전이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대로 1:2의 비율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폴론 신전, 아파피아 신전 등의 평면도는 공통적으로 1:2 비율의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그리스 건축의 기하학적인 이론의 해석은 고대 건축의 이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의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도 그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기하학과 풍수지리적 분석

기원전 447년부터 432년까지 15년간 걸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건설된 파르테논 신전은 인류가 만든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모습이 남아 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아테네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작은 산이다. 파르테논 신전 건물 외부에는 아름다운 기둥과 돌계단이 동서남북 4면으로 감싸고 있다. 작은 산 위에 솟아올라 태양빛에 반짝이는 파르테논 신전 건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감을 갖게 한다. 아테네를 보호해 주는 아테나 여신의 커다란 조각상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의 주된 기능이었다.

파르테논 신전의 중심부에는 큰 방과 작은 방 등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방에는 아테나 여신의 조각상이 안치되어 있어 신상실이라고 부르고, 작은 방은 여러 가지 보물을 보관하는 보물창고라고 한다. 신상실 내부에는 3면에 기둥이 서 있고 그 중심부에 아테나 여신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다.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를 수호해 주는 신이다. 신상실은 동쪽을 향하여 출입구가 있으며 보물창고는 서쪽을 향해 통로가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 길이는 30.88미터이며 동서 축 길이는



그림 1. 파르테논 신전의 전경



그림 2.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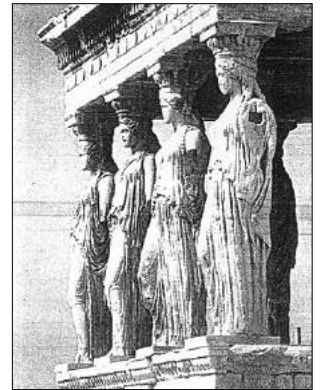


그림 3. 파르테논 신전의 여신 조각상

69.50미터다. 신전의 동쪽과 서쪽 측면에는 각각 8개, 남과 북쪽 측면에는 30개의 기둥이 서 있다. 기둥의 형식은 도리아 양식이며 높이는 10.43미터이다. 신전 외부 기둥 중에서 네 개의 모서리 기둥 직경은 1.92미터이며 그 이외의 기둥 직경은 1.88미터다.

신전은 산의 정상에서 산신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파르테논 신전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그리스인의 철학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리스인은 현실을 마치 향해하는 과정으로 보고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진행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한편 파르테논 신전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그리스 신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다른 건축이나 미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하학 중에 어느 부분이 건축에 적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필자가 찾아낸 그리스 신전 내면에는 감추어져 있는 기하학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비율

파르테논 신전은 지리적으로 산봉우리의 정상에 위치하며 동쪽을 향해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은 30.88미터이며 동서 축은 69.50미터다. 이 길이에 의해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에 대한 동서 축 길이의 비율은 $30.88\text{미터} : 69.50\text{미터} = 4:9$ 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이론이다.

건축물의 평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을 산정할 때 기둥 중심선 사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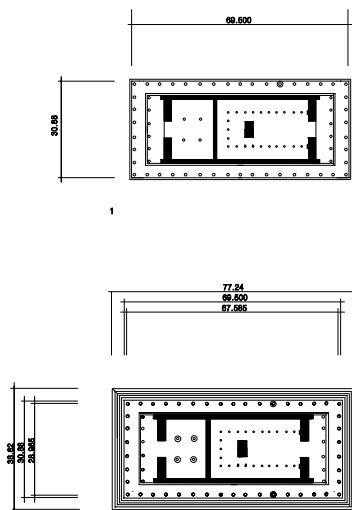


그림 4.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1

논 신전 기둥 중심선 사이의 길이는 밝혀져 있지 않아서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중심선 사이의 길이를 조사하기 위해 기둥의 직경을 조사했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파르테논 신전 기둥 직경은 1.88~1.92미터 사이의 값을 가졌다. 그리하여 기둥

의 직경을 1.915미터로 가정하고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시작했다.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 길이 30.88미터, 동서 축의 길이 69.50미터, 기둥의 직경 1.91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남북 축 기둥 중심 사이의 길이를 계산하면 $30.88 - 1.915 = 28.965$ 미터이고, 동서 축 기둥 중심 사이의 길이는 $69.50 - 1.91 = 67.585$ 미터다. 이를 근거로 남북 축 외벽 기둥 중심 사이의 길이와 동서 축 외벽 기둥 중심 사이 길이의 비율은 $28.965 : 67.585 = 3 : 7.000$ 이라는 계산이 도출되었다. $4 : 9.0025$ 보다는 $3 : 7.000$ 이 더욱 정확한 기하학적인 수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에 대한 동서 축 길이의 비율은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3:7의 비율임이 확인하게 되었다.

	외부길이 m	비례길이, 기둥 직경 D=1.915 m	단위 길이	비율	16M×8M
동서축 길이 (X-Y 길이)	69.50m	$69.50 - 1.915 = 67.585\text{m}$ (=210Pa.ft)	$210/15 = 14\text{M}$	7	$16\text{M} = 77.24\text{m}$ (240 Pa.ft)
남북축 길이 (X-Y 길이)	30.88m	$30.88 - 1.915 = 28.965\text{m}$ (=90Pa.ft)	$90/15 = 6\text{M}$	3	$8\text{M} = 38.62\text{m}$ (120 Pa.ft)
비 고	$1\text{M} = 15 \text{ Pa.ft} = 4.8275\text{m}$ $1\text{Pa.ft} = 32.1833\text{cm}$		기둥의 중심선이 비례길이 기준선		

그림 5. 파르테논 신전 길이 비교 표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단위 길이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 비율 3:7에 대해 기하학적으로 검토해 보자.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우측이 동쪽, 좌측이 서쪽이 되도록 배치한 후 기단 상부의 네 꼭지점을 각각 A1, B1, C1, D1이라고 정한다. 그리고 B1-C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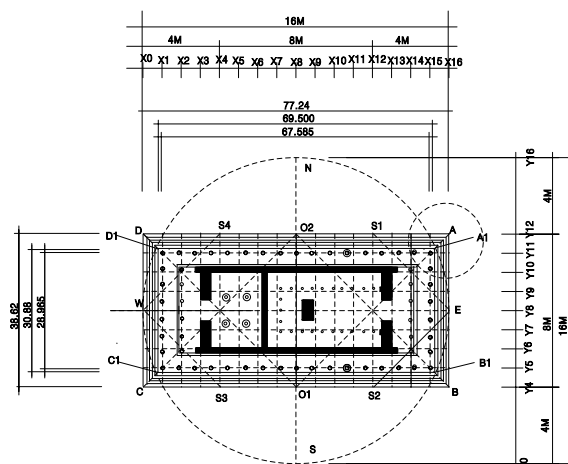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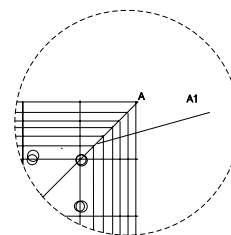


그림 6.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2

중심점 O3과 A1-D1의 중심점은 O4를 정한다.

사각형의 꼭지점 A1, B1, C1, D1에서 A1-C1과 B1-D1을 연결하여 그 교점 Oc를 평면의 중심점으로 하여 수평 기준선 X-X'과 수직 기준선 Y-Y'의 좌표를 그린다. A1과 D1에서 X-X'선에 각각 45도 되는 사선을 그어 두 사선의 교점 O1을 Y-Y'선상에 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B1과 C1에서 X-X'선에 45도 되는 사선을 그어 두 사선의 교점 O2를 Y-Y'선상에 정한다. O2의 수평 연장선이 A1의 45도 사선과의 교점을 A 그리고 D1의 45도 사선과의 교점을 D라고 각각 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O1의 수평 연장선에서 B1과 C1의 45도 연장선 교점 B와 C를 각각 정한다. 그리고 사각형 ABCD에서 AB의 중심점을 E, CD의 중심점을 W로 정한다. 사각형 ABCD는 1:2 비율을 이룬다.

〈그림 6〉에서 중심점 Oc를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Oc-W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1을 그린다. Oc의 수직선과 C-1 상부가 만나는 교점을 N 그리고 하부와 만나는 교점을 S라 한다. 사각형 ABCD의 X-X' 축에서 점 W를 X0으로 그리고 점 E를 X16으로 정한 다음 X0과 X16 사이를 16등분한다. 이때 16등분선은 각각 X0, X1, ..., X16라고 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원 C-1의 Y-Y' 축에서 점 S를 Y0으로 그리고 점 N을 Y16으로 정하고 그 사이를 16등분하여 16등분선을 각각 Y0, Y1, ..., Y16으로 정한다.

〈그림 6〉에서 X, Y축의 16등분선은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중심점이나 벽 등 신전의 주요 구조부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에서 16등분선은 신전 외부는 물론 내부 중요 공간의 위치까지 모두

일치하여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이 16등분으로 구성된 것이 확인된다. X1은 서쪽 측면 제1열 8개 기둥의 중심선, X2는 서쪽 측면 제2열 6개 기둥 중심선, X3은 서쪽 측면 외벽선, X6은 신상실 벽 외부선, X8은 신전 동서 축 길이의 중심선, X13은 동쪽 측면 외벽선, X14는 동쪽 측면 제2열 6개 기둥의 중심선, X15는 동쪽 측면 제1열 8개의 기둥 중심선, Y5는 남쪽 측면 17개 기둥의 중심선, Y6은 남쪽 벽면, Y7은 신상실 내부의 남측 10개 기둥 내부선, Y8은 신전 동서 축 중심선, Y9는 신상실 내부 북측 10개 기둥 내부 축선, Y10은 북쪽 벽면, Y11는 북쪽 측면 17개 기둥의 중심선이 된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중심선과 벽의 위치 등 내부와 외부의 주요 구조 부분이 16등분선과 일치하고 있다. 16등분선 사이의 거리를 단위 길이(M, 모듈)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 외부 남측 기둥 중심선 Y5로부터 북측 기둥 중심선 Y11 사이의 단위 길이는 6M이고, 동측 기둥 중심선 X15로부터 서측 기둥의 중심선 X1까지의 길이는 14M이다.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의 길이의 비율은 단위 길이로 $6M:14M=6:14=3:7$ 임이 증명된다.

파르테논 신전 남측 기둥 중심선 Y5로부터 북측 기둥 중심선 Y11까지의 단위 길이 6M의 실제 길이는 $30.88-1.915=28.965$ 미터다. 그러므로 1단위 길이는 $28.965 \times 1/6=4.8275$ 미터다. 또한 신전 서측 기둥 중심선 X1로부터 동측 기둥 중심선 X15까지 14M의 실제 길이는 $69.5-1.915=67.585$ 미터이고, 1단위 길이는 $67.585 \times 1/14=4.8275$ 미터다. 파르테논 신전의 남북 축 단위 길이와 동서 축 단위 길이는 모두 동일한 4.8275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 사용된 기본 단위인 1도릭피트는 32.8센티미터라고 알려져 있다.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단위 길이 4.8275미터를 그리스 도릭피트로 계산하면 $4.8275 \text{미터} \times 1/0.328=14.717$ 이다. 단위 길이는 기본 길이의 정수 배율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4.717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15다. 따라서 1단위 길이 4.8275미터를 15도릭피트로 가정하면 1도릭피트의 길이는 $4.8275 \times 1/15=32.1833$ 센티미터다.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 건설 당시에 사용된 단위 길이 1도릭피트는 32.1833센티미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기준이 된 32.1833센티미터는 그리스 1도릭피트 32.8센티미터와 6.167밀리미터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32.1833센티미터를 가칭 '파르테논 피트'라고 이름 한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 건설 당시에 사용된 1파르테논 피트(Pa.ft.)는 32.1833센티미터이며 파르테논 신전은 15파르테논 피트, 즉 $15 \times 32.1833 \text{센티미터}=4.8275 \text{미터}$ 를 1단위 길이(1M)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를 파르테논 피트로 계산하면 기둥 중심점에 의한 사각형 A2B2C2D2에서 남북 축 길이 28.965미터(6M)는 $90 \text{Pa.ft.}(28.965/0.321833=90.000093 \text{Pa.ft.}=90 \text{Pa.ft.})$ 이다. 그리고 동서 축 기둥 중심 간의 길이 67.585미터(14M)는 $210 \text{Pa.ft.}(67.585/0.321833=210.0002 \text{Pa.ft.}=210 \text{Pa.ft.})$ 가 된다. 파르테논 신전 남북 축과 동서 축 기둥 중심선의 사이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파르테논 피트로

$90:210=3:7$ 이 된다. 기하학적으로 나타난 3:7의 비율은 앞에서 파르테논 신전 길이의 비율 계산에서 3:7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3:7의 비율임이 증명된다.

〈그림 6〉에서 파르테논 신전의 외부 기단 하부 사각형 ABCD에서 남북 축 길이 8M(38.62미터)는 120Pa.ft. 이고 동서 축 16M(77.24미터)은 240Pa.ft. 로 전체적으로 정수를 이룬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직경을 포함한 사각형 A1B1C1D1에서 남북 측면의 길이 30.88미터는 파르테논 피트로 $30.88/0.321833=95.95(=96) \text{Pa.ft.}$ 이며, 동서 측면 길이 69.5미터는 $69.5/0.321833=215.95(=216) \text{Pa.ft.}$ 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직경 1.915미터는 파르테논 피트로 $1.915/0.321833=5.950(=6.0) \text{Pa.ft.}$ 가 된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 기둥의 하부는 6파르테논 피트($6 \times 32.1833=193.09$ 센티미터)의 직경 중에 0.05파르테논 피트($0.05 \times 32.1833=1.6$ 센티미터)는 가공하여 5.95파르테논 피트($=1.915$ 미터) 직경의 기둥을 만든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부터 약 2,400여 년 전 건설 당시에 32.1833센티미터를 1파르테논 피트로 그리고 15파르테논 피트인 4.8275미터를 기본 길이 1M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듈과 중심원은 태양계의 구조

중심원의 평면도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1:2 비율의 사각형 ABCD로부터 시작되며 X-Y축 상의 16등분선을 단위 길이로 사용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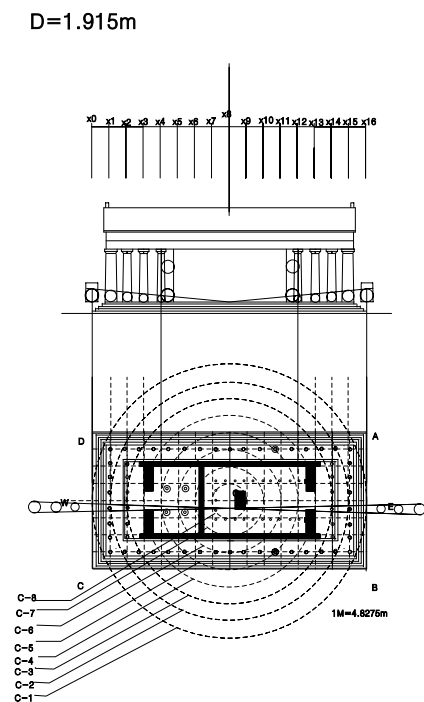


그림 7.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중심원

는 지름이 16M인 원 C-1 내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8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심원의 반지름 길이는 1M, 2M, 3M 등 1M에서부터 8M까지 8개의 기하학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에서 동심원은 반지름이 8M인 원 C-1부터 시작하여 반지름이 1M인 C-8까지 8개로 구분된다.

각각의 동심원은 평면도의 주요 구조부를 이룬다. 즉,

C-1은 반지름 8M이며 평면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다.

C-2는 반지름 7M이며 신전의 동측과 서측 기둥 중심선을 이룬다.

C-3은 반지름 6M이며 신전 동측과 서측 제 2열 기둥 중심선을 이룬다.

C-4는 반지름 3M으로 벽면의 출입구를 이룬다.

C-5는 반지름 4M이며 신전 외부기단의 남북 축을 이룬다. C-5의 외접 사각형은 S1S2S3S4를 만들어 신전의 중심 부분을 이루면서 신전 동서 축을 3등분하여 거북이 등을 만든다. 신전의 평면도는 두 개의 C-5에 의해 8:16 비율의 사각형 ABCD를 이룬다. ABCD는 반원을 이루며 이 반원은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12시간의 과정을 나타낸다.

C-6은 반지름 3M이다. Oe를 중심으로 한 원 C-6e는 동측 1열 기둥 중심선과 남북 축 기둥 중심선을 연결한다.(원 C-4e는 2열 끝 부분의 기둥을 통과한다.)

C-7는 반지름 2M이며 신전 벽 내부선, 즉 신상실 내부 공간을 나타낸다. 3개의 C-7은 사각형 A5B5C5D5에서 신전의 중심부를 구성한다. 또한 C-7e는 2열 기둥 중심선과 신상실 남북측 내부벽선을 연결한다.

C-8는 반지름 1M이며 신상실 내부 기둥 사이의 공간을 나타낸다. 또 다른 C-8은 Oe를 중심점으로 하고 O2-Q'를 반지름으로 하며, 동측 2열 기둥 전면의 계단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동심원은 신전 벽면의 중심부 위치를 나타낸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을 구성한 동심원의 지름 길이는 1M, 2M, 4M, 8M, 16M 등 2의 배수로 된 것도 있다. 지름이 1M으로부터 2의 배수로 커지는 관계는 $2M_0=1, 2M_1=2, 2M_2=4M, 2M_3=8M, 2M_4=16M$ 으로 2의 제곱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심원 지름의 제곱수에 의한 확장 방법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여러 행성의 궤도와 유사하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태양계에서 태양을 비롯한 여러 별들의 운행하는 형태를 암시하는 듯하다. 파르테논 신전의 중심부는 태양계의 중심, 즉 태양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며 기둥이나 벽들은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을 나타낸다.

태양빛 구성의 기둥과 벽

신전의 중심점 Oc에서 내부 벽 모서리 QRST를 연장한 선은 기둥 중심 사각형 A1B1C1D1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신전 중심점 Oc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이 사방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신전의 중심점은 태양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순전등으로 빛을 비출 때 빛은 발원처에서 멀어질수록 원추형 빛의 직경은 거리에 비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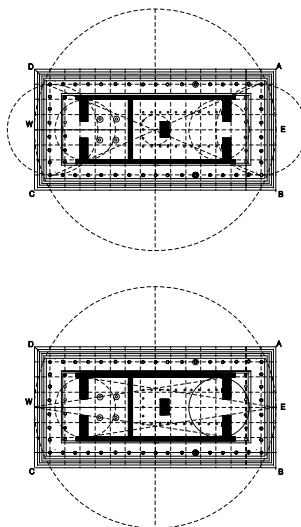


그림 8.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커진다. 이와 같이 건물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기둥의 직경이나 벽의 두께가 커지는 구조를 필자는 가칭 '태양빛 구성'이라고 이름 한다. 태양빛 구성은 기둥의 위치가 기하학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에서 기둥의 직경이나 기타의 구조물도 기하학적인 비례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 '태양빛 구성'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평면도에서 E에서부터 T

와 S를 연결하면 그 선은 동쪽 벽에 있는 대문 개구부의 1벽 끝부분을 통과한다. 같은 방법으로 W에서부터 Q와 R을 연결하면 그 선은 서쪽 벽에 있는 대문 개구부의 벽 끝부분을 통과한다. 삼각형 EST는 아침에 태양이 E에서 빛을 발산할 때 그 태양빛이 동쪽 대문을 통과하여 서쪽 벽에 닿는 형태다. 삼각형 WQR은 저녁에 달이 W에서 빛을 발산할 때 달빛이 서쪽 대문을 통과하여 동쪽 벽에 만드는 빛의 형태다. 신전의 내부 공간은 태양 빛과 달빛이 모여 동시에 동서 양면으로 태양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취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신선한 기운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태양과 달빛의 결합하는 신전의 중심 공간은 물방울을 그리고 직선은 빛을 의미한다. 파르테논 평면도는 공간과 공간을 서로 연결하여 기운이 순환하는 생명체로 생각하여 원과 직선을 결합하여 생명의 공간을 만들었다. 신전의 중심부는 바로 태양신의 심장이 있는 공간이다. 신전 내부는 태양 기운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확장되도록 한다.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측면 제1열과 제2열 기둥의 외접선을 연결하면 서쪽 측면 기둥의 외접선과 일치한다.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기둥의 굵기는 기둥의 위치가 신전의 중심부에서부터 외부로 멀어질수록 굵고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지는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마치 신전의 중심부에 태양이 있고 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동서로 뻗어나가는 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기둥 굵기의 변화는 실내 분위기에서 음악적인 효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된 원형 기둥은 기둥 직경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이들 기둥 중에서 직경이 가장 굵은 기둥(이하 1번 기둥)은 신전의 사면을 에워싼 46개이다. 1번 기둥은 직경은 191.5미터(1.88미터 내지 1.92미터)이며,¹⁾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측면과 서쪽 측면에는 1번 기둥이 각각 8개씩 있다. 2번째 굵은 기둥(이하 2번 기둥)은 신전의 동쪽과 서쪽 2열에 있는 12개의 기둥이다. 3번째 굵은 기둥(이하 3번 기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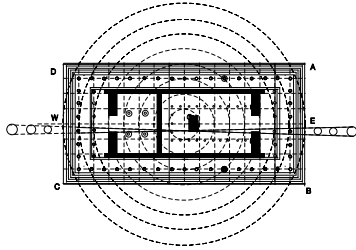


그림 9.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보물창고 내부에 있는 4개의 기둥이다. 4번째 기둥(이하 4번 기둥)은 기도실에 있는 기둥으로 가장 가늘며 모두 23개이다. 이들 네 가지 기둥 중에서 8개 기둥 사이의 공간은 7개가 된다.

〈그림 9〉을 보면, 1번 기둥은 중심점 O에서부터 7M 거리에, 2번 기둥은 6M 거리에, 3번 기둥은 5M의 거리에, 4번 기둥은 4M 거리에 있어 네 가지 기둥 직경은 거리에 비례한다. 네 가지 기둥의 직경 비율은 7:6:5:4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르테논 신전 건물에서 기둥의 직경이 위치에 따라 비례를 이루듯이 벽의 두께도 위치에 따른 비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평면도에서 가장 두꺼운 벽(이하 1번 벽)은 신전의 동쪽 측면과 서쪽 측면 출입구가 있는 벽이다. 2번째로 두꺼운 벽(이하 2번 벽)은 신전 내부 기도실의 남쪽 측면과 북쪽 측면의 벽 그리고 기도실과 보물창고 사이의 벽 등이다. 이와 같이 신전의 벽두께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번 벽의 위치가 중심점으로부터 8M 떨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벽의 두께는 1번 기둥의 직경과 비교하면 8:7의 비율을 이루어 193센티미터(6Pa.ft.) $\times$ 8/7=220센티미터인 것으로 상상해 본다. 2번 벽의 두께는 1번 기둥의 5/7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직경과 벽의 두께는 태양빛 구성 이론에 의해 8:7:6:5:4의 비율을 이룬 것으로 상상해 본다.

공간의 기하학적 변화와 삼위일체 사상

1:3의 비율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8M:16M(=1:2)의 사각형에서 시작하여 양변의 길이가 각각 2M씩 줄어들어 6M:14M(=3:7)의 기둥 중심선 사각형, 4M:12M(=1:3)의 신전 내부 벽 사각형 그리고 4M:10M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8:16(=1:2) 비율의 사각형에서 양변의 길이가 각각 2M 길이씩 줄어드는 공간의 구성 기법은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가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4M:12M=1:3의 신전 내부 벽 사각형에는 신상실과 보물창고가 있다. 이 1:3 비율의 공간은 신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1:3 비율의 공간 중심부에 위치한 신상실은 태양신이 거주하는 영원한 생명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공간 개념은 생명체를 구성한 육체,

마음, 영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1:3 비율의 파르테논 신전 공간은 삼위일체 사상에 의한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임을 상징한다. 1:2 비율의 사각형에서 1:3 비율의 사각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육체의 현실에서 영혼의 세계로 변화하는 종교적인 과정이라고도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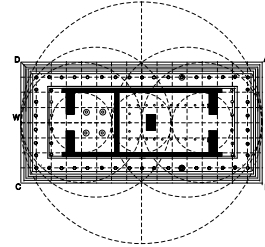


그림 10.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1:3

신전의 중심부에 있는 신상실과 보물창고 남측과 북측의 벽 길이는 3M:7M=3:7의 비율을 이룬다. 3:7이라는 비율은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중심선 사각형 A2B2C2D2에서 남북 축 길이에 대한 동서 축 길

이의 비율 6M:14M=3:7과 동일한 비율이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 남북 축 길이에 대한 동서 축 길이의 비율과 신전 내부 보물창고 벽과 신상실 벽 길이의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3:7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역시 파르테논 신전 건설 당시에 기하학적인 비례를 적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파르테논 신전에서 1:2 비율의 신전 외부적인 공간은 태양빛이 밝게 빛나는 활동적인 공간을, 그리고 1:3 비율의 신전 내부 공간은 삼위일체 사상에 의한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앞에 분석한 자료들로부터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여러 가지의 도형을 기하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는 중심 공간을 크게 하는 3간의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구성하여 컴퍼스와 삼각자만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1:2:1 비율의 공간

1:2 비율의 사각형은 내부 중심부에는 2:2 비율의 정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좌우에 각각 1:2 비율의 사각형 2개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2:1, 2:2, 2:1 형태 등 세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됐다. 평면 공간에서 1:2:1 비율의 공간은 1:1:1 비율의 공간에 비하여 중심부의 공간이 좌우의 공간보다 2배 큰 것이 특징이다.

1:2 비율의 공간을 1:2:1 비율의 세 공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필자는 가칭 '3/4 구성법'이라고 한다. 즉, 공간의 '3/4 구성법'이란 4개의 단위 길이 중 중심부에 2개의 단위 길이를 두고 그 좌우를 각각 1개의 단위 길이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1:2:1 비율의 3공간으로 구획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전의 평면도를 Y-Y' 축에서 볼 때 신전의 외부 공간인 C-1의 Y0에서부터 Y16까지의 16M 길이는 자름이 8M인 C-5의 Y4와 Y12에 의해

1) 오늘날 파르테논 신전에 내부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기둥의 직경이나 벽의 두께 등 각 부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파르테논 신전 내부에 있는 기둥의 직경과 벽의 길이를 안다면 보다 정확한 비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부정확하나 도면을 토대로 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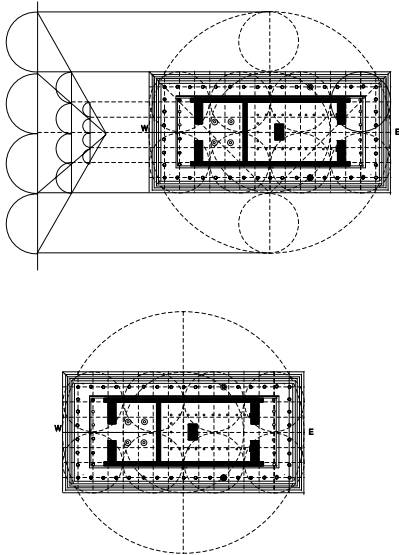


그림 11.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1:2:1

X-X' 축에서 X0~X16까지의 길이 16M은 동심원 C-5의 외접 사각형 S1S2S3S4에 의해 4M:8M:4M=1:2:1 비율을 이룬다.

1:2:1 비율 공간의 기운은 태양의 기운과 관련된다. 1×2 비율의 사각형은 태양이 떠 있는 12 시간대를 의미한다. 사각형 ABCD 내의 중심선 Y-Y' 선을 정으로 하여 그 우측은 오전 6시간이며 좌측은 오후 6시간이 된다. BC 상에 점 B는 태양이 떠오르는 오전 6시를, 점 C는 일몰인 오후 6시를 의미한다. 사각형 S1S2S3S4는 낮 12시간을 3시간씩 4시간대로 구분한다. BC 사이의 S2는 오전 6시간의 중심점인 오전 9시를 의미하며, S3은 오후 6시간의 중심점인 오후 3시를 나타낸다. 태양이 떠 있는 12시간은 태양빛의 밝기에 의해 아침 3시간, 정오 6시간, 그리고 저녁 3시간대로 구분되어 3:6:3(=1:2:1)의 비율을 이룬다. 풍수지리적으로 분석할 때 1:2:1 비율의 공간은 전체적으로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며 그중에서도 2에 해당되는 중심 공간은 가장 강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수평축과 수직축이 모두 1M:2M:1M, 2M:4M:2M, 4M:8M:4M 등 전체적으로 1:2:1의 비율을 이루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리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의 구조가 1:2:1 비율에서 2:4:2 그리고 4:8:4 등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리듬의 반복적인 현상을 이루어 아름다운 음률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공간의 형태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 확장되는 현상은 마치 태양 빛이 확장되어 가는 현상과 같다. 그리고 연속적인 1:2:1 비율의 공간은 아름다운 공간의 리듬을 발생한다. 연속적인 1:2:1 비율의 파르테논 신전은 영원한 태양 아래 발전하는 즐거운 음악과 환희에 찬 생명의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공간의 울림

파르테논 신전 전면에는 8개의 기둥이, 그리고 그 내부에는 6개, 기도

4:8:4(1:2:1)의 비례를 이룬다. 또한 지름이 8M인 C-5의 Y4에서부터 Y12까지의 길이는 지름이 4M인 C-7의 Y6과 Y10에 의해 2:4:2(=1:2:1)의 비례를 이룬다. 신상실의 내부에서 지름이 4M인 C-7 내부에는 지름이 2M인 C-8에 의해 1:2:1의 비율을 이룬다. 또한 신전 평면도의

실 중심부에는 2열의 기둥이 있어 전체적으로 짝수의 기둥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남쪽과 북쪽에는 홀수인 17개의 기둥이 서 있다. 그러나 진입 부분과 실내공간은 모두 짝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소규모 건물의 구조는 2개의 짝수 기둥에 의해 중심부의 공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3기둥 구조에서는 중심부에 기둥이 자리하게 된다. 중심부에 기둥이 있는 구조는 지붕의 무게를 기둥이 직접 아래에서 받치고 있어 구조적으로 튼튼한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짝수 기둥 구조는 용마루 아래에는 기둥이 없어 지붕의 무게를 바칠 수 있는 굽은 대들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공사비나 시간에서는 홀수 기둥 구조가 짝수 기둥 구조보다 경제적이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수가 전체적으로 짝수로 된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각부 길이 비율이 1:2:1, 2:4:2 그리고 4:8:4 등 동일한 비율로 확산하는 것은 공간의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구조 분석된다.

소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파르테논 구조와 같은 짝수 기둥 구조는 중심부가 비어 있어 마치 북과 같은 형태를 이루어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만들어 준다. 건물에도 중심부에 기둥이 없어야 아름다운 진동과 소리가 나온다. 2기둥 구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2기둥 구조와 같은 짝수 기둥 구조에서는 건물의 중심부에 기둥이 없어 기운이 중심부에 모이게 되는 장점도 있다.

3기둥 구조에서는 중심부에 기둥이 자리하게 되며 중심부에 위치한 기둥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 즉 소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3기둥 구조와 같이 건물의 중심부에 기둥이 있다면 실내 공간의 분위기는 기둥에 의해 좌측과 우측으로 분산된다. 3기둥 구조와 같이 5기둥, 7기둥 등 홀수 기둥 구조에서는 중심부에 기둥이 있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부족하게 된다.

신전의 평면도가 태양계의 형상을 이룬 것은 태양신의 소리가 신전에 퍼지기를 위한 것이며 신전의 구조가 1:2:1의 비율을 이룬 것도 신전에서 아름다운 진동과 소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에는 기둥의 수직선을 따라 잔 흠이 많다. 바람이 기둥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외벽 기둥의 잔 흠은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 준다. 높고 긴 기둥, 그리고 여러 개의 기둥과 많은 잔 흠에서 발생하는 휘파람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 준다. 이 부드러운 소리는 수직과 수평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파르테논 신전이 기하학적인 요소로 구성된 것은 신전을 아름다운 소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해석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전체적으로 8×16 비례에서 출발했다. 전면과 후면 기둥은 8개다. 평면의 8단위와 8개의 기둥 등 8의 의미는 음악에 사용되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의 8음부와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인이 사용하던 하프는 8줄로 되어 있었다. 신전을 아름다운 음악이 발생하는 악기로 생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북선의 형태와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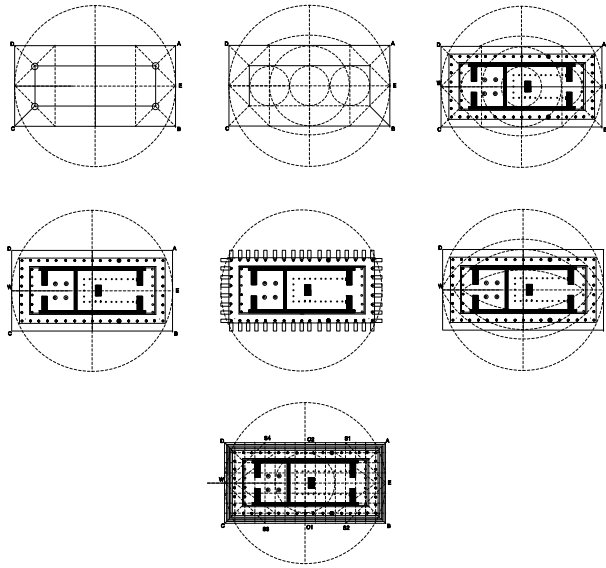


그림 12.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거북선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구성한 사각형 ABCD 중심부에는 거북이 형태의 육각형 S1ES2S3WS4이 자리 잡고 있다. 육각형의 중심부 형태는 마치 거북이 몸통과 같다. 이 육각형의 위치는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모서리 기둥 중심점과 일치한다. 육각형에 접해 있는 삼각형 ES1A를 비롯한 네 개의 삼각형은 거북이의 두 손과 두 다리를 상징한다. 네 개 삼각형의 중심인 A7, B7, C7, D7 등은 거북이의 손과 발 위치에 해당되며 동시에 신전 평면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서리 기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육각형은 파르테논 신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중심을 이루는 육각형 S1ES2S3WS4를 필자는 가칭 '그리스 거북이'라고 이름 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동쪽을 향하는 자세로 배치되어 있어 신전을 거북이로 해석할 경우 신전은 동쪽으로 헤엄쳐 나가는 거북이를 상징하게 된다. 1:2 비율의 사각형에서 1:3 비율의 사각형으로 변화되는 종교적인 과정을 그리스 거북이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내부는 전부와 후부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전 전면과 중앙부에 있는 넓은 방은 신상실이다. 신전의 구조를 배의 구조로 가상하면 신상실은 배의 선실을 의미한다. 후면의 방은 보물창고다. 보물창고 후면에는 벽이 없는데 이것은 마치 배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방으로서 벽이 없는 구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신전 내부는 항해하는 배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는 구도적으로 육각형의 그리스 거북이 형태를 한 배 구조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거북선'을 상징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구성한 네 개의 동심원을 연결하면 배의 갑판 형태가 나타난다. C-2는 신전 외곽의 중심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사각형 S1S2S3S4를 중심으로 하고 그 사측에 C-6e와 동측에 C-6w를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배 형태를 이룬다. 평면도를 배의 형태로 볼 경우

신전 외부 네 면에 있는 여러 개의 수직적인 기둥들은 갑판 위에 세워 놓은 노를 의미한다. 배 위의 노는 평상시에는 세워 놓으나 항해할 때에는 눕혀서 물을 저어야 한다. 항해 시에 순풍을 만나면 배는 노를 젓지 않고도 편안하게 항해하며 이때 노는 다시 수직으로 세워 둔다. 기둥을 눕혀 노로 사용할 경우 신전 벽에서부터 수면까지의 경사 거리는 노의 길이이며 이 길이는 기둥의 높이와 거의 일치한다. 해면과 벽 사이의 공간은 노를 젓는 공간이다. 기둥의 높이가 모두 같은 것은 하나의 배에서 노의 길이가 모두 동일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신전 건물에 기둥이 많은 것은 노와 사람이 많아 속도가 빠른 배임을 나타내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가로×세로 길이가 8M×16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 축의 8단위 길이는 1+6+1의 수식, 즉 6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에 각각 1의 공간을 결합한 수이다. 전체적으로 신전을 동쪽으로 헤엄쳐 나가는 거북이로 볼 때 거북이 몸통의 폭은 6으로 정하고 좌우의 1은 거북이가 손과 발을 움직여 헤엄치며 앞으로 나가기 위한 활동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간 개념에 의해 동서 축 16단위 길이를 1+14+1의 3단계로 구분한 것 역시 거북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1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기둥 높이는 10.43미터다. 노를 젓기 위해서는 바다와 배 사이에 노 젓는 공간이 필요하다. 사각형 ABCD 네 면에서부터 기도실의 북측이나 남측 벽까지는 약 2M의 거리가 있다. 예컨대 신전 북측 벽 Y10에서부터 해면선 Y12까지의 직선거리 2M은 $2 \times 4.8275 = 9.655$ 미터다. 10.43미터의 기둥을 배의 노와 같이 신전 밖으로 늘어뜨리면 노의 형태가 된다. 신전의 남측과 북측의 회랑 공간은 배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를 젓는 공간이며 동측 면과 북측 면의 공간은 배를 좌우로 회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그림 12〉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구성한 C-1a와 C-1b, 원 C-2a와 C-2b 등 여러 개의 타원은 물고기 형태를 이룬다. 01을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01K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2를 그린다. 같은 방법으로 02를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02K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2g를 그린다. 기존 선과 어울려 원 C-2와 C-2g는 물고기 형태를 이룬다.

〈그림 12〉에서 EsW는 배의 형태를, 삼각형 E 02W는 배의 돛 형태를 이룬다. 선실 형태의 e6a6d6w6은 평면도에서 기도실의 벽 위치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는 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해가 뜨는 동쪽으로 항해하는 배의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배의 형태가 거북이를 닮고 있는 것은 이 배가 거북이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인의 천지창조 신화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에 나타난 공간의 여러 가지 요소를 속에는 그리스인의 철학과 신화가 함축되어 있다. 원 C-1은 태양이 운행하는 궤적이

며 동시에 하늘을 의미한다.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다.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태양의 움직임은 원형으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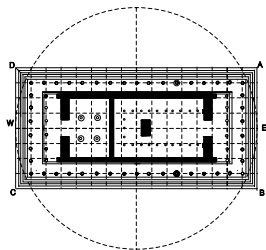


그림 13.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바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C-1에서 E는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하며 W는 해가 지는 서쪽의 경계를, S는 태양이 정오에 있는 위치를, 그리고 N은 야간에 있는 달의 위치를 의미한다. 8:16(=1:2) 비율의 직사각형 ABCD는 '해면(海面) 사각형', 즉 바다를 나타낸다.

바다는 물의 근원이며 바다 위에 태양이 있어야 평화롭다. 태양이 없는 바다는 암흑이며 공포의 바다다. 해면 사각형은 수평선 위에 태양의 일출 6시부터 일몰 6까지의 12시간 운동을 의미한다. 즉, 일출로부터 일몰까지의 태양 움직임은 수평선 길이 2, 반지름 1의 반원 형태를 이룬다. 반원의 상부를 수평선으로 연결하면 1×2 비율의 사각형을 그리게 된다. 그러므로 1:2 비율의 해면 사각형은 태양이 떠 있는 희망의 바다를 의미하며 밝은 태양 아래 생명이 약동하며 동시에 태양의 신이 사람에게 신성한 행운을 전해 주는 생명의 공간을 나타낸다.

1×2 비율의 해면은 배의 노가 바닷물에 닿는 위치를 말하기도 한다. 신전은 항해하는 배로 보고 배가 항해할 경우 노가 수면에 닿는 공간을 나타낸다. 파르테논 신전 네 면에는 둘러 있는 수평선의 계단은 배에 부딪치는 파도를 의미한다. 많은 계단은 파도가 많은 넓은 바다를 의미한다. 기단 위의 신전 바닥은 배의 갑판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인은 인생을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한 듯하다.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태양의 신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공간에 도달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은 파도를 가르면서 동쪽으로 항해하는 배의 형태를 상징한다.

기타의 형태 해석

피라미드 형태

〈그림 14-1〉에서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구성한 1:2 비율의 사각형 ABCD 내부에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연속적으로 서 있는 형태를 이룬다. 세 개의 피라미드 밑변은 12M이며 높이는 8M 이어서 12M:8M=6:4다. 밑변과 높이가 6:4 비율의 이등변삼각형은 3:4:5 비율의 두 직각삼각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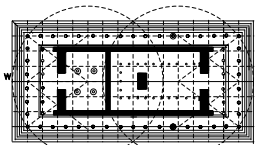


그림 14-1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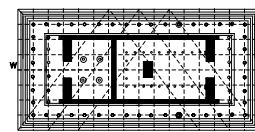


그림 14-2

〈그림 14-2〉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구성한 8:16 비율의 사각형을 ABCD 내부에는 반지름 길이가 5M인 원 2개가 중심부에 겹치면서 자리 잡고 있다. ABCD 네 모서리의 45도 사선과 두 원호의 교점은 파르테논 신전 네 모서리 기둥의 중심점과 일치한다. 이는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가 이 원호에 의해 출발한 것을 의미한다.²⁾

6:14 비율의 사각형은 중심부에 6×6의 정사각형과 좌우에 각각 6×4 비율의 사각형으로 구분 된다. 파르테논 신전의 6:14 비율의 사각형 내부에서 중심부의 6:6 사각형은 피라미드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피라미드를 구성한 3:4:5 비율의 직각삼각형 두 개를 합하면 6:4:5 비율의 이등변삼각형이 된다.³⁾

파르테논 신전 좌우의 6:4 비율의 사각형은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6:14 비율의 피라미드 평면도는 중심부의 피라미드 평면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양측에 6:4의 피라미드 입면 형태를 합친 비율이다. 즉,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동서 양면으로부터 피라미드의 보호를 받은 공간, 즉 영원한 하늘의 기운이 모여 있는 명당의 공간임을 상징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가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피라미드의 신비한 공간적 개념을 그리스인도 종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유대교 마크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주요 부분은 유대교의 심벌마크와 일치하고 있다. 유대교 심벌마크는 정삼각형 2개가 상하로 겹쳐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신전 동쪽과 서쪽 면 기둥들은 심벌마크의 정점을 연결한 선 위에 있다. 두 삼각형의 교점 e와w는 신전 기도실 벽과 출입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유대교의 심벌마크는 파르테논 신전의 가장 중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교의 심벌마크와 파르테논 신전의 기본 도형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유대교의 육각형은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형태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빛을 발산하는 태양의 형태는 필리포스 2세의 능을 비롯한 그리스 신전 여러 곳의 유물에 있는 문양에서도 발굴되었다. 유대교의 심벌마크를 구성한 육각형은 풍수지리 이론으로 분석해도 불의 형태를 의미한다. 유대교의 태양 심벌과 그리스인이 태양을 숭배한 것과 종교적으로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두 원호와 45도 대각선의 교점 Ac, Bc, Cc, Dc를 정하고 이 네 점을 연결하면 6:14 비율의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 기둥 중심선을 그리게 된다.

3) 평면도에서 Oe를 중심으로 하고 E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신전 동쪽 측면, 남쪽과 북쪽 모서리 기둥의 중심점 A와 B를 통과한다. 삼각형 ABOe는 3:4:5 비율의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같은 방법으로 Ow를 중심으로 하고 W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신전 서쪽 측면 모서리 기둥의 중심점 C와 D를 통과한다. 삼각형 CDOw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Oe와 Ow의 사이는 길이는 6M이 된다. 신전의 폭이 6M이므로 피라미드 사이는 정사각형을 이룬다. 평면도는 한 변 길이가 6M인 정사각형을 중심에 두고 양측에 피라미드의 형태를 연결한 형태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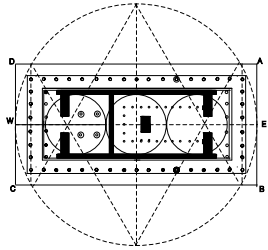


그림 15-1.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유대교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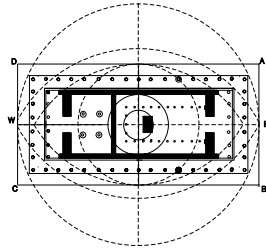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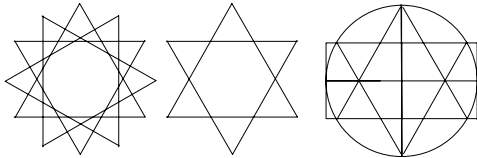


그림 15-2.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와 눈동자



편심원과 눈의 형태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동심원 이외에 여러 개의 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편심원의 종류는 C-1a부터 C-4a까지 다양하다.

C-1a는 반지름 8.98M으로 신전 내부벽 토대 모서리를 나타낸다.

C-2a는 반지름 8M으로 신전 벽면 모서리를 나타낸다.

C-3a는 반지름 6.4M으로 신전 벽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C-4a 반지름길이 4.94M 이며 신전 내부 사각형(QRST)의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평면도를 구성한 타원형은 각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의 타원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눈동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에서 C-1a와 C-1b는 사람의 눈꺼풀 형태이며 C-2a와 C-2b는 속눈꺼풀의 형태다. 따라서 두 원호의 교점 O5와 O6을 지름으로 하는 원 C-4a는 눈방울 형태를 이룬다. C-7은 눈동자를, C-8은 눈동자의 망막 형태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전체적으로 눈동자 형태를 이룬다.

수의 개념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에서 남북 축과 동서 축 길이의 비율은 3:7이다. 3과 7의 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3+7=10$ 이다. 그리스인은 사람의 신체가 신비한 비율로 구성되었다고 믿었다. 그중 10이라는 수는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나타나 있어 완성되고 성스러운 수라고 믿었다. 평면도를 3:7로 한 것은 신전이 가장 완전하고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를 구성한 16 역시 그리스인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숫자이다. $16=10+6$ 이다. 사람은 키는 발 길이의 6배이고, 팔 길이는 손 길이의 6배이며 손가락 길이의 24배다. 그래서 6이라는 수 역시 신비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파르테논 신전을 지으며 가장 완전한

수 10과 6을 더하여 16이라는 수를 사용했다. 신전 평면도의 16단위 길이는 전체적으로 신성한 수로 구성되었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사각형과 원형 평면도

파르테논 신전은 동서 축이 길고 이에 비해 남북 축이 짧아 3:7 비율의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평면은 원형 내부에 1:2 비율의 장방형 사각형으로부터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보아 사각형 중에서 가장 기하학적인 형태는 정사각형과 원형이다.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이 정사각형과 원형으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사각형이나 원형이 장방형 사각형보다 정확한 기하학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사각형과 원형의 파르테논신전 평면도를 가상하여 그리면 <그림 16>, <그림 17>과 같다.

정사각형의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계한다. O를 중심으로 하고 지름이 16M 되는 C-1을 그린다. 동심원으로 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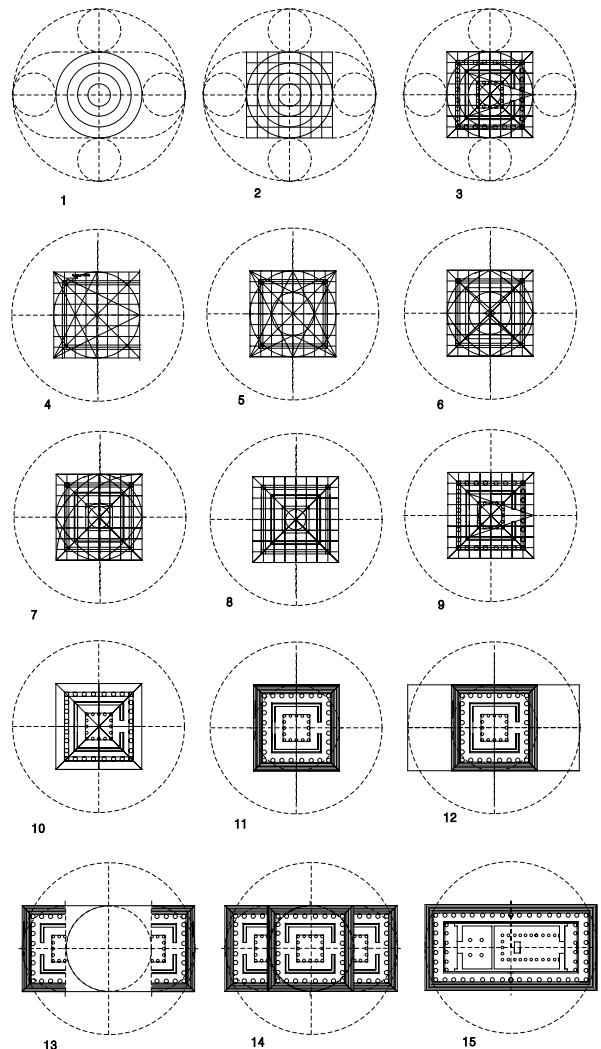


그림 16. 파르테논 신전 정사각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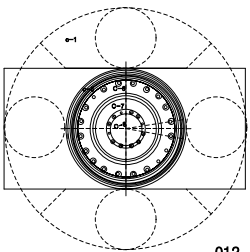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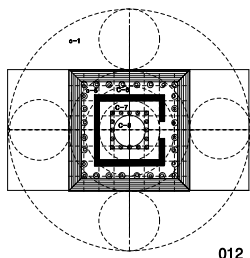


그림 17. 파르테논 신전 정사각형과 원형 평면도

이 8M 되는 원 C-5와 C-5의 외접 사각형 S1S2S3S4를 그린다. 사각형 S1S2S3S4의 네 면을 X-Y축에 따라 각각 8등분하고 등분된 선을 각각 X4~X12, Y4~Y12로 정한다. 사각형 S1S2S3S4의 네 면에서 S1S2의 O중심점 Oe와 S3S4의 중심점 Ow를 정한다. Y4~Y12까지의 8등분선이 중심선 Oc의 수직선과 만나는 교점 O1, O3, O5, O7, O8, O6, O4, O3, O1을 정한다.

사각형 S1S2S3S4의 중심

점 Oc에서 지름 6M의 C-6,

지름 4M의 C-7, 지름 2M의 C-8을 그린다. 동심원 C-6, 7, 8의 외접 사각형을 만든다. C-5의 외접 사각형 S1S2S3S4 기단의 하부로 해면 사각형이 된다. C-6의 외접 사각형 Sc-5(A2B2C2D2)는 신전 외부 기둥의 중심선이며 좌표 위에서 Y5, Y11, X5, X11선과 일치한다.

S-1 정사각형의 계단은 파도를 의미한다. 원 C-1과 사각형 S1S2S3S4 사이는 바닷물을 의미한다. 정사각형 건물 주변에 공간은 노를 젓기 위한 공간이다. E를 원의 중심점으로 하여 E-W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은 태양이 동쪽 E에서 비출 때 태양빛이 닿는 끝 부분의 위치를 의미한다.

C-5가 S1-Ow와 만나는 교점 S4a, S4-Oe와 만나는 교점 S4d를 정한다. S4a와 S4b를 연결하여 중심점 o의 45도 선과 만나는 교점 Sa와 Sd를 정한다. SaSd를 한 번으로 하는 정사각형 SaSbScSd의 Sc-4는 신전 계단 사각형으로 신전 기둥의 외곽선이며 계단의 상부선이 된다.

C-5가 O의 45 및 13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S6a, S6b, S6c, S6d를 정하고 서로 연결하여 사각형 Sc-6을 그린다. 사각형 Sc-6의 네 점은 신전 모퉁이 기둥이 된다. S5e에서 S4e까지의 거리 d1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S7e를 정한다. S7e에서 수직선을 올려 정사각형 Sc-7을 그린다. 사각형 Sc-7은 외곽 기둥 내부선이 된다. Sc-4와 Sc-6 사이는 기둥의 직경이 된다. 동서남북 네 면에 각각 기둥 8개씩 그린다. 기둥의 지름은 모퉁이 기둥의 지름은 1.92미터, 그 이외의 기둥 지름은 1.88미터다.

C-4의 외접 사각형 Sc-10을 X6, X10, Y6, Y10에 그린다. 사각형의 네 점 Q, R, S, T는 신전 내벽 모퉁이 점이 된다. S2를 중심으로 하고 S2S3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Cd-1을 그려 X7과 만나는 교점 S9d를 정한다. S9d의 수평 연장선으로 정사각형 Sc-9를 그린다. Sc-9는 신전 벽의 외부선이 된다. Sc-10과 Sc-9 사이는 벽의 두께가 된다.

O3을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O3T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YY'와 만나는 교점 O11을 정한다. O11을 수평 연장하여 정사각형 Sc-8을 그린다.

Sc-8은 내부 계단선이 된다. C-5의 외접 사각형 Sc-12의 네 점 Za, Zb, Zc, Zd는 신상실 내부 기둥의 위치를 나타낸다. O9를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O9Z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z-1을 그려 Y축과 만나는 교점 Zn을 정한다. Zn을 수평 연장하여 정사각형 Sc-11을 그리면 Sc-11은 신전 신상실 내부 기둥의 외부선이 된다. Sc-11과 Sc-12 사이는 신상실 기둥의 위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C-8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에는 신상실 내부기둥이, C-7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에는 기도실 벽이, C-6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에는 8개의 외부 기둥이, C-5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에는 기단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평면도를 동서 축으로 잡아당기면 현재의 파르테논 평면 형태를 이룬다. 즉, 평면도의 중심축 X8은 고정시키고 좌우는 1:2 비율이 되도록 잡아당긴다. 동쪽 측면에서 X12열의 S1과 S2는 X16의 A와 B에 일치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서쪽 측면 X4열의 S3과 S4는 X0열의 C와 D에 일치시킨다. X5의 기둥은 X1로, X11의 기둥은 X15로 이동된다. X2와 X14에는 제2열의 기둥들이 배치된다. Sc-8의 내부 계단 사각형은 2열 기둥과 함께 이동된다. 신상실의 내부의 벽들도 동서로 잡아 당겨 늘리면 파르테논 신전과 동일한 형태를 이룬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사각형이나 원형 평면도가 담고 있는 구조적 특징은 외부에 기둥의 열주가 둘러 서 있다는 점이다. 열주 다음에는 벽면이 네 면을 감싸고 있고 벽면의 출입구를 통해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에는 다시 열주가 원을 그리며 서 있다. 벽의 구조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가면서 기둥, 벽, 기둥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외부 기둥, 벽, 내부 기둥의 위치는 일정한 비율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배열에 의해 자리 잡고 있다. 위의 방법을 통하여 파르테논 신전은 정사각형으로부터 설계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최 동 호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
by Choi Dong-ho, KIRA

가촉성 건축미학

Tactile Architectural Aesthetics

고달사지 그리고 감은사지의 촉감

고달사지는 과거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끼 낀 그 옛날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난 세월의 공간은 지금 존재하는 '현재성의 공간'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과 어제의 '비어있음'이 공존하는 현재-내의-과거공간이 된 것이다. 그 흘러가 버린 시·공간과 지금 이 시점의 시·공간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만 삶의 형식으로 인하여 변해 버린 시대라는 시간적 층위로 인한 차이를 말하는 것인가?

'과거성'을 말하는 고달사는, 존재론적으로는 더욱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다만 세월의 흔적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의 존재 형식만이 있는—그 찬란한 역사의 표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코오라(chora)적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터의 공간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건축사 속에서의 '의미의 공간'으로서 지난 사실의 엄청난 사건 속에서의 존재자와 접촉하는 떨림을 맞볼 수 있다. 그것은 건축이라는 형식을 넘어서는, 역사를 초월하고 건축 사적이라는 학문적 담론을 훨씬 뛰어넘는, 아니면 문학적·미학적 지평까지도 넘어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위에 존재하는 그 '있음'이 있다. 그 생명력의 터치가 고달사에는 존재한다.

그 존재자는 쓸쓸하지만 가슴 찡하는 횡랑한 바람소리일 수도 있고, 역사의 파편일지라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잔잔한 흔적일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천년이 넘는 그때의 그 사실성과 진정성이 훼손 없이 잔존해 있는 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몇 점 문화재의 화강석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사라지고 터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주춧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은 없다. 과거라는 것은 과거론적 존재이고 그것에서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존재자들의 숨소리들이다. 그것들이 비밀스런 것이어서 오늘날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그대로 우리의 손으로 전해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와 손끝으로 답하게 한다. 이것을 황량한 촉각적 미적 쾌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고달사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지(址)'는 비어 있는 것이지만 그 공간의 의미 속에 남아 있는 파편들이 전해오는 것은 존재를 뛰어 넘는 초월적 촉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의 살아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오히려 무의 현재를 과거의 있음으로서 읽어내는 것은 존재 너머의 지평을 넘보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존성이 그대로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이 각별함을 가진다. 왜일까? 왜 그 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터'의 빈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음인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는 건물과 유물의 존재론적 유·무형의 가치를 전문가들은 상형문자의 해독과 같은 그 엄청난 발견을 위하여 아직도 몰두하고 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함은 역사의 해석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한국 건축의 아이덴티티의 사실적 존재증명일 것이다.

경주의 감은사지(感恩寺址)를 보자. 꽤 큰 스케일과 세련미를 갖춘 동·서탑의 조형미와 평온한 금당(金堂)터로 남겨진 그 빈터의 공간적 신비함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보통 석탑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동탑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진다. 물론 석탑은 탑 자체만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비어 있음까지도 포함한 입체적 공간성을 포함시킨 스케치임은 분명하다. 물론 이것의 이치는 '회화적'인 것이 아니라 '선적'인 표현으로서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동해 바다와 들판이 펼쳐진 주변 풍광을 가진 그 석탑의 배경 속에서 존재하는 천년의 자존심을 우리는 역사성을 헤아리는 촉각적인 실력으로써 감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신라인의 정념은 지금 우리의 가촉성을 통하여 오늘 현재-내-과거성의 혼을 토해내고 있다.

땅의 운명은 촉각적인가?

땅에서 건축이 이루어진다. 땅은 건축이라는 존재자의 존재이다. 그리고 땅은 깊이 건축이라는 존재자를 받아들인다. 땅은 존재론적 시간의 숭고한 아픔을 가지고 산고의 고통을 감내한다. 건축은 이렇게 땅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건축의 땅은 건축 존재의 존재자의 숙명이다. 그래서 땅은 흙이라는 존재자를 가지고 있다. 흙은 가히 촉각적인 재료이다. 더욱이 한

국성 건축공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안마당이 흙바닥이었다는 사실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잘 나타나 있다. 흙은 세계-내-존재로서의 세계적인 재료이고, 인간 존재의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건축이라는 운명적인 만남은 '접촉한다'라는 동사적인 부딪침으로 인하여 충돌한다. 그래서 건축은 땅이고, 흙이고, 접촉이고, 부딪침이고, 포옹이 된다. 건축을 가슴으로 안게 되면 건축을 만져야 한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은 촉각성 미학이라는 쾌를 통하여 향기 나도록 우리에게 그 존재 양태의 살 속을 드러내 보인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사물의 '외양'을 아무리 날카롭게 바라본다고 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손안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이론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손안에 있음의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감촉성의 도시미학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도시화는 비 물질성의 건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료적인 몸체가 광상 매체로서의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밤의 도시는 더욱 다양한 매체 덕분에 빛의 도시화를 이루고 있다. 볼츠는 "건축은 전자적, 음향적 그리고 시각적 사건들의 미학적 형상화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예술의 종말'이라는 현대 미술의 담론에서만 보더라도 예술의 형식이 사라진 지금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표현하는 현대도시의 공간 예술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갈 것인가는 예측하기 힘들다. 도시라는 공간은 또 하나의 예술로서 빛어내야 하는 진보적 예술적 프로젝트로서 빛, 소리와 같은 매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도시에서 건축은 '단일기호'로서 표기되기도 한다.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촉각적 수용 문제를 다룬다. 특히 그는 "건축의 수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사용과 지각, 더 정확히 말하면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건축은 눈 맛 뿐만이 아니라 손맛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시각적 촉각성의 속성을 갖는 건축이 그 맛의 미학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순한 건축공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서의 가시적 촉감의 이미지로 보았다. 그러한 형상은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그손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물질이란 이미지의 전체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벤야민은 "대중의 파손된 지각은 이제 전적으로 촉감에 의해 지배당하는 미학(aiththesis)의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하였고,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인 '아케이드 프로젝트(Passagen-Werk)'는 19세기 파리에서 형성되던 산업문화에 대한 연구 과제였는데, 도시의 시각적 촉각성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파리 시가지의 파사주(Passage-아케이드)에 대해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지각 구조의 변화를 예감한 부분이다. 특히 컴퓨터 공간은 통각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매체로서 새로운 가상의 촉각적 공간이 되었다. 도시는 대중적, 집단적 체험의 장으로서의 지각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감촉성(taktilitat)이라는 주제는 미학에서 시형식(Sehform)개념 형성을 통하여 보통 피들러-힐데브란트-리글-벨프린으로 이어진다. 시형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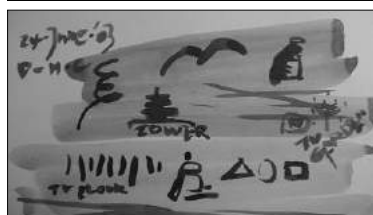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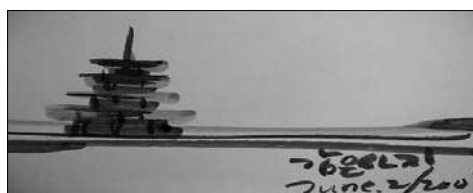
고달사지와 원종대사해진탑비귀부(龜趺) 및 이수를 통하여 '그 자리의 살아있음'을 읽어낸다.

가시성의 개념은, 시각은 이제 눈과 손의 관계에서 촉각의 신뢰로 넘어가게 된다. 피들러는 “인간에게 있어서 손이 행하는 일은 확실히 눈의 눈부신 활동에 비한다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인간은 곧 어떤 졸렬한 회화적 묘사의 시도에도 무엇인가 눈의 시각을 능가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예술적 활동의 근원에 관하여).”라는 촉각성 형식을 강조한다. 특히 빌프린의 다섯 가지 개념 쌍 가운데에서 선적(소묘적, 조각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촉각상과 시각상을 살펴보면, ‘선적 표현’이 가까워서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표현’하려는데 반하여, ‘회화적 표현’은 멀리서 ‘사물을 드러내는 대로 파악’한데서 온 결과이다. 그런 만큼 선적인 것은 ‘가촉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반면, ‘회화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종종 원 형태와는 거의 유사성이 없게끔 되어버린 ‘주관적인 시각상’ 즉 ‘주관적인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빌프린의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의 표현방식은 피들러의 ‘촉각이 지니는 일반적인 감성적 지각능력’과 ‘직관능력’의 분화과정을 인정함으로써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홍준화, 조형예술의 시형식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다.

청계천과 같은 프로젝트는 복원이라는 시각적 유희성의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지각구조의 원래적인 자리의 ‘존재론적 발견’을 이룩하여 놓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계천이라는 공간성은 도시 구조에서 보면 엄밀히 촉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학의 공간’에서 브랑소가 이야기하는 “보고자 하는 그것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감촉으로 당신을 건드리는 듯 할 때, 또는 보는 방식 그 자체가 일종의 감각적인 접촉일 때...” 이러한 무엇인가 모를 이미지의 접촉이 분명 어떤 터치를 유발하는 동인이 될 때 청계천은 우리의 가슴에서 매혹적인 감촉적 공간으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 도시는 건물을 감싸는 표피는 물론 내부공간에 이르기까지 더욱 촉각성적인 재료의 선택적 고심이 필요할 것이다.

가촉성의 질료

플라톤은 『티마이오스』편에서 ‘운동근육’에 관한 운동 체험을 타자가 아닌 자기 지각의 촉각성을 강조한다. 즉 운동근육은 자기 근육으로 생성되어



감은사의 공간에 서면 신라를 보는 것과 같다.-감은사 석탑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듯이 서 있다. 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플라톤의 ‘형면’에서 ‘아름다움의 큰 바다로 나아가’(symp.210d) 듯이 문무대왕이 잠들어 있는 수중 능의 동해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동과 가장 유사하니까요.(중략) 가장 언짢은 것은 외부의 힘으로 일부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Tim.89a) 그렇다고 본다면 건축에서의 인간은 타자가 아닌 그 자체의 촉각적 근육 감각의 자기 신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적 사물’은 질료(hyle)와 형상(eidos)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다. 그의 ‘형이상학’에는 질료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목적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는 ‘집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시몬(베르그손)에서는, “우아함이라는 느낌 속에는 일종의 신체적 공감이 들어가 있으며, 그러한 공감의 매력을 분석해 보면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신체적 공감이 미묘하게 그 관념을 암시하고 있는 정신적 공감과의 인접성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한국 최초의 미학자인 고유섭은 『조선미술문화의 몇 날 성격』(1940년)에서 한국미의 특성을 여러 갈래로 분석한다. 즉 그는 다양성/다채성/무중심성/무통일성/허랑성/부허성/순박/온아함/단아함/질박/담소/무기교의 기교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건축에 나타난 감촉적 매체를 살펴보면, 가시성 촉각적 표현은 질박미(質朴美)인 것 같다. 이 의미는 한국 건축의 질료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통건축에서 보여준 질감적 가촉성의 공간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미학을 꿰뚫어 보는 보배 같은 책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최순우 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촉각적 매체성의 미학의 글을 아름답게 펼쳐 보인다. 즉, “[연경당-가을소리 빗소리에 낙엽이 촉촉이 젖는 하오 육간대청에 스란치마를/ 도자기-백옥같이 갓 맑은 살결의 감촉/ 분청사기-거친 살결에 분을 바르는 화강술/ 부석사-오색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가를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화강석-돌의 살결은 비바람에 씻기어 적당히 부드러워졌고, 굳은 화강석을 사뭇 딱 주무르듯 다루어 낸 신라의 조각가들]”이라는 소름끼치도록 미적 심안으로만 볼 수 있는 표현을 한 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훑쳐볼 수 있다.

건축가는 그리스어로는 예술가라는 뜻으로 ‘architekto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rchitektinike’는 ‘종합적 조형예술’이 된다. 장인(匠人)이라는 뜻을 갖는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는 원숙한 경지에 오르면 아키테크톤이 된다. 그런데 데미우르고스는 선(善)한(agatos) 건축가였다. 그는 선의 이데아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미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건축가였다. 고유섭과 최순우 같은 학자들의 해안은 다른 아닌 선한 이데아를 심안으로서 바라본 한국의 미학자들이다. 이제 시각적 쾌락만이 아니라, 촉각적 쾌감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은 쾌감을 이야기 하여야 하며, 물론 쾌감 없이는 미라고 할 수 없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고 물었다. 쾌감이라고 하였다. 즉 선의 이데아가 쾌감으로 나타난다. 圖

협회소식_kira news

이근창 우리협회 부회장,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차기 회장 당선

이근창(우리협회 부회장/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지난 11월 30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아카시아, 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창설되어 현재 아시아 17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한 아시아 건축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국 및 동북아시아의 건축사가 회장으로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근창 아카시아 차기회장 당선자는 2006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인수받을 예정이며, 회장임기는 2년이다. 그 기간까지는 회장 당선자(Chairman elect)로서 각종 건축 설계관련 국제기구 및 아카시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이근창 아카시아 차기회장 주요 약력〉



- 1949년생
- 1971년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1999년 서울대학교 제1기 건설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부회장(2000-2002)
- 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현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이사
- 현 건설교통부 건축사자격 심의위원회 위원
- 현 건축설계분야 WTO 대책위원회 위원

『정관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 서당동에 소재한 대한건축학회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 개정(안)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으며, 전영철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강희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심우석 법제위원회 위원, 이종정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최찬환 명예이사, 사회자로 박종철 법제위원이 참석했다.

공청회 결과 논의된 의견들과 공람기간 중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재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법제위원회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회원 공람 절차를 다시 갖기로 하였다. (16, 105쪽 참조)

목조건축기술 관련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와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25일(화) 오후 3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에서 Oliver Drarup(국제기술교육단장)과 Glenn Webb(CMHC 한국지역 담당자), 주한 캐나다대사관 이희송 상무관, 수행 및 통역 유재원(우리협회 건축학교 대표)씨 등 4명이 내방해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 및 국제위원회 이영수 이사, 김지덕 전문위원, 건축위원회 이창섭 이사, 교육·시험위원회 정명옥 이사와 박영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협회는 목조건축기술(Super E-Housing) 이전에 관련하여 캐나다의 목조건축기술(Super E-Housing)의 Know-how를 한국에 전수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CMHC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2006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되는 「경향하우징페어」 행사기간 중 캐나다 목조건축기술에 관한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CMHC는 동 행사기간 중 COEX에서 개최되는 교육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와 CMHC간에 체결된 교류협정에 따라 매년 진행되고 있는 회의 및 행사에 우리협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에 따라 CMHC는 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목조건축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협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

■ 제14회 이사회

2005년도 제14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설계·감리 분리 문제에 대한 대책의 건, APEC 건축사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발코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협회 사무실 임대차 기간 연장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에 대한 대책의 건, 정관 개정방안에 대한 공람 실시의 건, PQ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남북 건축문화 교류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설계·감리 분리 문제에 대한 대책의 건
-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 의원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함.

의원 입 법 안	수 정 안
第21條(建築物의 工事監理)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다신설>	第21條(建築物의 工事監理)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다소정신설>

- 제2호의안 : APEC 건축사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APEC 건축사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 심사위원회 구성(10명)
 - 위원장 : 송기덕
 - 위 원
 - 대한건축사협회(3명)
 - 건설교통부(1명, 건축기획팀장 당연직), 한국건축가협회(2명)
 - 대한건축학회(2명),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1명)

- 제3호의안 : 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 협회의 영문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발코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발코니 제도개선 토론회를 금년 안으로 개최기로 함.

- 제5호의안 : 협회 사무실 임대차 기간 연장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 ▷ 계약기간

- 당 초 : 2004. 3. 27 ~ 2006. 3. 26 (24개월)

- 변 경 : 2004. 3. 27 ~ 2006. 10. 31 (31개월)

▲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에 대한 대

책의 건

-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가 회장 임기내에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 정책개발 T.F팀에서는 내년 1/4분기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 ▷ 유사시에는, 정책개발 T.F팀에서 제안한 대책방안에 따라 적극 대응

- 제2호 : 정관 개정방안에 대한 공람 실시의 건
- 법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2005. 11. 15~30일까지 회원 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 공람 공고(안) 중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시행

- 제3호 : PQ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건축설계용역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논리개발 및 대안 마련 등 세부 사항은 담당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 : 남북 건축문화 교류에 관한 건
- 남북 건축문화 교류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실천방안 등을 국제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기로 함.
- ▷ 필요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사항

-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사회문제화되지 않도록 본협회에서도 노력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의 정부위탁업무를 본협회가 수행하는 문제는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기로 함.

위원회 회의

■ 제3회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제3회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 자재의 분류, 인증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구성은 자재정보 개발시 참여한 자와 위원 1~2인 정도가 참여기로 함.

■ 제20회 정책개발 T·F팀

제20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4일 오전10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 현수막, 팸렛 및 어깨띠 문안을 협의함.
 - 토론회를 마친 후 성명서를 낭독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차기회의시 위원을 각자가 제시한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제21회 정책개발 T·F팀

제21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24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과 '건설업체 설계검업' 관련 공청회 후속 대책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
 - 10개의 과제를 아래와 선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여 예산 편성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① 건축사법 전면 개정사업

② 건축문화전당 사업(중·장기적으로 검토 : 20년정도 소요)

- ③ 대한건축사협회 신문발간사업
- ④ 홈페이지 시설확충 방송사업
- ⑤ 건축사 수련원 관련 사업
- ⑥ 대외협력단 구성사업
- ⑦ 동아리 지원사업
- ⑧ 건축편람집 발간사업
- ⑨ 회원 고충처리 지원사업
- ⑩ 건축사 저작권 보호사업

• 제2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관련 공청회 후속 대책에 관한 건

- 박철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및 이성규 규제개혁기획단 1팀장에게 정책개발 TF팀 위원(2~3명)이 직접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사이버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토록 시도건축사회에 협조·요청기로 함.

■ 제22회 정책개발 T·F팀

제22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 대책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문제' 대책에 관한 건
 - ① 논리적 대응 -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② 정치적 대응 -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함.
 - ③ 투쟁적 대응 - 전문가격자그룹(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협회)과 NGO 단체(소비자단체, 경실련, YMCA 등) 및 건축학과(5년제)와 연대하여 투쟁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은 9개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함.

- ① 건축사법 전면 개정사업
- ② 건축문화전당 사업
- ③ 대한건축사협회 신문발간사업
- ④ 홈페이지 시설확충 방송사업
- ⑤ 건축사 수련원 관련 사업
- ⑥ 대외협력단 구성사업
- ⑦ 지원사업
- ⑧ 건축편람집 발간사업
- ⑨ 회원 고충처리 지원사업
- ⑩ 대북교류사업

■ 제10회 법제위원회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감리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사감리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 공사감리계약서(안)의 내용(제조~제28조)을 축소심의하고,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민노당의 공사감리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22일 민노당과의 토론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단답형으로 정리해서 법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보내기로 함.
- 정관개정(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기로 하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명수 이사과 협의하기로 함.
 - ▷ 일시 : 2005년 10월 27일~29일(2박 3일)
 - ▷ 장소 : 서울근교

■ 제11회 법제위원회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노당 공사감리개정(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과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정관 개정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민노당 공사감리개정(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 민노당에 제출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구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 제4조, 제9조, 제18조, 별표의 개정안중 일부를 수정·보완함.
- 제3호 : 정관 개정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 워크샵 이전까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워크샵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의, 발코니 확장 허용에 관한 본협회의 의견도출에 대한 협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의
 -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감리문제 해결방안이 우선 선 강구되어야 함.
- 제2호 : 발코니확장 허용에 관한 본협회의 의견도출에 대한 협의
 - 건설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간담회(11월 4일)에 박종철, 김상호 위원이 참석하여 발코니 기능에 대한 원론적인 협의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간담회는 취소됨)
- 제3호 :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문안조정에 관한 건
 - 제3조, 제4조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축조

심의함.

▲ 기타사항

- 워크샵에서 정리된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제안배경을 시도건축사회 회의(11월 4일) 및 이사회(11월 8일)에 보고하기로 함.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건축사 업무 시행방안에 관한 건, 제9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몽고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 국제기술교육단장 방문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APEC건축사 업무 시행방안에 관한 건
 - 운영지침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작성하기로 함.
 -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기로 하고, 본 협회의 참가위원은 이근창 부회장 및 김지덕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추천하기로 함.
 -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11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 제9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에 관한 건
 - 각 발표주제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발표자료에 대한 진행상황 및 발표방향, 보충사항, 준비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제3호 : 몽고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 초청일정에 대하여 업무를 분장함.
- 제4호 :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 국제기술교육단장 방문에 관한 건
 -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 방문시 관련 위원회(국제위원회, 건축위원회, 교육·시험위원회)에서 참석하기로 함.
 - 관련 세미나 및 교육 등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국제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제6회 정보관리위원회

제6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설계 정보도구 사용자그룹」 운영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설계 정보도구 사용자그룹」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설계 정보도구 사용자그룹 운영은 2006년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를 정하여 추진기로 함.
 - S/W사용에 있어 회원들의 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CAD관련 업체 및 회원들을 상대로 의식조사,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신현기, 노중기, 박경배 위원이 맡아 추진기로 함.
 - 건축사시험 CAD프로그램의 개발은 건축사시험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한국형 차세대 설계도구”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본 협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고일두 위원이 맡아 추진기로 함.
 - 건축법규 가이드라인의 작성은 인의식 위원이 맡아 방향성 및 범위를 정하여 추진기로 함.
 - 2005년 11월 3일까지 위원들 각자가 맡은 사항에 대해 제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09일(수)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3회 교육시험위원회

제3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교육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호 : 건축사교육에 관한 건

-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은 4박 5일로 하며, 교육주제에 대한 내용은 김길영 위원이 검토하고, 강사선정은 위원들이 검토해서 10월 27(목)까지 의견을 주기로 함.

■ 제3회 건축위원회

제3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4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대한 해설집」에 관한 건,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건축설계 표준하도급계약서(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호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대한 해설집」에 관한 건
 -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여, 도해부분 등 보완할 부분을 검토한 후 연구자에게 전달하기로 함.
 - 연구 완료기한을 연기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은 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① 전통건축자료집 발간 및 복간사업
 - ② 건축문화 답사기행
 - ③ 실내건축 리모델링제도 정립
 - ④ 저작권 보호방안
- 제3호 : 건축설계 표준하도급계약서(안)에 관한 건
 - 제9조(용역대가의 지급), 제9조2(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 제10조(용역대가의 조정),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조정) 등의 조문 수정 및 삭제에 건의하며, 제16조(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담당이사와의 협의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기타사항

- CMHC(캐나다 주택저당공사)가 내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우리협회가 협조할지에 대해서 10월 25일 설명회에 건축위원들이 참석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정하도록 함.

■ 제5회 여성건축사위원회

제5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여성건축사 대의원 구성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 일정을 2006. 5. 12(금) ~ 2006. 5. 13(토)으로 확정함.
 - 대회책자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하여 대회책자외의 홍보책자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함.
 - 내년 대회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초대하여 함께 청계천을 걷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견학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
- 제2호 : 여성건축사 대의원 구성에 관한 건
 - 지역별 대의원 대비 10%이상의 여성대의원 할당제를 적용토록 하는 정관 개정 의견을 법제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여성건축사 인터넷 카페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 제1회 예산편성위원회

제6회 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건
 -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단계로 시도건축사회와 본협회 각 위원회 등에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의견을 요청하여 '05. 10. 28일까지 제출받고, 수렴된 의견을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2006년에 추진할 사업을 홍보한 후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 2006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으로 서울건축사회 현임 임원 한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

■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실무작업 업무분담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공제사업 실무작업 업무분담에 관한 건
 - 건축사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공제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을 다음과 같이 위원별로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함.
 - 공제사업관련 정관개정(안) 작성 : 안택영 부위원장
 - 공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홍문유 위원
 - 공제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안) 작성 : 박근만 위원
- 제2호 : 200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 건축사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도 공제사업위원회 예산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위원장이 작성 제출하기로 함.
 - 〈공제사업 예산요구안 결정〉
 - ▷ 전담직원 1명 인건비
 - ▷ 공청회 개최경비(장소임차료, 토론자수당, 자료제작비 등)
 - ▷ 자료조사비 및 최종보고서 작성비

■ 제1회 협회발전위원회 정관소위원회

제1회 협회발전위원회 정관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방향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방향에 관한 건
 -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황근욱 위원이 24일 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협회발전위원회 정관소위원회(안)으로서 법제위원회에 제출기로 함

■ 제3회 회원협력위원회

제3회 회원협력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2006년도에 회원교류 및 문화체육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해당 사업별로 소위원회 형태로 구분하여 관련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기로 함
 - ① 건축사 취미작품전시회 개최 사업
 - ②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축구경기대회 개최 사업
 - ③ 전국건축사 등산대회 개최 사업

건축계소식 archi-net

제13차 아카시아 포럼

조린현(김효만 건축사)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

제13차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m 13)이 'Simplicity & Complexity'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협회 이철호 회장을 비롯한 11인의 대표가 공식일정에 참석했으며, 우리협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으로 구성된 23인의 참관단 및 2004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학생대표로 선발된 2인의 학생대표가 아카시아 포럼과 아카시아 건축상 참관을 위해 동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태국의 Sumet Jumsai 건축사가 Keynote Speaker로 나서 'Simplicity & Complexity'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으며,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12명의 유명 건축사가 이틀에 걸쳐 발표를 했다. 특히, 승효상 건축사는 한국을 대표해 서양과 동양의 건축을 비교하면서 중심적인 건축보다는 다중심적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건축을 대표작과 아울러 소개했다.



▲ 수상작 / 조린현
· 김효만
▶ 수상작 전시회



한편, 제13차 아카시아 포럼 행사에 앞서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26차 아카시아 이사회(26th ARCASIA Council Meeting)에서 우리협회 이근창 부회장이 한국 및 동북아시아의 건축사로서는 처음으로 아카시아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아카시아 건축상 발표에서는 한국의 김효만 건축사(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가 작품 '조린현'으로 A-2부문(Multiple-Family Residential)에서 아카시아 건축상을 수상했다.

2005대한민국건축제 성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05대한민국건축제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됐다.

'건축,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건축제는 전문가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번 건축제의 전시공간은 전인호씨가 총연출을 맡아 골목길을 걷는 듯 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독특한 공간의 느낌을 전달했다.

이번 건축제에는 한국건축가협회상과 서울시랑시민상, 무라이 오사무 건축사진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건축아카데미 및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하재',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무학교회', '남양알로에 에코넷센터', '곤지암주택', '상상사진관'이 선정됐다. 또한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의 대상에는 '도심 근대화 공모'를 주제로 한 천종훈(홍익대 졸)씨가, 우수상에는 이경생(홍익대 대학원)씨, 임권웅·김현정(인하대)팀, 박주현·손준서(경기대)팀, 김영수·최영철(인하대)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한민국건축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순회전시를 통해 축제의 활성화 및 해외 건축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남양주에 에코넷센터/유석연



무학교회 / 김정식



상상사진관 / 문훈



자하재 / 김영준



임진각 평화누리 / 민현식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유걸



곤지암주택 / 정진국

녹색대학교 대학원 생태건축학과 모집

녹색대학교는 생태적인 조화를 가치로 내세우

고 실천하는 대안대학으로서 올해로 3기 새내기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일반과정으로 15~20명, 교수진은 조성룡, 정기용, 조경만, 최옥, 황혜주, 이종원, 신근식 교수이다.

문의 : 063-323-3379 www.green.ac.kr

2005~2006 KNUA/SA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개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는 오는 2006년 1월 7일(토)부터 13일(금)까지 일주일간 'The URBAN OASIS with Goetz Stoeckmann'라는 주제로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축과 학부,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은 A4 2매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30만원이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문의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02-958-2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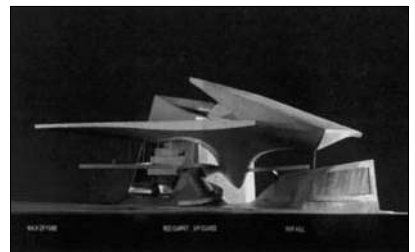
부산영상센터공모전 '쿵 힘멜블라우' 당선

지난 10월 외국건축가 지명현상 설계로 진행되었던 부산영상센터 공모전은 당선안을 내지 못하고 쿵 힘멜블라우, 텐 아키텍츠, 스티븐 홀의 3작품을 우선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 심사에서 '쿵 힘멜블라우'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종 심사에는 안준배 부산 정무시장과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신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집행위원장, 오닐데크 프랑스 오닐데크건축사사무소 대표, 크리스틴 할리 런던 대학교 UCL 건축대학장, 이츠코 하세가와 일본 하세가와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했으며,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건물 이미지,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한 공간활용,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당선작은 부지 32,106㎡에 연면적 27,655㎡ 규모로 외벽과 지붕 등 건물전체가 스크린이 되는 '미디어 플랫폼'을 개념으로 삼았다. 원뿔형 구조물 2개가 세워진 형태로 전용상영관이 들어서게 될 '시네마 마운틴'과 PFF조직위원회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될 '마운틴 할'이 주요 공간이다. 또 건물 천장은 2개의 경사진 거대한 평면판처럼 만들어져 태양열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부산영상센터는 12월 중 당선작가와 협업할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7월경 설계 도서를 납품 받아 12월 착공, 2008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쿵 힘멜블라우의 당선안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연기

지난 7월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서울공연예술센터)의 착공이 오는 2008년으로 연기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2006년 6월 중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또 사업방식도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의 당선자 다섯 명과 세 명의 지명 건축가가 컨소시엄을 선정할 후 최자가 시공업체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명된 세명의 건축가(도미니크 빠로, 장 누벨, 산티에고 칼라트라바) 중 산티에고 칼라트라바가 입찰 의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한 모든 작품을 엮어 작품을 책으로 출간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작품집

예가건축,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주)예가건축사사무소(서광원 회원)는 부산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주)예가건축사사무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장기적 경영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기업교육 및 연수전문기관인 한국리더십센터 방영원 교수가 초청되어 3시간에 걸쳐 '조직혁신과 경영전략'을 강연하였으며, 이후 시간은 공통주제 혁신, 선택과 집중, 블루오션에 대한 토의와 부서별 현안문제에 대해 자정을 넘어서 까지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2일차 세미나에서는 전날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예가의 경영전략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의 혁신(Think & Organization Innovation)을 통하여 Blue Ocean 경영전략을 도입한 시장의 확대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도전정신

과 뜨거운 열정으로 21C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세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계획된 해외 건축탐방 시 경영전략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6년 러시아 국제 건축박람회 (Interstroyexpo '2006)



2006 러시아 국제 건축박람회(Interstroyexpo '2006)가 2006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Lenexpo에서 개최된다.

인터스트로이엑스포는 최근 2004년 GDP 5,823.9억 달러의 규모와 경제성장률 7.1% 증가로 경제가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건축경기도 되살아나 개방이후 최대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러시아의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자 가장 큰 규모의 건축 관련 전문박람회중 하나이다.

건축자재, 창호/도어, 전기, 공구/장비, 지붕

재, 욕실/주방, 인테리어 장식/마감재, 빌딩 등 건축관련 모든 제품이 전시되는 본 박람회에 러시아 건축자재 업체 중 60%이상이 매년 본 박람회에 꾸준히 출품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건축 관련 전문 바이어들이 본 행사를 방문하고 있어 러시아 북서 지방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4월에 개최되었던 행사에는 18,000sqm의 전시면적에, 23개국 794업체가 참여했으며, 행사기간동안 34개국에서 76,000여명의 건축 관련 전문인들이 방문한 바 있다.

문의 : SBA Korea 02-725-4080

(주)고령기와, 동종 업계 최초 'ISO 14001' 취득



(주)고령기와(대표 이사 김은동)는 지난 11월 11일 동종 업계로는 최초로 '점토기와의 생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서(ISO 14001)를 취득(인증번호 EMS-0216)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규격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환경경영위원회(TC 207)에서 개발한 ISO 14000 시리즈 규격중 하나로써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 유지, 개선, 보증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직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기본조건을 요구하며 환경방침, 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실시상황에 대한 감시,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점토기와를 생산하고 서비스함에 있어서 환경경영으로 모범을 보이게 될 고령기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 서비스하고자 ISO 규격에 맞는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

했다.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과 환경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고객기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령기와 서울사무소 02-412-3101

AutoCAD, “Cambashi Limited, 평가” 공개

Autodesk, Inc.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AutoCAD 2006 소프트웨어의 향상된 기능들이 건축사 및 설계 전문가가 더욱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Cambashi Limited의 연구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Cambashi Limited는 최근 실시한 연구에서 AutoCAD 2006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 이전 버전 AutoCAD보다 무려 29%나 빨리 설계 및 문서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고, 더욱 강력해진 AutoCAD 2006을 통해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AutoCAD 2006은 동적 블록 작성을 비롯한 새로운 기능들, 보다 향상된 해칭 및 테이블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보장한다. 또한 AutoCAD 2006은 전형적인 주거용 바닥 평면에서의 상세도 작성과 스케줄링에 기반한 연습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AutoCAD 기능 및 새로워진 기능에 대한 활용법을 담고 있다.

이번 Cambashi Limited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는 www.autodesk.com/autocadproductiv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간

디지털 · 디자인 · 건축

신간 「디지털 · 디자인 · 건축」은 디지털과 건축과의 관계 맺기에 열중하고 있는 필자가 디지털건축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디지털 건축이 현대건축철학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디지털매체를 표현위주의 스킬로만 이용하고 있음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저술한 책이다.

필자는 디지털 디자인 건축은 이제 더 이상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3D나 4D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가시화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성이 주제가 되어야 하며, 인간들의 삶이 묻어나는 진정한 흐름의 건축, 생성의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개념설정단계는 물론 설정한 개념을 발전시켜 형태화 공간화 하는 과정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여러 기법들을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강 훈 지음/172쪽/13,000원/도서출판 비온후 발행
051-464-41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위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우리협회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이 개정안은 우리협회 법제위원회 안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명 칭	대한건축사협회(본 협회)		대한건축사협회(본 협회)
	목 적	건축사 권익, 품위보전, 단결, 친목, 건축기술의 연구개발, 건축문화발전 등		미래지향적, 국민의 건축이해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등 추가
	사 업	15개 사업을 정함		건축관련 신문, 방송, 통신사업 등 5개 사업 추가
제 2 장 회 원	명예회원	이사회 추대를 받은 자		회장이 인정한 자
	입 회 절 차	- 신 설 -		입회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신고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함(시·도 건축사회의 의견을 신고관리규정에서 수용토록 함)
	자격상실	제명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본 협회에 입회 가능		회비미납으로 인한 제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 3 장 총 회	소 집	임시총회 요구시,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임시총회 요구시,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이행
	대의원	회원 20인당 1인, 임기 2년		현행과 같음
	임 원 불신임	- 신 설 -		불신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신 설 -		회장 불신임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장을 정하도록 함.
제 4 장 임 원	임 원	이사 17인(회장, 부회장 포함) 회장, 부회장, 감사 변함없음		이사 35인 이내 • 17인(회장, 부회장 포함) + 상근이사(2인) + 시·도 건축사회 회장 16인 (당연직)
	임원의 선출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임 기	2년,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		회장은 임기시작 2개월 이전에 선출
	고문등	본 협회 회장 역임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본 협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
제 5 장 이 사 회	설치 및 구성	감사 및 건축사회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건축사회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월 소집		상임 이사회의 소집, 의결, 운영방법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름.
	의 결 사 항	- 신 설 -		총회 승인예산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항·목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제 6 장 위 원 회	건축사회 회장회의	건축사회회장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건축사회회장의 이사회 참여로 건축사회회장회의의 삭제
	위 원 회	윤리위원회, 건축위원회, 법제위원회, 국제위원회, 홍보편찬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시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상설화		중앙윤리위원회, 법제위원회, 국제위원회, 홍보편찬위원회, 교육시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상설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 구성	임기 1년(연임 가능) - 신 설 -		현행과 같음 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인사로 위촉 가능
제 7 장 사무기구	급 여	상근부회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함.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2인), 직원은 유급으로 함.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재 정	찬조회비		찬조회비를 특별회비로 명칭 변경
제 9 장 건축사회	구 성	찬조회원		특별회원으로 명칭 변경
		간사회		이사회로 명칭 변경
		- 신 설 -		건축사회는 협회 정관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건축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별도의 회칙을 제정할 수 있음. 단, 건축사회의 회칙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신 설 -		별도의 회칙을 제정하지 않은 건축사회는 협회 정관을 준용
	총 회	총회의 소집과 성립 및 의결요건 등을 정함.		총회의 소집 및 구성, 운영 등은 건축사회의 회칙에 따름.
	임 원	임원의 임기, 구성, 의결 등		임원의 임기, 구성, 의결 등은 건축사회의 회칙에 따름.
	간사회	건축사회 간사회 의 구성, 의결 내용이 있음		간사회를 이사회로 바꾸고,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축사회의 회칙에 따름.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		위원회의 구성, 임기, 의결 등은 건축사회의 회칙에 따름.
	업무보고	대의원 선출 및 총회 개최 등을 본협회에 보고		본협회 보고사항으로 지역건축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 10 장 포상과 징계	추 대 회 원	추대회원은 정회원 회비를 면제		회비면제 조항 폐지, 추대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회 비 미납의 징계	회비 미납회원의 징계요건을 정함. • 3개월 이상 : 경고 • 6개월 이상 : 권리정지 • 12개월이상 : 제명		“징계할 수 있다.”를 “징계한다.”로 하여 회비 미납회원 회원의 징계를 의무화하여 요건을 강화함. • 6개월 이상 : 경고 • 12개월 이상 : 권리정지 • 24개월 이상 : 제명
		회비 완납 후 7일후부터 정회원 권리회복		단서조항 추가 단, 권리회복은 제명결정 후 1년이내
부 칙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날부터 시행. 다만,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11월 30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11월초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전구간의 기초 매트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공정으로 지하4층 기둥, 벽체 콘크리트 타설과 지하3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남측 코너스트럿 8, 9단을 해체하면서 지하 3층 기둥, 벽체의 철근 및 거푸집 조

립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협회에서는 시공자에게 12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동절기 공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당부하고, 동절기 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11월말 현재 28.14%(계획 42.0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12. 1일 개최된 제17회 위원회에서는 시공자로부터 청구된 기성금(1회분)에 대해 감리자의 검토금액과 현장 반입자재중 미가공 철근

물량을 제외하고 산정된 기성금액에서 하자보 증금을 5%를 유보한 95%를 지급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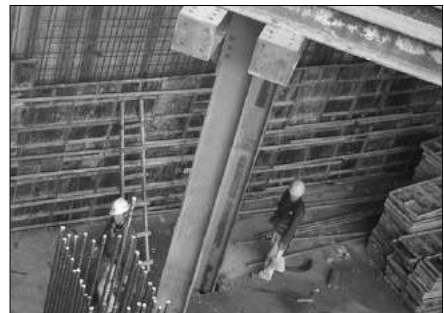
그리고 별도공사인 냉난방설비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결정된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된 협회 협찬내용과 공사계약내용을 확정하고 차기이사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별도공사인 주차관제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사발주를 검토키로 하고, 시공자와 해당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지하 3층 ELEV벽체 철근배근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타설



지하 3층 합벽거푸집 조립



공사 전경



투시도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 동향

CAD 분야에서의 업계의 동향은 우선 Autodesk사의 2D 시장에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Autodesk사의 영업실적은 2004년에 비하여 26%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2D CAD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때 마다 파일포맷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사의 경우 이 파일포맷과의 호환성을 위한 어려움을 겪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영업실적의 신장은 소프트웨어 판매라는 개념으로부터 판매 이후 기술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의 변화로 섹스크립션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판매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또한 사용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통한 수익 창출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시장의 경우이며, 우리의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설계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직접적 청구를 하지 못하듯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A/S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섹스크립션 제도의 시행이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시장은 Autodesk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성장 예상을 10%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2D CAD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3D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 쟁탈전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축 및 건설부분에서는 현재 3D 시장으로의 이행이 타 분야에 비하여 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D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절대적 위치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3D 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AI라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3D 정보교환 표준인 IFC 모델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최근 Autodesk 사는 3D 시장에서의 호환성을 인정받는 것의 일환인 코드 체킹 테스트를 받았다.

올해의 가장 관심 중 하나는 2D CAD 시장에서의 de facto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DWG 포맷에 대한 Adobe 사에서 문서표준으로 제한한 PDF 파일 형식의 도전이다. 이는 CAD 도면도 하나의 문서 표준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양대 표준의 시장쟁탈전은 더욱 치열하여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Photoshop과 Illustrator 등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그래픽 분야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Adobe사 또한 CAD 시장의 표준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 사의 경쟁에 따라 파일 포맷 변환 도구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CAD가 단순한 제도 도구라는 개념으로부터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SOM은 최근 SketchUp을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사내 표준 소프트웨어로의 사용 결정을 하였다. 또한 제도의 도구로부터 설계정보모델의 개념으로 꾸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2D 시장으로부터 3D 시장으로의 전환은 이와 같은 정보모델이라는 개념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미 ArchiCAD는 3D CAD로의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Autodesk 사도 Revit을 통하여 3D 시장으로의 전환을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실은 미국 내 중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신흥 시장인 인도 및 중국 등의 대규모 회사들에서의 적용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 소식

SOM, 개념설계 소프트웨어로 SketchUp 결정

SketchUp의 제조사인 @Last Software는 지난 16일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SOM)과 개념설계 부분의 소프트웨어로 사용 계약을 발표하였다. SOM의 900명이 넘는 전 세계의 전문 인력은 앞으로 SketchUp을 사용하여 개념단계의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Autodesk사의 영업실적 발표

2005년 11월 18일 발표된 미국 Autodesk 본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3분기는 순익이 3.78억달러로 전년 3분기의 3억 달러에 비교하여 26% 증가한 판매고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3분기의 순익은 9천 5백만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3차원 제품의 판매의 증가와 함께 섹스크립션 제도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섹스크립션과 업그레이드는 지난해에 비하여 34% 증가하였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섹스크립션에 의한 수익이 62% 증가하였다. 섹스크립션과 업그레이드가 전체 수익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의 3차원 제품 또한 시장을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다. 3D 제품인 오토데스크의 인벤터 시리즈, Inventor Professional, Autodesk Revit Building, Autodesk AutoCAD Revit Series, Autodesk Revit Structure and Autodesk Civil 3D software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에 비하여 10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예상이 10-12%로 전망되고 있어 대폭적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주식이 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Autodesk사, IAI 코드 체크 테스트 통과

Autodesk 사의 Revit이 지난 11월 18일 이루어진 IFC2x2 제 2단계 코드 체크 테스트를 통과 하였다. IFC는 3차원 CAD(Building Information Model)의 국제 표준규격이며 이 테스트에서의 통과는 Revit이 국제 표준으로써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Autodesk Korea, HP 프린팅 기능과의 전략적 제휴

2005년 11월 15일 오토데스크코리아는와 한국HP와 오토데스크 DWF 뷰어 및 DWF 컴포저에서 HP 디자인젯(Designjet) 시리즈 프린터의 인스턴트 프린팅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양 사는 HP 디자인젯 70 또는 110 플러스 프린터 시리즈 고객 구입 시 DWF 컴포저의 시험판 및 DWF 뷰어와 라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Autodesk Korea, 아태지역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25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토데스크 2005 아시아 태평양지역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일반인 대상의 산업분야 대상에서는 건축부문에서 현대건설의 최현일 씨, 토목 부문에서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이혁진 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기계 설계분야에서는 포스코의 이수균 씨 외 3명이 수상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유승천 씨 외 3명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Autodesk Korea, DWG 변환도구 제공

오토데스크코리아는 DWG 파일을 보기 위한

'DWG 트루뷰'와 DWG 파일을 최신버전으로 변환시키는 'DWG 트루컨버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2D 시장에서 새로운 버전의 DWG 포맷 형식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계에서의 지속적인 de facto standard로서의 위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벤틀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올해의 기술 기업으로 선정

벤틀리사는 제13회 Eastern Technology Council's(ETC's)에 의해 올해의 기술기업(Technology Company)로 선정되었다. 이 선정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선도적 기술과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 기업에 주어지는 상이다.

ARCHIBUS, FM Web Central V.15 발표

ARCHIBUS는 11월 15일 FM Web Central V.15를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시설관리 부문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시설관리 부문에 대한 보다 향상된 관리와 기반 시설 관리 기능이 있다. 또한 웹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와 예산관리 그리고 이사에 따른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ArchiCAD 겨울 캠프 개최

ArchiCAD 전문 딜러인 아키탱은 2006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동대학 강릉캠퍼스에서 겨울 캠프를 개최한다. 일반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기초과정, 중급 및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문의 : glasskkang112@hanmail.net

신규 소프트웨어

DWG to PDF Converter

이 소프트웨어는 DEG 파일을 아도비 아크로벳 파일 형식인 PDF 파일로의 변환이 가능하게 한다. DWG 파일이나 DXF 파일로부터 PDF 파일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다수의 DWG 파일로부터 한 개의 PDF 파일의 생성이 가능하며, 또한 1:1의 변환도 가능하다. 다양한 크기의 출력을 지원한다. Bookmark 기능이 있으며 AutoCAD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다.

PDF Creator Plus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식의 파일로부터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프린터의 기능으로써 PDF 파일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S Word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할 경우 하이퍼링크, 북마크 등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IFF, JPEG, BMP, EMF 형식으로의 변환 또한 가능하다.

Alteros 3D

3D/2D 그래픽 파일 뷰어이다. 이 뷰어는 2D 포맷인 2D graphical files (PSD, PNG, TIF, JPEG, BMP, GIF 등을 지원하며, 3D 포맷인 3DS, MAX, VRML, TrueSpace, LightWave 그리고 다른 다양한 포맷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비디오 및 오디오 그리고 DVD 형식을 지원한다.

Kreonet Design 2D

이 소프트웨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

한 스케치 도구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형태에 대한 디자인 기능과 함께 렌더링 기능이 있으며, 또한 면적 등의 계산 기능을 갖추고 있다.

Update 소프트웨어

SunCalc

이 소프트웨어는 태양광선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내 및 실외의 태양광선에 의한 미세기후를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AutoCAD 내에서 작동하며, 2차원 및 3차원 모델 모두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2차원 및 3차원의 그림자 생성이 가능하다. 대지의 형상에 따른 정확한 그림자를 시간 및 날짜 및 도시의 위치에 따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DWGSee

작은 용량의 DWG 도면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ACDSee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DWG, DXF 그리고 DWF 파일 그리고 AutoCAD 2006 도면파일을 보고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DWG2Image Converter

이 소프트웨어는 DWG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DWG 파일로부터 JPG, TIFF, BMP, GIF 및 PNG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며, Auto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상의 도면 올리 기, CD-ROM에서의 도면의 관리 및 저장 a 및

전자출판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Realtime Landscaping Pro

조경 디자인 및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3차원적 시각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건물의 설계에 따른 지표면, 중정, 벽, 3차원적 식생, 연못 그리고 폭포 등의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다. 조명, 그림자, 물의 흐름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제공 :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5년 건축허가 현황(10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954	11,283	3.0%	117,429	106,376	-9.4%
	연면적	9,308,880	10,603,629	13.9%	89,580,065	87,976,709	-1.8%
주거용	동 수	3,413	2,997	-12.2%	38,908	30,448	-21.7%
	연면적	4,637,484	3,943,580	-15.0%	35,117,114	37,342,303	6.3%
상업용	동 수	3,371	3,324	-1.4%	37,703	31,989	-13.7%
	연면적	2,050,169	2,953,266	44.0%	26,414,600	20,261,758	-23.3%
공업용	동 수	1,491	1,706	14.4%	17,030	16,507	-3.1%
	연면적	749,289	1,088,481	45.3%	11,776,454	11,156,198	-5.3%
문교및 사회용	동 수	808	1,051	30.1%	6,988	8,054	15.3%
	연면적	833,557	1,489,659	78.7%	6,958,402	8,470,096	21.7%
기 타	동 수	1,871	2,205	17.9%	17,430	19,378	11.2%
	연면적	1,038,381	1,128,643	8.7%	9,313,495	10,746,354	15.4%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954	11,283	3.0%	117,429	106,376	-9.4%
	연면적	9,308,880	10,603,629	13.9%	89,580,065	87,976,709	-1.8%
철 근	동 수	9,471	9,892	4.4%	101,549	93,175	-8.2%
	연면적	9,174,525	10,493,747	14.4%	87,949,128	86,865,528	-1.2%
조적조	동 수	1,278	1,193	-6.7%	13,964	11,301	-19.1%
	연면적	105,021	92,900	-11.5%	1,288,340	924,029	-28.3%
목 조	동 수	204	198	-2.9%	1,914	1,893	-1.1%
	연면적	29,236	16,982	-41.9%	342,061	186,464	-45.5%
기 타	동 수	1	0	-100.0%	2	7	250.0%
	연면적	98	0	-100.0%	536	687	28.2%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0월)			누계 (1~10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954	11,283	3.0%	117,429	106,376	-9.4%
	연면적	9,308,880	10,603,629	13.9%	89,580,065	87,976,709	-1.8%
수도권	동 수	3,976	3,360	-15.5%	39,795	32,923	-17.3%
	연면적	5,174,428	4,500,417	-13.0%	43,798,239	38,685,838	-11.7%
서 울	동 수	750	618	-17.6%	7,375	6,070	-17.7%
	연면적	1,011,653	2,043,777	102.0%	10,747,460	10,363,055	-3.6%
인 천	동 수	423	305	-27.9%	3,941	3,054	-22.5%
	연면적	649,437	264,261	-59.3%	5,671,620	3,611,416	-36.3%
경기도	동 수	2,803	2,437	-13.1%	28,479	23,799	-16.4%
	연면적	3,513,338	2,192,379	-37.6%	27,379,159	24,711,367	-9.7%
지 방	동 수	6,978	7,923	13.5%	77,634	73,453	-5.4%
	연면적	4,134,452	6,103,212	47.6%	45,781,826	49,290,871	7.7%
부 산	동 수	311	441	41.8%	4,095	4,174	1.9%
	연면적	186,694	845,736	353.0%	4,240,620	4,524,968	6.7%
대 구	동 수	325	412	26.8%	4,470	3,977	-11.0%
	연면적	298,187	720,007	141.5%	4,125,675	6,293,739	52.6%
광 주	동 수	273	309	13.2%	2,722	2,886	6.0%
	연면적	262,798	148,719	-43.4%	1,827,868	2,387,532	30.6%
대 전	동 수	275	267	-2.9%	2,857	2,370	-17.0%
	연면적	277,089	338,641	22.2%	2,776,664	2,094,540	-24.6%
울 산	동 수	240	290	20.8%	3,047	2,773	-9.0%
	연면적	92,278	128,940	39.7%	1,766,193	1,472,817	-16.6%
강 원	동 수	557	616	10.6%	6,556	5,811	-11.4%
	연면적	336,018	282,659	-15.9%	3,388,376	3,772,052	11.3%
충 북	동 수	715	558	-22.0%	7,178	6,194	-13.7%
	연면적	339,448	874,136	157.5%	4,386,257	4,468,713	1.9%
충 남	동 수	783	783	0.0%	9,595	7,596	-20.8%
	연면적	791,782	699,848	-11.6%	7,438,926	5,757,817	-22.6%
전 북	동 수	530	538	1.5%	5,357	5,673	5.9%
	연면적	277,545	185,977	-33.0%	2,098,735	2,980,690	42.0%
전 남	동 수	706	694	-1.7%	6,342	6,432	1.4%
	연면적	273,144	146,574	-46.3%	2,58,025	2,065,350	-20.1%
경 북	동 수	1,011	1,511	49.5%	11,310	11,695	3.4%
	연면적	484,151	574,507	18.7%	4,630,252	5,583,688	20.6%
경 남	동 수	977	1,210	23.8%	11,056	11,331	2.5%
	연면적	360,574	1,038,766	188.1%	5,617,325	7,080,662	26.1%
제 주	동 수	275	294	6.9%	3,049	2,541	-16.7%
	연면적	154,744	118,702	-23.3%	899,910	808,303	-10.2%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10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건 축																													사무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96	5,096	169	338	29	91					5,294	5,525	1,467	1,467	262	524	72	216	30	120	33	209						1,864	2,536	7	7	7,158	8,061	100.0%	100.0%																					
서울	1,187	1,187	52	104	13	41					1,252	1,332	845	845	173	346	42	126	20	80	18	119						1,098	1,516	6	6	2,350	2,848	33.2%	35.4%																					
부산	512	512	20	40	6	19					538	571	75	75	12	24	5	15	5	20	5	28						102	162			640	733	8.9%	9.1%																					
대구	417	417	27	54	6	19					450	490	47	47	20	40	6	18	1	4	2	10						76	119			526	609	7.3%	7.5%																					
인천	221	221	2	4							223	225	49	49	4	8	1	3										54	60			277	285	3.9%	3.5%																					
광주	206	206	4	8							210	214	29	29	7	14	3	9	1	4	3	17						43	73			253	287	3.5%	3.6%																					
대전	202	202	13	26	2	6					217	234	24	24	11	22			1	4	1	12						37	62			254	296	3.6%	3.7%																					
울산	159	159	6	12	1	3					166	174	14	14	2	4	2	6										18	24			184	198	2.6%	2.5%																					
경기	685	685	7	14							692	699	222	222	18	36	3	9			2	10						245	277			937	976	12.7%	12.1%																					
강원	153	153	4	8							157	161	21	21	3	6			1	4								25	31			182	192	2.5%	2.4%																					
충북	172	172	8	16							180	188	22	22	2	4	2	6			2	13						28	45			208	233	2.9%	2.9%																					
충남	155	155	3	6							158	161	36	36			2	6	1	4								39	46			197	207	2.7%	2.6%																					
전북	177	177	3	6							180	183	20	20	2	4	3	9										25	33			205	216	2.8%	2.6%																					
전남	127	127									127	127	8	8			1	3										9	11			136	138	1.9%	1.7%																					
경북	287	287	7	14	1	3					295	304	30	30	2	4	1	3										33	37	1	1	328	341	4.6%	4.2%																					
경남	334	334	13	26							347	360	18	18	6	12	1	3										25	33			372	393	5.2%	4.9%																					
제주	102	102									102	102	7	7														7	7			109	109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51	10	8,061	100.0%	23
서울	2,845	3	2,848	35.4%	10
부산	732	1	733	9.1%	9
대구	609	0	609	7.5%	0
인천	285	0	285	3.5%	0
광주	287	0	287	3.6%	0
대전	295	1	296	3.7%	0
울산	198	0	198	2.5%	0
경기	974	2	976	12.1%	2
강원	192	0	192	2.4%	0
충북	233	0	233	2.9%	0
충남	204	3	207	2.6%	0
전북	216	0	216	2.6%	0
전남	138	0	138	1.7%	0
경북	341	0	341	4.2%	1
경남	393	0	393	4.9%	1
제주	109	0	109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25	2,536	7	8,061	
비 율	68.4%	31.5%	0.1%	100.0%	
사무소수	5,294	1,864	7	7,158	
비 율	73.7%	26.2%	0.1%	100.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년 12월 2일)

■ 개정이유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게 하고, 주택의 발코니 등은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등의 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그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㉞ 동 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각 세대

간 경계부분의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의 어느 세대가 인접세대와 접하지 아니하거나 한 면만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중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

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신·구조문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 1. ~ 14. (현행과 같음)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중) 동 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각 세대간 경계부분의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의 어느 세대가 인접세대와 접하지 아니하거나 한 면만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2. (생 략)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생 략)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이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 바.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③(생 략)	3. ————— 가. (현행과 같음)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건본주택건축기준일부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7호, 2005년 12월 7일)

■ 개정이유

'05. 11. 1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인터넷 건본주택 제도가 도입되고 '05. 12. 2일부터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본주택 건축기준을 일부 기준을 개정·보완한 것임

■ 건본주택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건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건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기준) 건본주택은 그 건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건본주택의 외벽과 처마면이 내화구조 및 불연재로 된 경우
2.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제3조(구조형태 등) (현 본 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본주택과 사이버건본주택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 본 주택의 외부구조는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4조(건본주택내 선택제품 설치등) (현 본 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체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품질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분양계약시 분양가격 이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을 건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당해 품목 등에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되 당해 품목의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현 본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등은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입주자모집내용통보를 말한다)을 하는 때에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건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작하여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는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영상물에는 건본주택의 바닥·벽·천정 및 분양내용에 포함된 설비·마감자재 등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등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완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보관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완공확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사이버건본주택을 운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다)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현 본 주택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현 본 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

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건본주택의 운용)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건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건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건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세대별 평면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선품목(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건본주택에 전시하는 품목) 목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선택품목등의 공급가격 표시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건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건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건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이버 건본주택의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은 동 기준 시행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a+u

2005년 8월호

이번 호는 유명 건축사의 최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건축사는 헤르조그 드 뮌롱, 피터 아이젠만, 프랭크 게리, 자하하디드, OMA(렘 콜하스)이다. 흥미로운 것은 헤르조그 엔 드 뮌롱을 제외하면 모두 1970년대 해체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소개된 5작품은 각 건축사들의 개성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어 이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재미 또한 제공한다.

IKMZ BTU Cottbus(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 인포메이션·커뮤니케이션·미디어 센터, 독일 코트부스) - 설계 : 헤르조그 엔 드 뮌롱(Herzog & de Meuron)

이 건물이 세워진 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BTU)은 동서 독일의 통일과 함께 1991년에 새로이 창설된



IKMZ BTU Cottbus

대학이다. 기존 토목공학대학과 그 외의 연구시설이 있었던 부지에 캠퍼스가 조성되면서 각 건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다. 헤르조그 엔 드 뮌롱은 1990년에 이루어진 현상설계에서 제안한 것은 2개의 사각형 매스의 건물을 설치하여 도서관과 주요 강의동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의 방향은 크게 선화하게 된다. 메인 오디토리움은 캠퍼스의 다른 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강의동의 역할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그들은 도서관이란 다른 건물들과는 차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대학의 새로운 정신을 표출하고 주변과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물의 디자인은 통일된 여타의 캠퍼스내 건물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얼핏 보면 아메바와 같은 평면형태는 무작위적인 형태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는 주변 부지의 상황을 고려해 여러 형태를 스터디하며 신중히 골라진 것이라고 설계자는 말한다.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교차하는 이 건물은 캠퍼스의 중앙에서 바라보면 방문자를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보이고, 캠퍼스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우뚝 선 타워와 같은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표정을 갖게 만들었으며, 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부지의 주변상황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라는 것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나 건물의 표정이 바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각형의 박스형태로 매우 절제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여타의 캠퍼스 건물들과 분명한 차별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며, 캠퍼스의 보석이자 랜드마크라는 개념은 달성된 듯 하다.

건물 내부는 층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오픈닝을 슬래브에 계획하였다. 이 오픈닝으로 인하여 실내에서는 상당히 다채로운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건물 내부에는 하나의 거대한 나선형 계단과 두 개의 원형 코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원기둥은 건물 내부에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 건물 외곽선이 부정형인 만큼 방문자가 방향성을 상실하기 쉬운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향성 그리고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

치는 또 있다. 레몬과 그린, 핑크, 레드, 블루 그리고 그레이라는 6가지 색상을 통해 바닥 패턴을 표시한 것이다. 열람실은 차분한 회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다채로운 색상의 바닥패턴을 적용하여 건물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방향성과 영역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유리 커튼월로 된 건물의 외벽에는 알파벳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어의 문자들이 서로 몇 층에 걸쳐 겹쳐져 있는 형상을 프린트해 놓았다. 물론 무어라 적혀 있는지 판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문자기호의 세계를 그 출발로 한 문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프린트된 문양은 반사되는 빛을 교란시켜 유리표면이 갖는 딱딱한 질감을 감쇄시키고 건물 전체에 균질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Jay Pritzker Pavilion, 미국 시카고)-설계 :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은 시카고의 그랜드 파크 내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으로 그랜드 파크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재즈나 블루스, 월드 뮤직 콘서트가 열리게 될 시설이다. 야외 공연장의 무대가 되는 파빌리온은 게리 특유의 조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사용되었다. 파빌리온은 공원 주변의 도로에서도 잘 보임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 파크의 중심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파빌리온은 12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수용할 수 있고,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코러스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무대의 전면은

거대한 유리문으로 개폐가 가능하여 동절기에는 단체나 개인의 연회장으로 사용된다. 객석부분은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파빌리온 가까이에는 4,000석의 좌석이 고정된 주객석부가 있다. 그 뒤로는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잔디가 깔린 광장이 마련되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두 개의 객석영역은 19.8m의 간격으로 배치된 격자형의 스틸 파이프로 덮여 있다. 이 스틸 파이프의 격자는 객석공간의 영역성을 시각적으로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스피커가 설치되어 무대에서 먼 곳의 객석에서도 충분한 음향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무대에서 은빛의 화염이 폭발한 듯한 장식 외에 또 하나의 볼거리는 컬럼버스 드라이브(4차선 도로)를 건너 보행자를 공연장으로 인도하는 BP브릿지가 그리는 곡선의 미려한 디자인이다.

BMW 라이프치히 공장의 센트럴 빌딩(독일 라이프치히)-설계 : 자하 하디드(Zaha Hadid)
최근 '로마현대미술센터'의 디자인에서도 보이듯이 운동감 넘치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 왔다.

아마도 'BMW 센트럴빌딩'만큼 이 같은 그녀의 최근 경향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건물은 없을 것이다. 'BMW 센트럴빌딩'은 3동으로 이루어진 공장 플랜트 사이에 위치하여 공장의 메인 엔트런스 기능과 오피스, 중앙제어실, 카페, 진료실, 방문고객센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이다. BMW는 지난 2004년 10월 본사를 이 센트럴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센트럴빌딩은 3개의 공장동을 연결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 물리적으로 3개동을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공장동간의 빈번한 인적·물적 이동이 이 센트럴 빌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상되는 자동차는 각각 도색, 용접, 조립의 작업이 행해지는 3개의 공장동을 누비며 완성되는데, 공장동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바로 센트럴빌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센트럴 빌딩은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의 공간을 나누고 있지 않다. 이는 BMW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부분이다. 사람과 자동차의 생산라인이 서로 한 공간에 중첩되고, 또한 오피스와 공장이 공존하는 이 곳은 BMW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흐르는 듯한 역동성을 강조한

자하 하디드의 호형언어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물류의 흐름과 어우러져 통일되고 명쾌한 공간의 성격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그녀의 디자인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이미지와 미래적 이미지는 '제1기계시대'의 대표적인 산물인 자동차 메이커 본사의 이미지와 어우러지고 있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의 공장건축에 나타난 기계미학을 21세기 초의 버전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Jay Pritzker Pavilion



BMW 라이프치히 공장의 센트럴 빌딩



까사 다 뮤지카

이 외에도 피터 아이젠만의 '유럽 유대인 희생자 추모 기념관'과 OMA의 '까사 다 뮤지카(Casa da Musica)'가 소개되었다. 아이젠만은 희생된 유대인 개개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2,700기의 묘비모양의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었으며, OMA는 조각적 형태의 공연장을 선보였다.

신건축

2005년 8월호

이번 신건축지는 '집합주택특집'으로 꾸며졌다. 신건축지가 종종 특집 기사를 꾸미지만 본격적인 특집



기사는 이번처럼 표지의 중앙에 특집의 제목을 새겨 넣을 때 만이다. 본격적인 특집답게 최근 일본에서 완공된 중소규모의 집합주택이 상당수 소개되었다. '집합주택'하면 아파트를 떠올리는 국내의 사정과는 달리 일본에서 최근 일고 있는 건축사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중소규모의 집합주택 붐을 읽을 수 있는 특집이다.

■ 집합주택 특집

이번 특집에는 총 19개의 중·소규모 집합주택이 소개되었으며, 3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합주택에서 중정을 갖는 중규모에 이르기까지 작품별로 다양한 특징들을 지닌 것들로서 최근 다중·다양화하고 있는 일본의 집합주택 경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규모와 특징별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치바 마나부(千葉学)가 설계한 '토도로키의 가라지(Garage)하우스'는 총 3호가 연립된 소규모 집합주택이다. 정확히는 작은 토지를 몇 개의 필지로 나누어 주택을 지어 파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위 집장사 형태의 주택이다. 작은 필지로 나누어 주택을 짓는 현상은 일본에서 전형적인 현상으로, 큰 필지에 하나의 집합주택을 짓는 것보다 필지를 잘게 나누어 작은 소규모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일본에서는 '타테우리 주택'이라 한다. 당연히 타테우리 주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좁은 필지에 너무나도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다. 토도로키의 가라지 하우스를 설계한 치바 마나부는 3개의 타테우리 주택을 지으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지 경계면에



토도로키의 가라지하우스

바닥 붙여 건축할 수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3개의 주택을 마치 하나의 집합주택처럼 모아서 건축한 것이다. 이로써 비교적 여유로운 진입공간과 도시경관에 적절한 건물의 매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특징 이외에 3개 층으로 구성된 이 주택은 총별로 다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만들어져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규정된 공간 사용이 아닌 입주자에 의해 공간의 성격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의 확보는 일본 집합주택에서 주요한 요건이 된 지 오래다.

'엑시아 아자부(AXIA 麻布, 아마시타 마사히코(山下昌彦)와 UG도시건축 설계)'는 타워형의 집합주택이다. 중앙에 코어를 두고 좁고 세장한 주호를 코어 주변에 두른 것으로, 도심형 원룸주택이 주를 이룬다. 주호의 한 면만 외기에 면하고, 좁고 긴 평면이 가지는 협소한 공간감을 해소하기 위해 메조넷 형식의 주호가 첨가되었다. 메조넷 형식 주호의 단면은 르 꼬르뷔제의 '유니페다비타시옹'의 주호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하프 스패의 메조넷 타입과 1스패의 타입이 존재하고, 또한 플랫형식의 두 가지 아플리에 타입이 마련되어 있다. 주호의 규모도 46㎡에서 17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집합주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공용의 스카이라운지와 게스



엑시아 아자부



멕시코 아자부의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룸

트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1층의 엔터런스 홀과 더불어 이와 같은 고급화된 공용공간은 협소한 개인 주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니시모리(西森)건축사무소가 설계한 'n-GT1'은



n-GT1

작은 중정을 지닌 저층 집합주택이다. 총 10호로 구성된 이 집합주택은 실거주자들이 모여 집합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일본에서는 '코포레이티브(cooperative) 주택'이라 부르고 있다. 실거주자가 미리 정해진 상황에서 설계되기 때문에 각 입주자의 기호에 맞추어 각 주호의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자는 각 입주자의 개성을 충족시키면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3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주택은 공용의 홀을 갖지 않는다. 10개의 주호는 각각 독립된 출입구로 중정에서 직접 출입하며, 5개의 주호가 1층에 출입구를 두고 있다. 나머지 5개의 주호는 2층으로 오르는 외부 계단을 통해 진입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주호는 메조넷 형식으로 구성된다. 각 주호의 독립성은 극대화되어 있지만 출입 동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정은 이 코퍼레이티브 주택의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코트데코 오야마다이(Courtdecor 尾山台, 타이카츠마(田井勝馬) 건축연구소 설계)'는 n-GT1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크다. 중앙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중정을 통해 각 주호로 진입하며, 마찬가지로 공용의 홀은 없다. A, B 두 타입만 존재하는 주호는 지하층에서 2층 그리고 루프 테라스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각 주호가 지하에서 루프 테라스까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계획방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의 면적이 늘지만 주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각 주호에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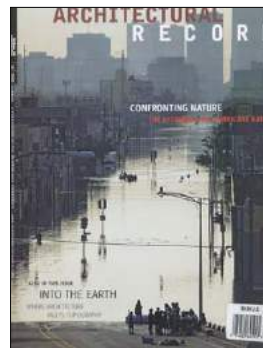


코트데코 오야마다이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10월호

이번 호는 랜드스케이프로부터 건축적 개념이나 형태를 차용하는 흐름들을 주제로 다루



었다. 건물유형연구에서는 현 미국 공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국의 최신 공향건축이 소개되었으며, 개발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릇으로서 캘리포니아의 주거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 Landform - 미래 건축의 흐름

건축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말 그대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과 협업하여 디자인하고 있으며, 건물 그 자체가 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은 건축 개념을 땅으로부터 도출한 작품들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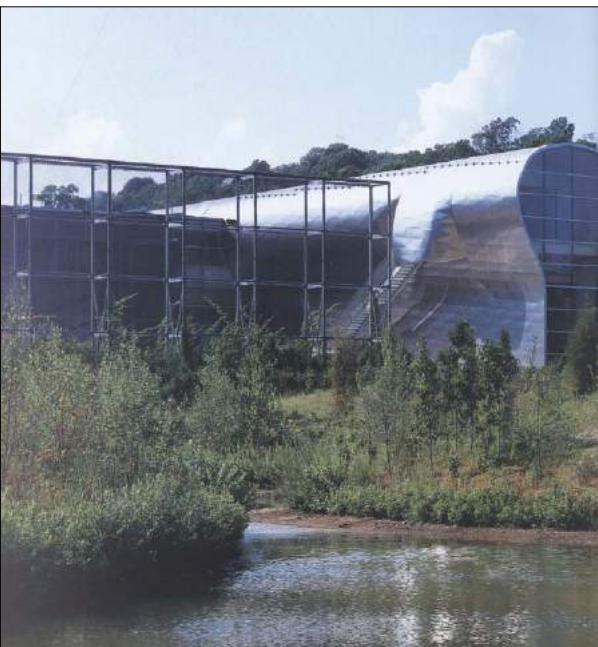
Tadao Ando의 Chichu 미술관

오사카 남서쪽에 위치한 나오시마 섬에는 독특한 문화 콤플렉스가 입지하고 있다. 섬의 중심부에는 에도시대에 번성했던 주거지를 예술작품의 설치장소로 재생시켰는가 하면, 다이쇼시대의 동 제련소가 교육 출판 회사인 Benesse에 의해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되었다. Tadao Ando와 기타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여 Benesse House, 현대 미술관, 갤러리, 호텔 등으로 구성된 콤플렉스가 1992년 완공되었다. 이 지역에서 약 반 마일 떨어진 곳에는 Ando가 설계한 Chichu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나오시마 Fukutake 미술재단은 이



Chichu 미술관

곳에 Claude Monet, James Turrel, Walter De Maria 단 세 작가만을 위한 영구 설치장소를 마련하였다. 건축가는 세 작가의 갤러리를 미로와 같은 공간적 시퀀스로 연결하였다. 밝



정수장 공원

음과 어두움, 열림과 닫힘이 교차하면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히려 Ando 건축의 강력한 인상을 기억하며 섬을 떠나게 된다. Ando는 기하학적 형태의 천창등만 남겨둔 채 관목과 나무들이 건물 상부를 덮게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읽히지게 하였다. 나오시마 현대 미술관 등에서는 건물의 절반을 대지 아래에 묻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기념비성 없이 기념비적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에 의해 가능하였다.

Steven Holl의 정수장 공원

마치 문화시설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 매일 1500만 갤런의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를 담고 있는 건물이다. 중상류층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정수장을 설치해야 했기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콘크리트 bunker와 같은 구조물이 아닌, 이상적 환경을 위한 중심체로서 디자인 된 것이다. 발주처인 지역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도 건축가 선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몇 개의 회사를 인터뷰한 결과 Steven Holl이 건축가로 결정되었다. 고도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건축적 어휘를 발전시키는 것은 Holl과 담당 건축가들을 고무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들은 물을 정화시키는 복잡한 과정(물 분자수준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지상에는 공공 및 운영 프로그램을 담는 2개층의 은빛 구조물이 들어섰으며, 지하에는 여러 레벨로 나누어진 수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었다. 긴 원통형의 구조물 중간중간에 솟아 오른 구멍들은 형태적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구부나 외부계단이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정수장 주변의 14에 이커에 달하는 대지에는 정수장과 통합되는 공원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Holl은 물을 정화하는 6단계의 과정의 은유하여 6개의 독특한 구성을 가진 외부공간을 협력 조경 건축가에게 제안하였다.

그 밖에 Reed Hilderbrand and Maryann Thompson의 보스턴 와이너리 공원, Palern + Tabares de Nova Arquitectos의 Cesar Manrique Foundation Studio,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Paul Klee Center 등이 소개되었다.

■ 건물 유형 연구 - 공항

9.11 테러 이후, 저렴한 공사비로 보다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는 경향이 공항설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American Airlines의 JFK 공항은 공사비를 너무 절감한 나머지 고등학교 체육관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JFK공항에 한정된 것이 아닌데, 그 결과 미국 전역에 걸쳐 비기능적이고 비능률적인 교통집산지가 생성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우수한 구성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로 Richard Rogers Partnership과 Studio Lamela의 마드리드 Barajas 공항, SOM과 Moshe Safdie의 텔아비브 공항, HNTB와 HKS의 달라스 포트워스 터미널 D, NBBJ의 시애틀 남측 터미널 증축이 소개되어 있다.

■ 캘리포니아의 주택 작품 4제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지난 35년 동안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환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 또한 개발자상주의의 획일화된 도시 조직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 잘 조성된 마을조직 속에 각 주택이 적당한 필지규모로 삽입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뤄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주택의 독특한 형식 역시 생생하게 살아있다. 소개된 주택 작품은 700 Palms Residence, Lee Tree House, Santa Barbara Residence, 310 Waverley Residence이다.

Domus

2005년 10월호

건축작품
으로 캘리포
니아 건축가
Michael
Maltzan의
실 험 적 인
작 품 들 과
오스트레일
리아 고속



도로의 조형물이 소개되어 있다. 식물 디자인(textile design)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 뉴올리언즈 태풍참사에 대한 건축가 등의 에세이를 게재하고 있다.

■ Michael Maltzan - Prisms

최첨단 재료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시각 효과를 노리는 캘리포니아 건축가 Maltzan의 작품들은 사적, 공적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resno Metropolitan Museum의 경우 Fresno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내부 통풍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밀면을 제5의 입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Maltzan의 작품들은 대부분 도시의 기존 조직을 새 건물의 일부로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Fresno 박물관 역시 건물 밑의 공간을 역동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에서 내부로의 점진적인 전이를 도모하고 있다. 울룩불룩한 천정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물에 반사된 태양빛과 같은 효과를 내며, 외부영역 곳곳에 마련된 수반은 박물관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Maltzan의 기타 작품으로 중국 Jinhua 건축공원 내 책바, LA의 Leona Residence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고속도로 경관 설치물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멜버른 북쪽 외곽의 새 고속도로에 설치될 두 개의 경관 조각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Taylor Cullity Lethlean이 이끄는 디자인팀의 당선안은 고속도로에 의해 끊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구조물과 차음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원형 구조물은 직선 고속도로와의 형태적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며 철재마감으로 둘러싸인 보행로에서는 입면의 틈을 통해 멜버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 식물 디자인

신부 겸 예술가인 Don Battista Marello의 옛 식물 모음,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빛에 반응하는 신소재를 개발한 Nanni Strada와의 인터뷰, 현대 식물 디자이너인 Tord Boontje의

작품세계가 소개되어 있다.

■ 신간서적 비평

Mario Pisani의 근대건축가 Marcello Poacentini 작품집, Carlos Ferrater의 최근작을 담은 2G 작품집, Fiorella Bulegato, Sergio Polano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Michelle De Lucchi 작품집, Deborah Ascher Barnstone의 The Transparent Stat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Postwar Germany,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론을 다룬 The 60s: Montreal Thinks Big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고 있다.

■ 기타

2000년 6월에 있었던 Beatriz Colomina와 Peter Smithson의 인터뷰, 미국 뉴올리언즈 태풍참사에 대한 건축가 Denise Scott Brown, Fumihiko Maki, 작가 Marco Belpoliti, 철학자 Manuel DeLanda의 특별기고, Richard Neutra의 주택을 디지털적으로 변형시킨 Amir Zaki의 사진 작품, Bruce Conner와의 인터뷰, 서울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중인 예술가 Koo Jeong -A의 작품세계 등을 다루고 있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실장)



Fresno Metropolitan Museum



오스트레일리아 고속도로 경관 설치물